



충청북도 Vision 2014

2011. 2





충북 Vision 2014

충청북도에서 본 연구원에 의뢰한
『충북 Vision 2014』 용역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 2

충북개발연구원
원 장 정 낙 형



참 여 연 구 진

- ❖ 연구책임자 : 최용환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김덕준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양식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민기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오상진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우장명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윤영한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윤혜미 (충북대학교 교수)
- 이경기 (충북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택희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최승호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최영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최영출 (충북대학교 교수)
- ❖ 연구지원 : 신지혜 (충북개발연구원 위촉연구원)



목 차

제1장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1
1. 배경 및 목적	3
제2장 대내외적 여건변화	5
1. Mega Trend : 동향분석	7
2. 국내의 환경변화	20
3. 지역여건 분석 및 여론조사	35
제3장 비전과 전략	65
1. 비전·전략체계도	67
2. 미래성장 전략	71
3. 오송거점 발전전략	72
4. 성장동력 체계	74
제4장 5대부문	81
1. 찾아가는 평생복지	83
2. 살맛나는 서민경제	147
3. 농촌도시 균형발전	205
4. 창의적인 문화예술	337
5. 참여하는 열린도정	397

목 차

제5장 실천계획	465
1. 집행 및 관리계획	467
2. 재정투자계획	476
제6장 충북의 미래상	481
1. 살맛나는 지역경제	483
2. 따뜻한 평생복지	484
3. 창의적인 문화예술	485
부록 : 충북발전전략 투자계획	487

제1장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및 목적



1

배경 및 목적

1-1. 배경 및 목적

□ 배경

- 세계경제는 고성장 시대에서 저속성장 시대로 진입하면서 경제질서가 재편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국가 간의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음
- 세계화·정보화·지방화가 가속화되며 국경의 의미가 약화되었고, 국가 간 경쟁체제가 지역 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음
 - 인구감소, 기후변화, 세계화, 정보화 등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됨
- 민선5기 충북도정은 세계경제위기, 첨단기술의 융복합화, 고령화 시대의 도래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됨
- 패러다임의 변화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발전전략을 조망하고,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 대두
-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역간·산업간의 결합으로 정치·경제·사회·행정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역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함
- 한편, 충북은 지정학적으로 수도권과 인접하고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한 국토의 중심으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
 - 세종시 건설, 오송 KTX역, 청주·청원통합, 오송바이오 밸리, 태양광 밸리 등 오송시대의 개막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적 여건을 갖추
- 새로운 민선5기 창조를 위한 “대한민국중심 당당한 충북” 도정비전에 발맞춘 지역발전 패러다임 전환으로 유도
 - 민선5기 비전 선포(11.2.16)이후 정책방향을 실질적 성과창출 실행모드로 설정
-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추진으로 지역간, 계층간의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도민의 기초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국가발전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의 비전과 전략수립이 요구됨
- 도민과 행정이 힘을 모아 지역의 정체성과 성장잠재력을 재조명함으로써 도민 개개인의 행복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충북비전 2014」를 정하여 도정운영의 기본지침으로 하고자 함
- 민선5기는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충북의 힘을 당당히 펼쳐 도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사는 충북을 건설할 수 있도록 도정 로드맵을 제시하여 도정운영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협력 도출

□ 목 적

- 오송시대의 개막으로 157만 도민과 바람직한 충북의 발전상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발전전략을 수립을 통해 발전목표를 제시함
- 지역산업전반에 걸친 지역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新성장 동력의 창출을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

1-2.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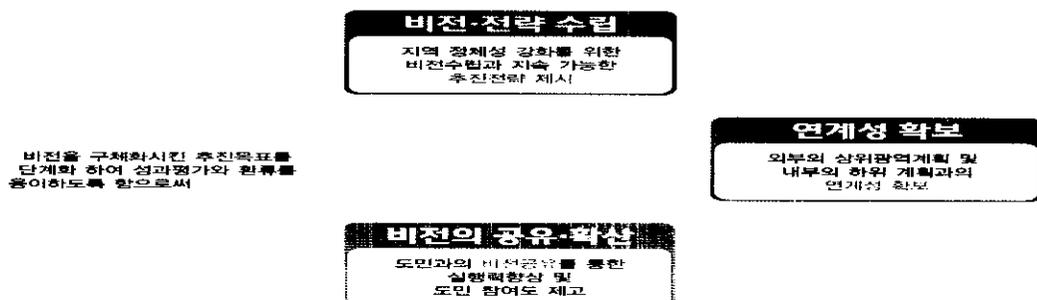
- 계획년도 : 2011년 ~ 2014년
- 기준년도 : 2010년
 - 자료 활용을 위한 기준년도는 2009년으로 함
- 목표년도 : 2014년

□ 공간적 범위

- 충청북도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함
 - 3개시 : 청주, 충주, 제천
 - 9개군 :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사안에 따라 충청권, 수도권, 첨단내륙산업벨트 등과 연계

□ 내용적 범위

- 대내외 환경 및 정책방향
-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의 비전 및 정책목표
- 5대 부문 18분야에 대한 실천사업의 구체화



<그림 1-1> 계획의 내용적 범위

제2장

대내외적 여건변화

- 1. Mega Trend : 동향분석**
- 2. 국내의 환경변화**
- 3. 지역여건 분석 및 여론조사**



1

Mega Trend : 동향분석

1-1. 인구

□ 2050년 세계인구 91억 5천만명 및 OECD 국가 고령화 추세 가속

-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 세계 총인구가 91억 5천만명에 이를 전망
 - 특히, 도시화의 진행으로 2030년 총인구의 80%가 도시 거주

〈표 2-1〉 세계장래 인구

(단위 : 백만명)

연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세계인구수	6,908	7,602	8,308	8,801	9,149

자료 : 통계청, 통계자료

- 전세계적으로 2040년에는 현재보다 65세의 인구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출산과 맞물려 인구사회학적 구조의 변화를 초래
 -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재정적자 확대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와 함께 세대간 갈등 심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큼

〈표 2-2〉 세계인구의 연령구조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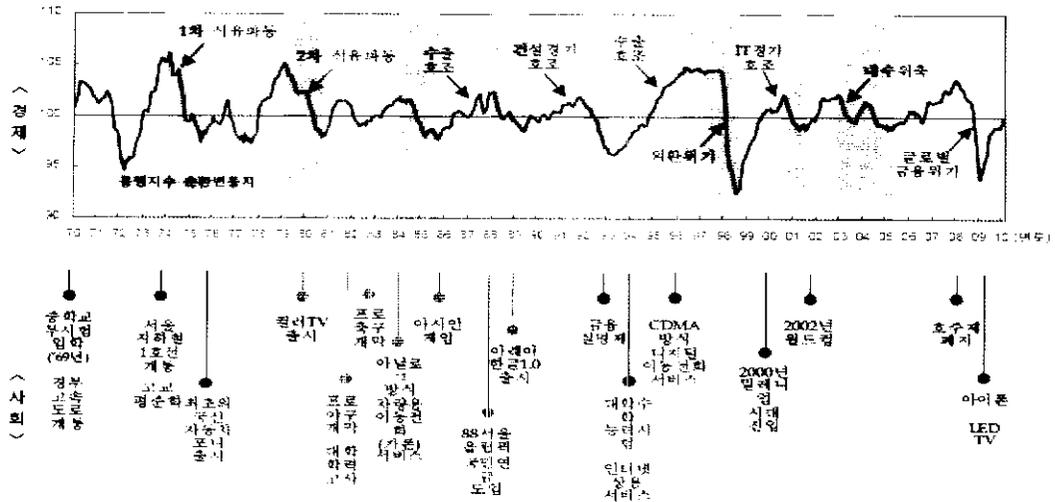
구분	2008년	2015년	2025년	2035년	2045년	2055년
세계	7.3	27.9	10.4	32.8	14.2	36.6
한국	9.3	35.0	19.4	45.5	30.2	51.0
미국	12.4	36.0	18.1	38.7	21.0	40.8
영국	16.1	38.9	19.4	40.8	22.6	42.3
독일	18.9	42.1	25.1	48.8	31.8	51.2

자료 : Population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08 Revision, <http://esa.un.org/unpp>

-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식량 생산이 30년 내에 두 배로 증가해야 하는 상황

□ 베이비붐 세대 1955년생 집단의 은퇴가 시작되는 2010년을 기점으로 많은 사회경제적 변화 전망

-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집단으로 미국은 전체인구의 30%, 영국은 전체인구의 28.5%이며, 일본은 전체인구의 5.4%를 차지함
- 고령화 사회가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 하겠으나, 노동력 감소로 인해 경제가 후퇴함으로써 사회가 활기를 잃은 가능성이 큼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2010),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그림 2-1> 베이비붐 세대가 겪은 사회경제상

□ 세계적인 저출산 경향

- OECD 국가는 저출산과 독신가구와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구 및 조손가구 증가로 가족의 아동에 대한 양육, 발달, 보호, 교육기능이 저하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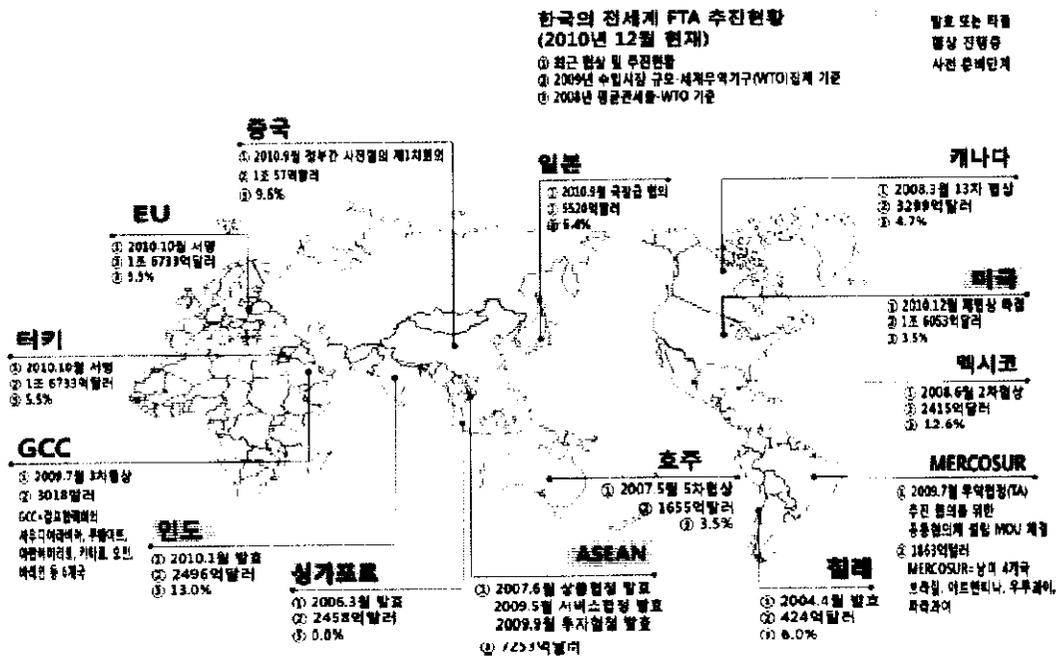
<그림 2-2> 세계 출산율

>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간구조와 산업구조의 재편과 복지체제 재설계 필요
 > 초고령 사회의 진입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사회 창조

1-2. 산업경제

□ 글로벌 경쟁의 가속화 및 경쟁주체 변화

- 1995년 WTO 창설이후, 전세계적인 FTA 체결, 무역·투자자유화 등으로 인해 전 세계가 단일시장중심으로 한 지역경제권의 블록화가 진행되고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되고 추세
 - 주요 국가별·지역별 경제 블록화
 - 초국적기업의 글로벌 경영체제의 완성으로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는 M&A 및 FDI(Foreign Direct Investment)가 증가하고, 국경을 초월한 기업 간 연대·제휴가 확산될 전망
 - 주요 국가들이 자국에게 유리한 통상조건 형성을 위해 EU, NAFTA, MERCOSUR etc 국가들간의 경제블록이 강화됨
 - 시장확대, 국제분업체제의 변화
 - 향후 30년간 세계GDP는 연평균 3.1% 증가함으로써 현재의 2.5배 규모로 확대, 수출은 GDP대비 22%에서 26%로 증가
- 경쟁주체의 변화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 WTO체제의 본격화로 인해 사실상 대외경제정책에서 중앙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정책의 권한과 수단이 대폭 축소되고 있는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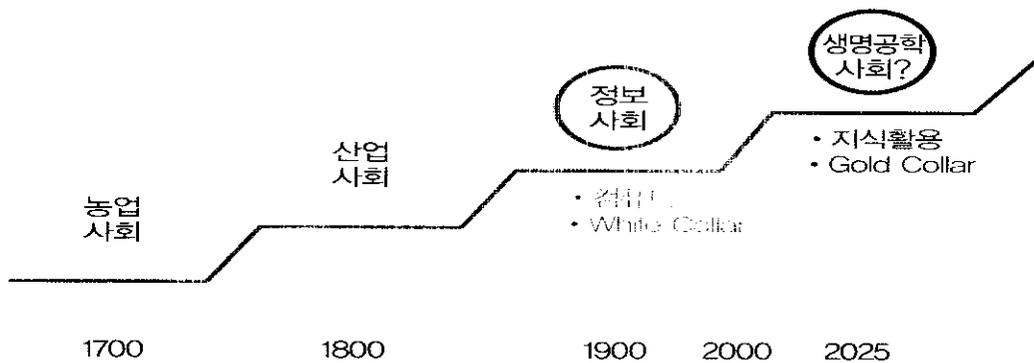
〈그림 2-3〉 한국의 전세계 FTA 추진현황

□ 세계경제 역학구도 및 질서변화

- 세계경제는 미국중심의 단일 성장국가체제에서 금융자본을 중심축으로 세계 경제지도를 재편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중국 등(BRICS) 신흥경제대국의 대두로 국가간, 대도시권간의 경쟁으로 등 다극화 체제로 변화될 전망
 - 세계경제에서 BRICs의 GDP비중 : ('05) 12% → ('20) 25% → ('30) 33%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05.12, Goldman Sachs)
 - 2020년 중국, 인도 등 E7(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의 경제규모는 G7(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경제규모의 150% 수준으로 미국과 함께 주요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전망(Hawksworth & Cookson, 200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 WTO, OECD, OPEC 및 UN 등 주요 국제기구의 경제적 영향력 증대
-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 중심의 경제권 형성

□ 바이오 경제(Bionomics)의 본격화

-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 IT에서 BT로
 - 최근 경제 패러다임은 IT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2000년대 이후 BT분야로의 개편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음
 - 과거 농경사회에서 산업혁명을 거쳐 정보화 혁명기에 있음
 - 현재는 제2기 정보화 혁명기인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반의 정보화 단계라고 볼 수 있음



<그림 2-4> 바이오 경제의 대두

□ 거대도시권(MCR : mega-city region)의 등장 및 새로운 질적 성장 유도

- 국경과 지역을 초월하는 지역협력 강조
 - 세계화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국경 없는 무한 경쟁이 펼쳐짐과 동시에 지역 간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
- 경제단위의 거대도시권화(mega-city region) : 각국의 상업, 문화, 지식, 산업의 중심지로서 발전의 중핵이 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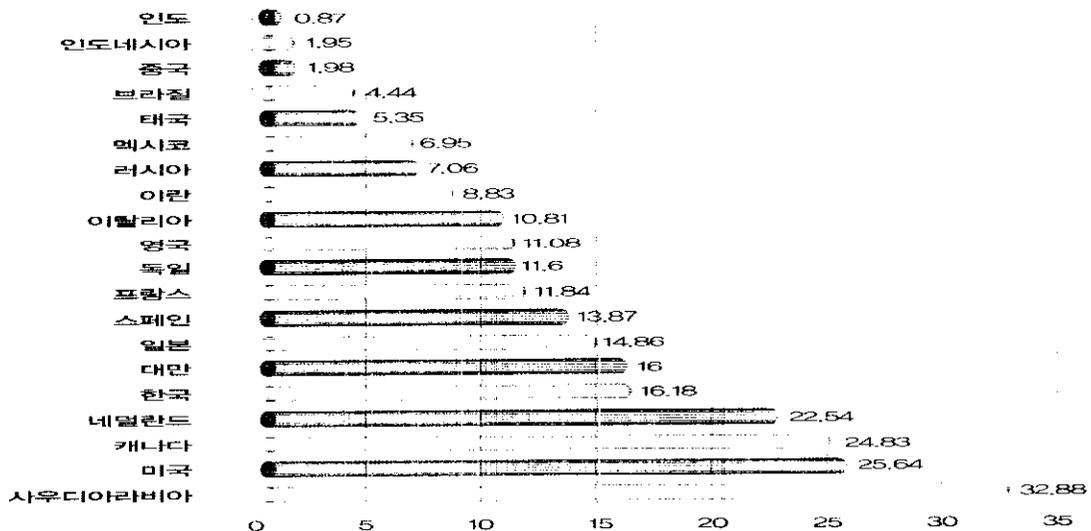
- 1950년 뉴욕과 동경 등 2개 ⇒ 2005년에 20개 ⇒ 2030년 36개로 증가
- 세계 경제는 미국,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 국가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거대도시권(mega-city region) 중심의 경제체제로 전환(광역도쿄, 보스턴-뉴욕-워싱턴D.C., 시카고-피츠버그, 암스테르담-브뤼셀-엔트워프, 오사카-나고야, 대런던 지역 등)
- 도시의 메가시티화는 지역균형개발, 빈부격차 증대, 환경오염, 대규모 보건 위생관리 등 이슈화 될 전망

다각적인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도시계획 마련

□ 에너지·환경 위기의 대두

- 세계에너지기구(IEA, 2008)에 의하면 세계 1차 에너지수요는 2030년까지 연평균 1.6% 증가하여 2006년대비 45% 증가한 170억 toe 전망
-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여 2030년까지 총에너지 수요가 두 배로 증가할 전망
- 정책이나 기술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 2030년까지 에너지 수요의 80%는 화석연료로 충족될 것이며, 이에 따라 탄소포집·저장·재사용 기술이 주목받을 것
- 세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이 부족해지고 자원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

(단위 : 배럴, 2006년 기준)



자료 : ENI(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그림 2-5> 국가별 1인당 석유소비량

> 자원이 많은 국가에의 자원개발 참여와 에너지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도 및 대체에너지에 관심과 노력필요

- 재생에너지 세계시장은 연평균 20-30% 급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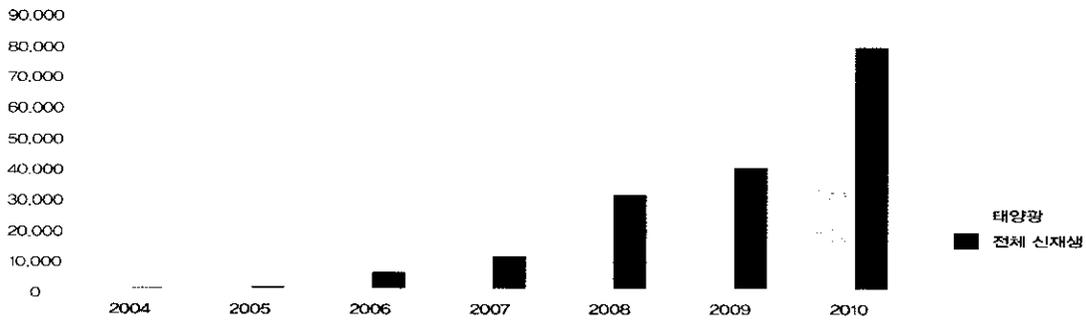
〈표 2-3〉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공급량

(단위 : 천toe, %)

국명	수력	풍력	바이오	폐기물	지열	태양광	수소	기타	합계	비율(%)
미국	21,673 (17.7)	4,507 (3.7)	74,458 (61.0)	9,465 (7.8)	10,408 (8.5)	2 (0.0)	1,595 (1.3)	0 (0.0)	122,109 (100.0)	5.3
독일	1,797 (6.4)	3,474 (12.3)	17,372 (61.5)	4,646 (16.5)	249 (0.9)	344 (1.2)	356 (1.3)	0 (0.0)	28,239 (100.0)	8.4
일본	6,383 (40.1)	251 (1.6)	4,632 (29.1)	1,601 (10.0)	2,556 (16.0)	1 (0.0)	512 (3.2)	0 (0.0)	15,935 (100.0)	3.2
프랑스	5,489 (27.5)	491 (2.5)	11,479 (57.4)	2,327 (11.6)	114 (0.6)	3 (0.0)	44 (0.2)	44 (0.2)	19,992 (100.0)	7.5
영국	432 (7.5)	612 (10.6)	3,590 (62.3)	1,084 (18.8)	1 (0.0)	1 (0.0)	45 (0.8)	0 (0.0)	5,764 (100.0)	2.8
한국	660 (11.3)	94 (1.6)	427 (7.3)	4,569 (78.0)	16 (0.3)	61 (1.0)	28 (0.5)	0 (0.0)	5,858 (100.0)	2.4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시·재생에너지센터, (2009), 200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 재생에너지는 2010년 이후 전력생산 부문에서 가스를 추월하여 석탄 다음으로 큰 공급원이 될 것으로 전망



〈그림 2-6〉 태양광 산업 매출 현황

□ 정보통신 기술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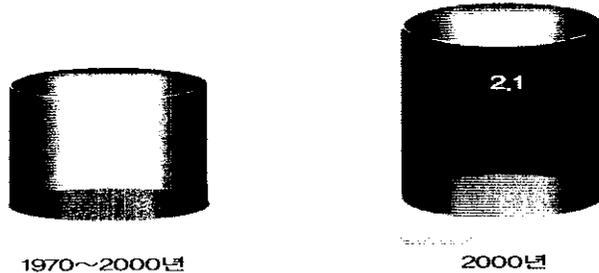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 기술융합은 세계화·민주화·경제성장·교육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미 전세계 인구 25%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등 정보통신기술 활용
- 인터넷은 수동적인 정보의 저장소(Web 1.0)에서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콘텐츠를 생산하는 시스템(Web 2.0)으로 진화
 - 섹न्द्र라이프(인터넷 기반의 가상세계), 위키피디아, 유튜브 등

〉글로벌 체제 강화에 따른 적극적인 경제정책 필요

1-3. 환경

□ 지구온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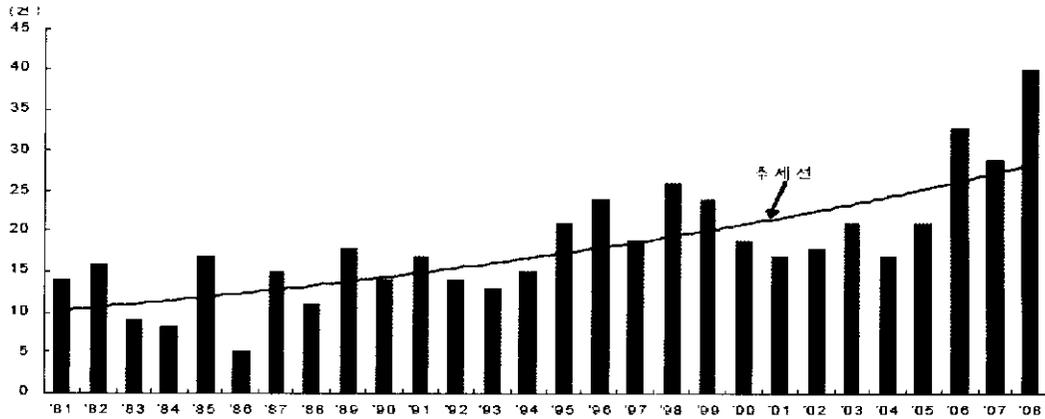
-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 배출이 주된 원인으로 폭염,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와 산림황폐화, 동식물 멸종 등 생태계 파괴를 가속화(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4년 기준 490억 톤으로 2020년에 530억톤에 이를 전망
 - 지구 평균기온이 1.5-2.5°C 상승할 경우 약 20-30% 동식물 멸종, 3.5°C 상승할 경우 40-5-% 멸종(IPCC, 2007; OECD, 2008)
 -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IPCC*(기후변화 정부간 패널)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구 기온도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
 - 지구온난화는 평균기온 상승으로 인해 빙하가 녹거나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홍수, 가뭄, 폭염 등과 같은 기상재해에 다른 피해가 점차 증가(녹색성장위원회, 2009)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약자
 - 연 평균 대기중 이산화탄소 증가량(ppm) : 1.5(1970-2000) → 2.1(2000~)



<그림 2-7> 연 평균 대기중 이산화탄소 증가량

□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증가

- 기후변화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증가로 기온이 상승한 것
- 글로벌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이변이 빈번히 발생
 - 지구 평균기온은 과거 100년간 상승했으며, 특히 1960년대 이후 급격히 상승
 - 세계 평균기온 상승폭(°C) : 0.14(1901-1960년) → 0.49(1961-2009)
 - 대형 기상이변의 연평균 발생 빈도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
 - 12.7건(1981-1990년) → 19.2건(1991-2000년) → 24.5건(2001-2008년)
 - 1966년과 1997년 라인강 홍수, 1995년 중국 홍수, 1998년과 2000년 동유럽 홍수, 2000년 모잠비크와 유럽 홍수, 2004년 방글라데시 우기홍수 등 전 지구적으로 집중호우와 폭풍우로 인한 홍수가 빈번(UNFCCC,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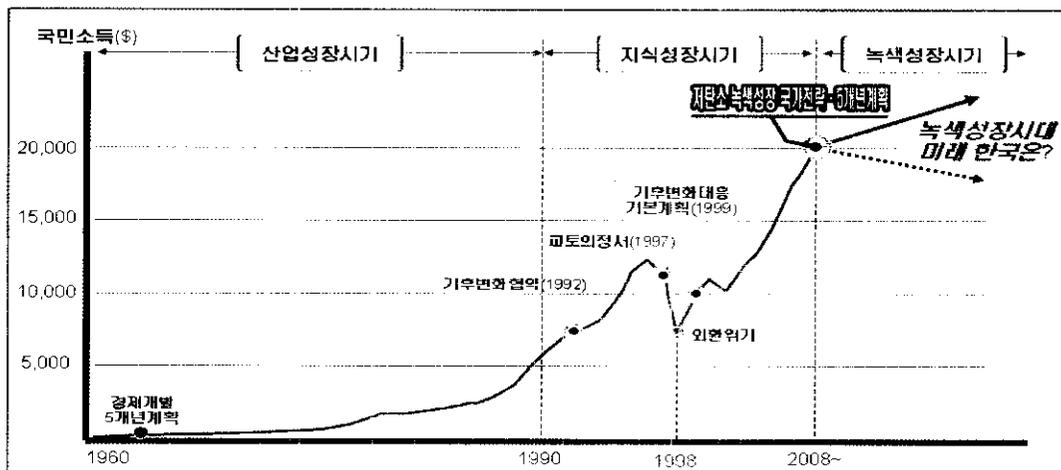
주 : 대형 기상이변(지진 및 화산폭발 포함)은 500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5억달러(2008년 기준)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

자료 : Munich Re(2009), Topics GEO : Natural Catastrophes 2008, 삼성경제연구소, (2011), 글로벌 식량위기시대의 新안보 전략, 연구보고서, 재인용

<그림 2-8> 전 세계 대형 기상이변의 발생빈도 추이

● 기후변화 대응촉진을 위하여 주요국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공포

- 영국 : 2050년까지 1990년대비 80% 감축
- 미국 : 2025년까지 배출량 증가억제(peak)를 목표로 설정
- 일본 : 2025년까지 현재수준 대비 60-80% 감축
- 중국 : 2010년까지 GDP당 에너지 소비량 20% 감축
- 멕시코 : 주요 산업부문 2007-2014년까지 1억 CO₂ 톤 감축 잠재량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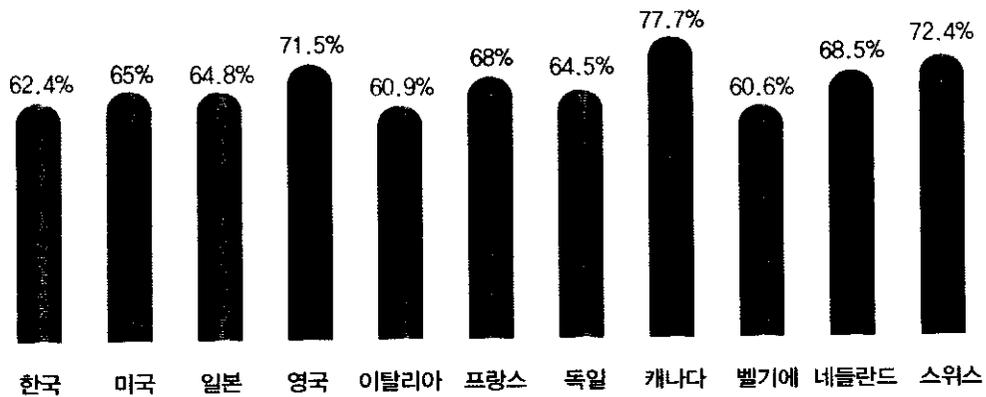


<그림 2-9> 저탄소 녹색성장 시기

- >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시대 도래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
- > 환경교육 및 기후변화 적응프로그램 개발 등 전방위적 대응 강구

□ 물 안보가치 증대(물은 21세기 New Gold)로 부상¹⁾

-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홍수의 극한 기상현상이 증가 및 생태계 전반의 심대한 변화가 발생
 - 아프리카, 중동, 인도 등 개발도상국가들의 급격한 수요증가로 인해 세계적인 물 부족이 심화될 전망
- 현재 전 세계 약 7억 명의 인구가 물 부족을 경험
 - 미국은 담수자원 감소 및 부족으로, 향후 5년 이내에 36개 주에서 물부족 현상이 발생할 전망
 - 중국은 전체 6백여개 도시중 4백개 이상의 도시가 수자원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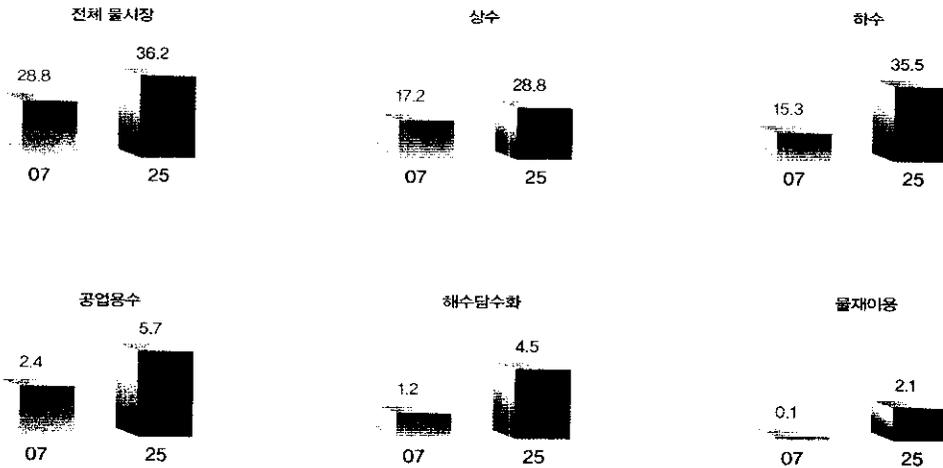
자료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2002(Keele Economics Research Paper)

<그림 2-10> 주요 국가별 물 빈곤지수(WPI)

-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홍수와 가뭄이 현실화
 - 2010년 파키스탄 홍수로 전 국토의 1/4침수, 2천만명 이재민 발생
 - 러시아는 기상관측이래 최대의 폭염과 극한 가뭄으로 곡물수출 중단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증가 및 수질오염으로 물 공급은 지속적 감소
 - 수자원 시설 미확충시 2010년에는 전세계 물수요의 60%만 충족가능 (Charting Our Water Future, 2009)

1) 물이 21세기 '새로운 금(New Gold)로 부상하면서 물을 잘 관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Foreign Policy, 2010. 5-6월호)

(단위 : 백억\$, GW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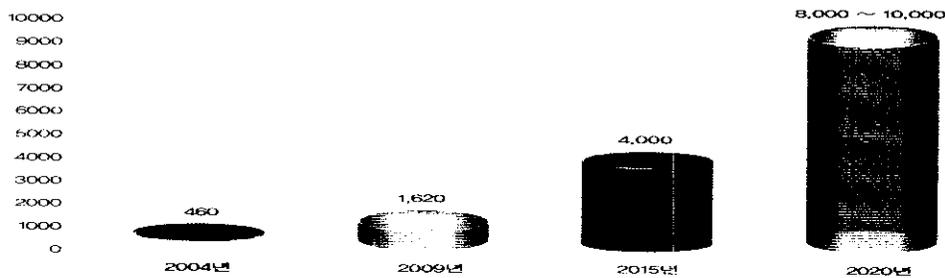
<그림 2-11> 세계의 물시장 현황

- 개발도상국은 약 80%의 질병이 물과 관련되어 있으며, 매년 180만명의 인구가 설사(diarrhea)로 인해 사망
 - OECD는 물·위생 분야에 대한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를 달성하기 위해 2015년까지 매년 1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

〉 물 산업화 부문의 부가적 잉여가치가 높은 기술 및 첨단 기술의 경쟁력 확보

□ 세계적인 녹색경쟁(Green Race) 추세

- 에너지 위기는 증가되는 글로벌 에너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에 따른 위기감의 고조
 - 세계인구 증가 및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에너지 소비 급격히 증가
 - 석유 40년, 가스 58년, 석탄은 130-200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측
-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 성장력을 배가시키는 녹색성장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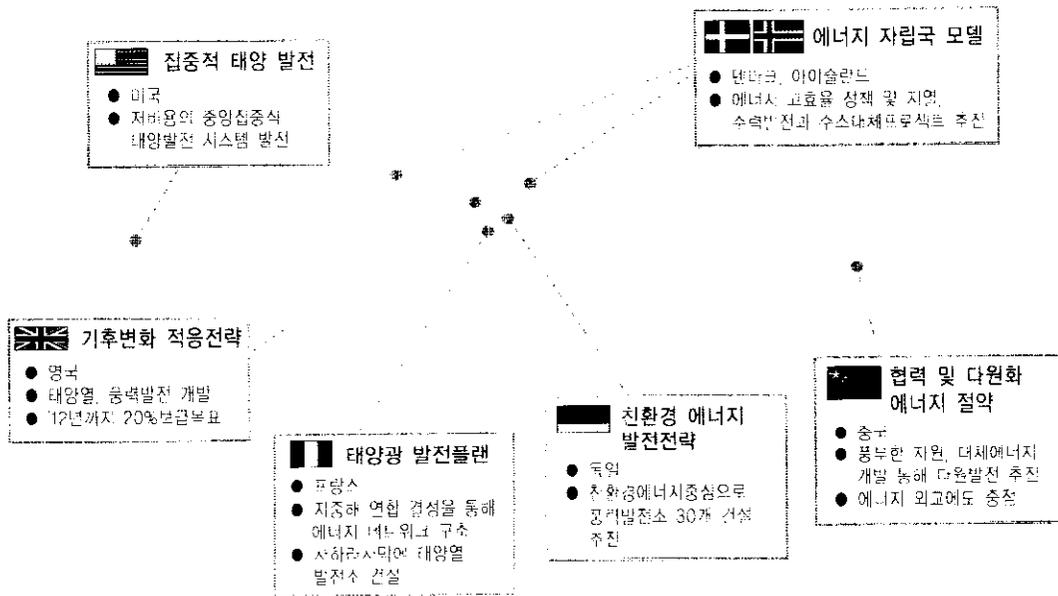
자료 : 녹색성장위원회, (2010),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그림 2-12> 신재생에너지 세계동향

□ **녹색 경제(녹색성장) 본격화**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 본격화

-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의 급격화와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평균 온도는 지속적 상승
- 지구 온난화는 기상재해,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이어지면서 인류 생존의 심각한 요인으로 대두
- 온실가스 배출 관련 국제적 규제 강화
 - UN을 중심으로 국제입법화 추세 : 리오 UN회의(1992), 교토의정서(1997, 2005), 발리로드맵(2007)
- 녹색산업 대두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산업 본격화
 - * 녹색산업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
 - 탄소배출권 시장 등 녹색산업 파생 분야 대두



자료 : 녹색성장위원회, (2009),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2013)」

<그림 2-13>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국 추진 전략

>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핵심요소

1-4. 농업

□ DDA-FTA의 확대로 농산물 시장 통합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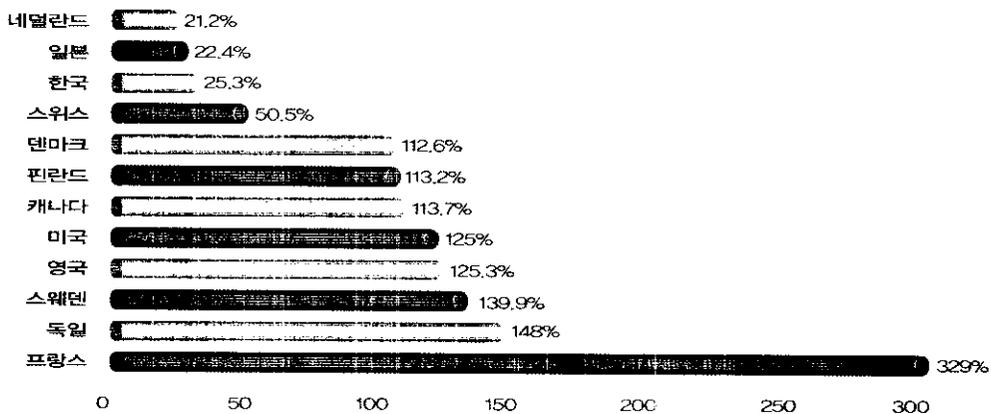
- 동아시아 경제권이 부상하고 지역내 농산물 교역구조의 새로운 재편 예상
- 세계경제의 대미 의존도 감소, BRICs 국가의 성장으로 다극화 추세
- 농림수산물식품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한 내수시장 확보
-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 농림수산물식품 개발 및 수출 확대

□ 세계식품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Clean	식품안전의 중요성
Convergence	농업과 ICT 융합
Convenience	편의성이 높은 가공식품
Country	지역사회의 활성화
Cluture	문화적 가치 창출 생활의 질 향상이 증가하면서 음식이 관광의 중요 역할

□ 식량자원의 부족 심화

- 온실가스의 증가, 오존층 파괴 등 기후변화로 인한 안정적 농업생산에 영향
 - 경작지의 축소와 식량자원의 부족 심화
- 가용수자원, 비료, 기계, 에너지 등 자연자원 및 사회자원의 지속적인 고갈은 필연적으로 식량부족을 초래
- 미국은 국가유전자원 프로그램을 통한 생물자원과 유전물질의 유지 및 종자은행을 통한 자원확보를 통하여 종자전쟁에 대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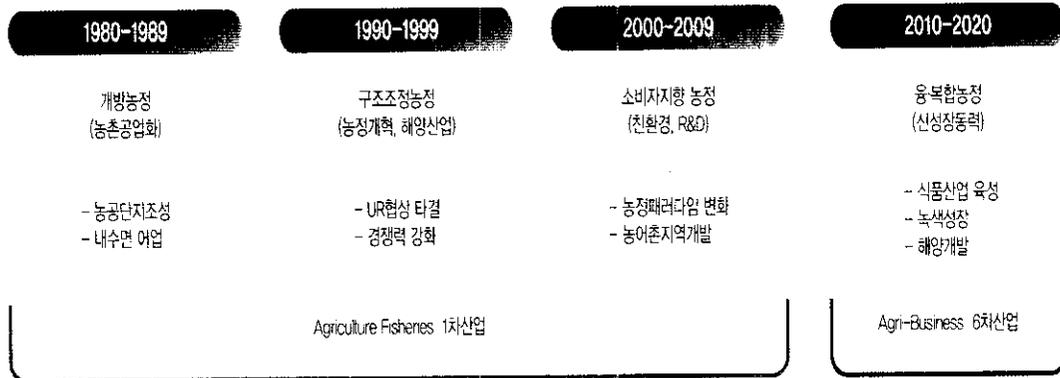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 2-14〉 주요국가별 곡물 자급률

□ **식품·서비스 등 영역 확대와 산업의 융복합화 가속**

- 식량부문 이외에 식품산업, 의약산업, 에너지산업 등으로 농수산물 활용 범위가 확대
- 농산물 규격화·브랜드화가 보편화되고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와 산지의 전문 가공유통법인의 계열화가 성숙되어 고부가치를 추구함



자료 : 대구경북연구원, (2010), 뉴 디자인 대구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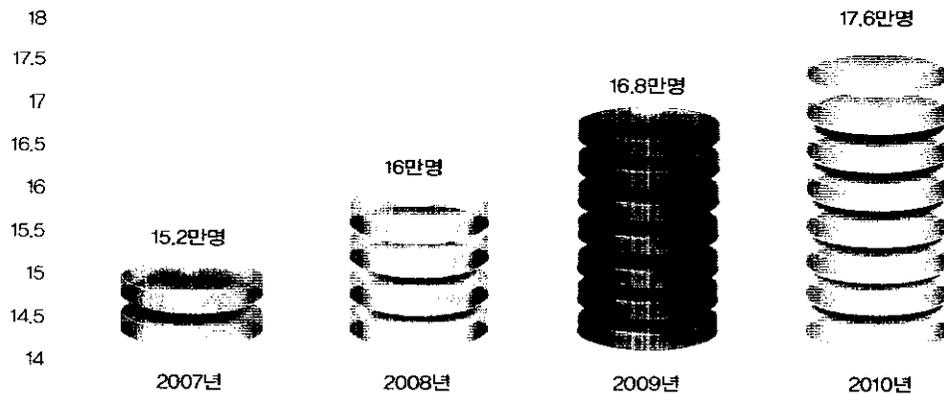
<그림 2-15> 농업의 융복합화

> 식품·서비스업과 농어업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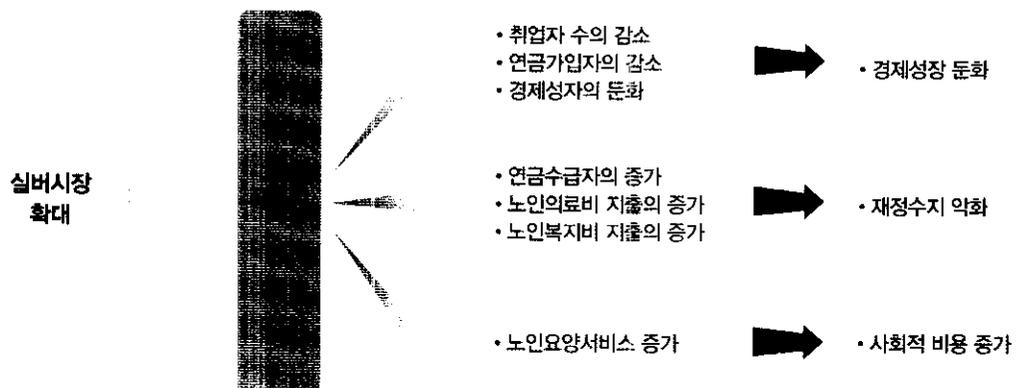
2

국내의 환경변화
2-1. 사회복지
□ 급격한 초고령화 진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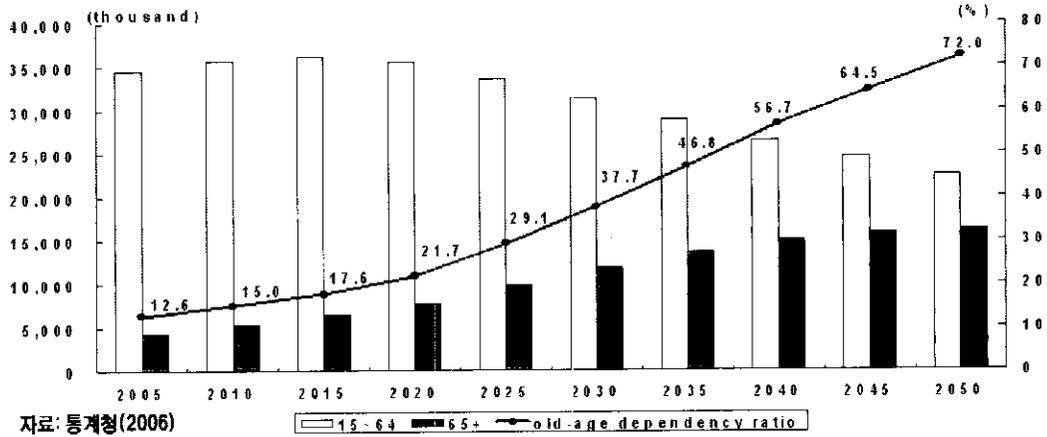
-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 2016년에는 노인 인구비율 14%가 되는 고령사회로, 그리고 2028년에는 20%로 초고령화 사회
 - 2005년 생산가능인구 7.9명당 노인 1명, 2020년 4.6명당 1명, 2050년 1.4명당 노인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
 - 요보호 독거노인(65세 이상 1인가구의 17.2%)



<그림 2-16> 요보호 독거노인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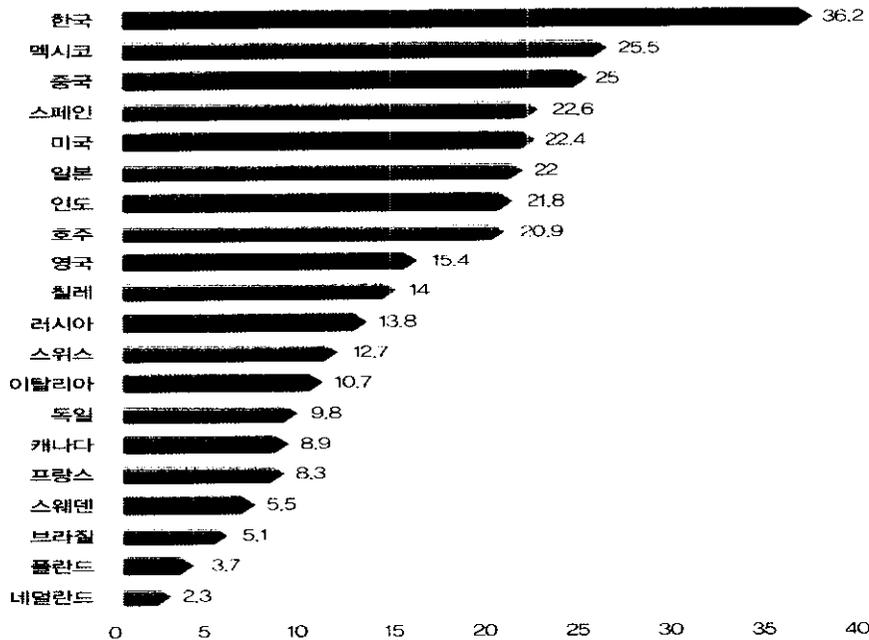


<그림 2-17> 인구고령화의 부작용



<그림 2-18> 향후 인구전망 : 2005-2050년

- 고령화의 문제는 700만명 이상으로 베이비붐 세대는 미래에 대해 준비하지 못하고 퇴직과 은퇴함으로써 사회적 이슈화
 - 한국 베이비붐 세대를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집단으로 전체인구의 14.6%가 해당됨
 - 2011년부터 주택시장뿐 아니라 내수시장 전체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청됨
 - 고령자의 61%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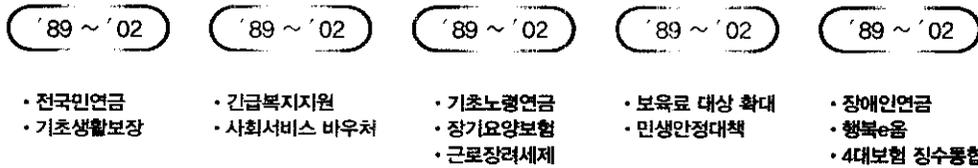


자료 : Jackson, R., Howe, N., & Nakashima, K. (2010), The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

<그림 2-19> 국가별 60세 이상 노인 반곤율(2007년 기준)

- 복지재정은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나 고령화 등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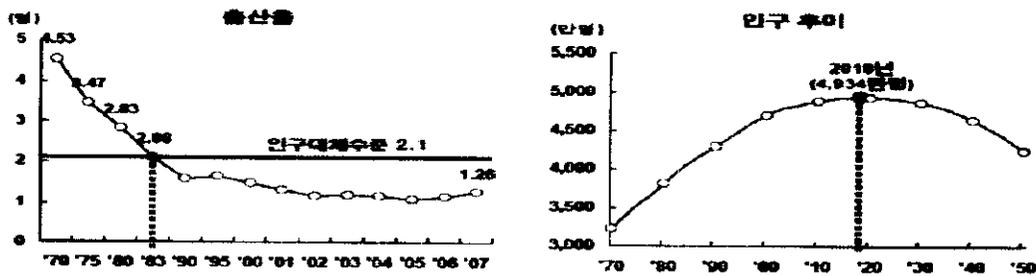
※ '07년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 8.1% > OECD 평균 21.1%



<그림 2-20> 복지제도 확대 추이

□ 고령화와 저출산 증가

- 노령화와 저출산 현상으로 지역내 자연마을이 소멸과 투자여력 취약으로 인한 기반시설 미확보 등으로 지역쇠퇴현상이 가속화
- 출산율이 '83년 2.1명 이하로 하락한 이래 저출산 현상 지속
 - 그 결과 총인구는 10년 후인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



* 출산율 :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자료 : 통계청, (2009),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그림 2-21> 우리나라의 저출산 추이 및 인구전망

<표 2-4> 출산통계 결과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출생아수(천명)	614.2	634.5	554.9	492.1	490.5	472.8	435.0	448.2	493.2	465.9	444.8
증감(천명)	-20.6	20.3	-79.6	-62.8	-1.6	-17.8	-37.7	13.1	45.0	-27.3	-21.0
증감률(%)	-3.2	3.3	-12.5	-11.3	-0.3	-3.6	-8.0	3.0	10.0	-5.5	-4.5
1일평균(명)	1,683	1,738	1,520	1,348	1,344	1,296	1,192	1,1228	1,361	1,276	1,219
조출생 (인구천명당 명)	13.0	13.3	11.6	10.2	10.2	9.8	8.9	9.2	10.0	9.4	9.0
합계출산율 (여성 1명당 명)	1.41	1.47	1.30	1.17	1.18	1.15	1.08	1.12	1.25	1.19	1.15

자료 : 통계청, 「2009년 출생통계 결과」

- 저출산의 원인은 보육서비스 등 육아와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미흡, 고용불안, 자녀 양육과 사교육비 및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
- 출산율 : 1.19명 2008년(OECD 평균 : 1.6명)
- 여성경제활동참여율 : 58.7% 2008년(G-7 평균 : 69.0%)

〉 총 인구 및 노동력 감소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

□ 신자유주의 경제 확산으로 다문화가정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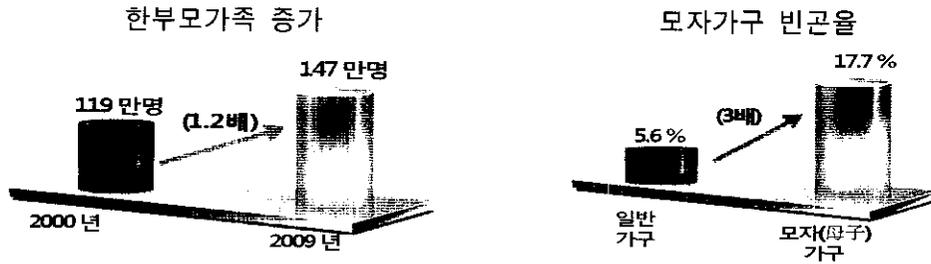
-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까지 국내체류 외국인 수가 2010년 현재 120만명을 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가족수는 31만명으로 다문화 시대에 진입함
 - 결혼이민자 수 : 13만명('06) → 20만명('08) → 47만명('15)으로 증가 전망
 - 2010년 1월 1일 현재, 만 18세 이하의 다문화(국제결혼)가정 자녀수는 98,531명으로서 해당 연령의 전체 추계인구 대비 0.93% 차지
 - ※ 외국인주민 자녀수(결혼이민자, 한국국적 취득자의 자녀수) 121,935명(1.14%)
 - 2009년 5월 현재 국내거주 결혼이민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61.4%, 베트남(18.4%), 필리핀(5.9%), 일본(3.2%)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2〉 다문화가정 증가추이

〉 다문화를 융합된 하나의 동질문화를 형성을 위한 다문화 정책 추진

- 가족형태의 다양화 및 한부모·조손가족 등은 취약계층으로 전락
 - 한부모 가족은 2000년 119만명에서 2009년 147만명으로 1.2배 증가
 - 모자가구 빈곤율은 일반가구 5.6%에 비해 모자가구는 17.7%로 3배이상 높음



<그림 2-23> 한부모가족 및 모자가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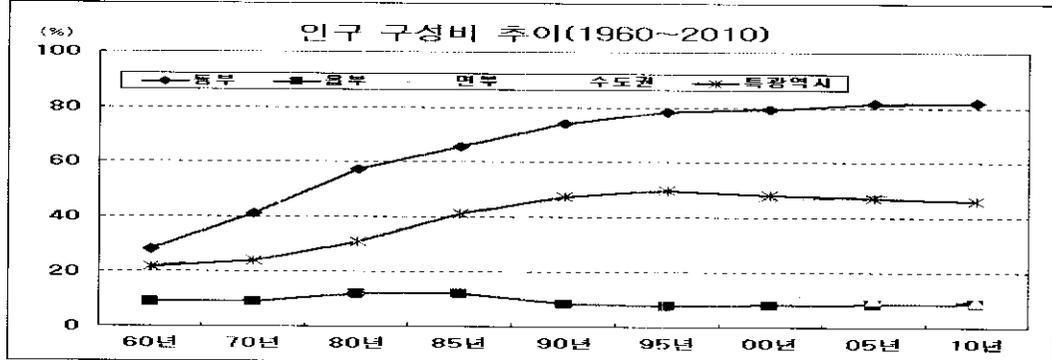
> 한부모, 조손가족의 자립지원을 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화 도모

2-2. 산업경제

□ 지역별 인구나 GRDP분포의 변화

-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도권에 인구나 산업의 집중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심화되는 추세다

- 수도권은 2000년 21,354천명 46.3% → 2005년 22,767명 48.2% → 2010년 23,616명 49.0%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잠정 집계 결과」

<그림 2-24> 인구 구성비 추이

2) 수도권 집중현황

구 분		전국	수도권	수도권 비중(%)
인구주택	면적(km)(2007)	99,720	11,745	11.8
	인구(천명)(2007)	49,269	23,963	48.6
	주택보급률(%) (2006)	107.1	96.9	-
지역경제	지역총생산액(10억원)(2005)	851,789	286,324	33.6
	제조업채(개소)2005)	117,205	67,079	57.2
	금융예금(10억원)(2006)	592,721	407,361	68.7
기능	4년제 대학 수(2006)	175	68	38.9
	공공기관 수(개소)(2003)	403	344	85.4
	의료기관(개소)(2005)	49,566	25,488	51.4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 (2008),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연차보고서」

- 서울시 유출인구를 흡수하는 경기·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계속 진행
- 지난 5년간 인구의 변동이 가장 컸던 시도는 경기(8.2%), 충남(6.4%), 전남(-5.6%)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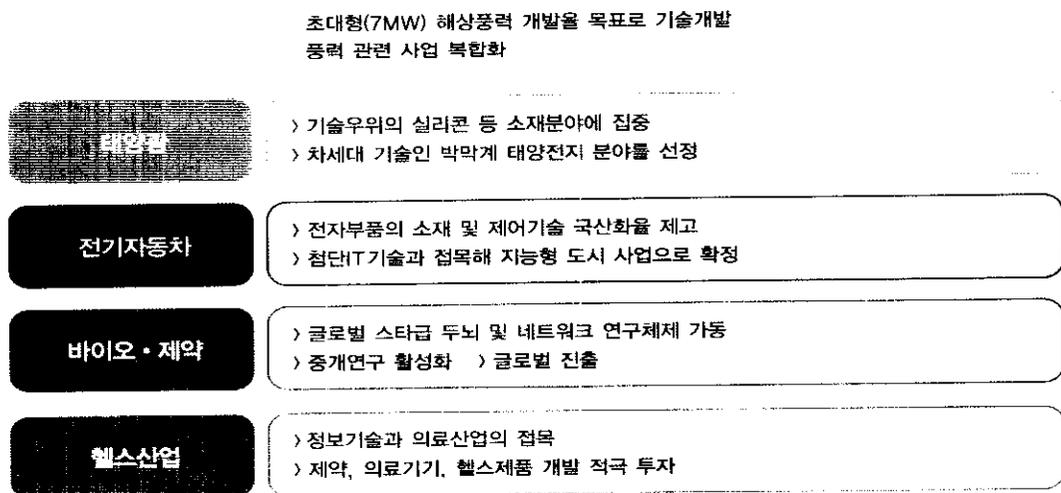
〈표 2-5〉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

증 가	감 소
경기(8.2%), 충남(6.4%), 인천(4.2%), 대전(3.6%), 광주(3.6%), 울산(3.1%), 경남(3.2%), 충북(3.0%)	전남(-5.6%), 부산(-3.4%), 전북(-1.7%), 서울(-1.1%), 경북(-0.9%), 대구(-0.8%), 제주(-0.7%), 강원(-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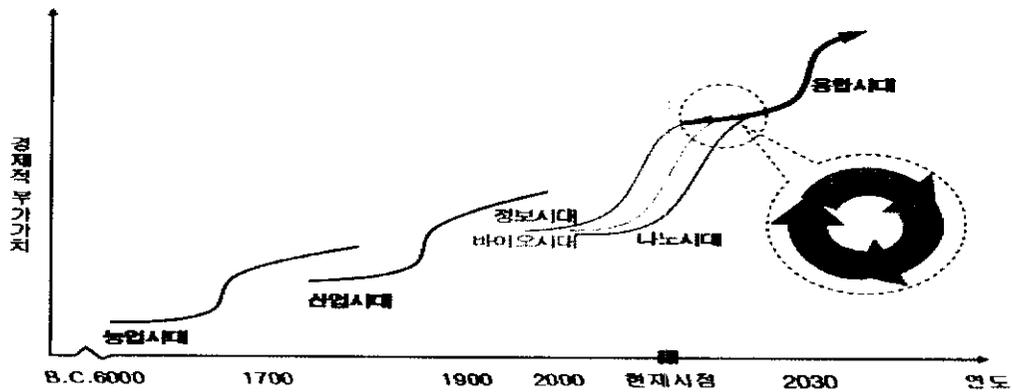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10), 2010 인구주택총조사 잠정 집계결과

□ BT, IT, GT, HT 등 미래신성장 산업의 거점 조성 및 지역내 연계를 높이기 위해서 고품격 지역기반 조성요구 증대

- 신성장 산업의 지역적 뿌리내림과 연계(linkage)를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및 높은 수준의 지역기반 조성 필요
 - 신성장산업과 지역산업 간의 융복합을 통해 시너지 창출과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모색
 - 신성장산업에 종사하는 우수인력의 지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 의료, 문화 등 고품격의 지역생활기반 창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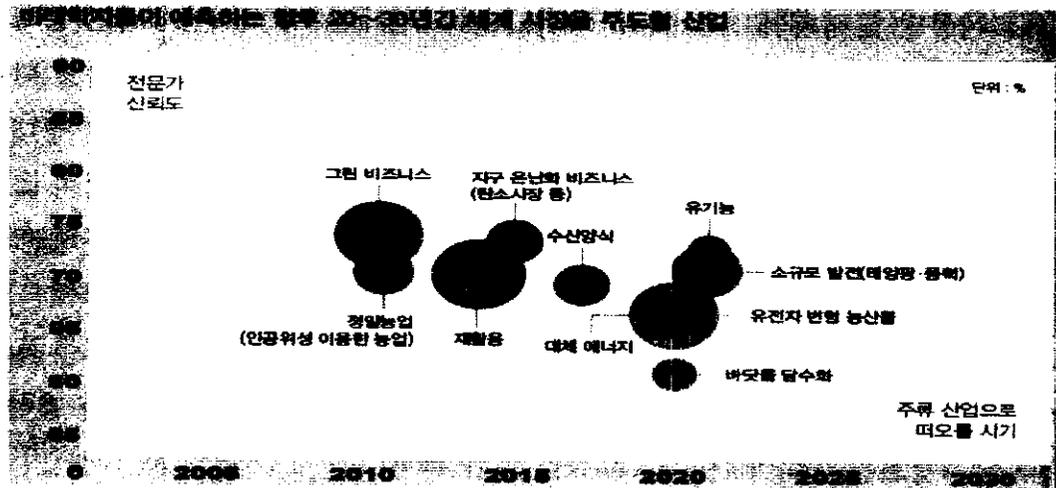


〈그림 2-25〉 미래신성장 산업의 거점 조성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9)

<그림 2-26> 과학기술패러다임의 변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08)

<그림 2-27> 향후 20-30년간 세계시장을 주도할 산업

□ FTA 체결과 글로벌화

- WTO의 출범에 따라 무역자유화를 전면화 하고, 1999년말부터 칠레와 자유 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함
 - 한·EU FTA 타결(2010.9), 한·페루 FTA 타결(2010.8), 한·미 FTA발효 가능성 등으로 FTA 체결시대에서 FTA활용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홍보와 교육, 지원활동을 통해 FTA 활용도 제고
 - 칠레, 싱가포르, EFTA 및 ASEAN 지역과의 교육량 증가율은 FTA발효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년 한국전체 교육량 증가율을 크게 상회함(삼성경제연구소, 2010)

-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 육성 사업을 광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초광역 차원에서 추진
- 수도권외에 충청권, 대구·경북권, 동남권, 서남권 등 5대 초광역 경제권을 육성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국내경제 성장 둔화**

- 2010년 중 전년대비 5.8% 성장이 예상되는 국내경제는 2011년 중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3.9% 성장에 그칠 전망이지만, 2012년 4.2%, 2013년 4.4%, 2014년 3.8%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³⁾
- 국내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미국의 경기 하강, 남유럽의 재정위기 재현, 중국의 긴축정책 강화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증대**

- 충청광역경제권, 내륙첨단산업벨트 등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 단일 지자체의 공간범역을 넘어서서 지역간 연계·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증대될 전망
 - 광역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가 2010년 약540억원에서 2011년에는 약943억원(잠정)으로 증가하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대될 전망
- 지역간 연계·협력 촉진을 통해 도내 지역간 발전격차 완화와 잠재력 확대를 위한 소프트·하드 기반시설 마련에 투자 확대
 - 도내 지역간 및 광역-지자체간 협력사업 발굴·추진

> 지역별 비교우위와 산업적 특성에 따른 역동적 발전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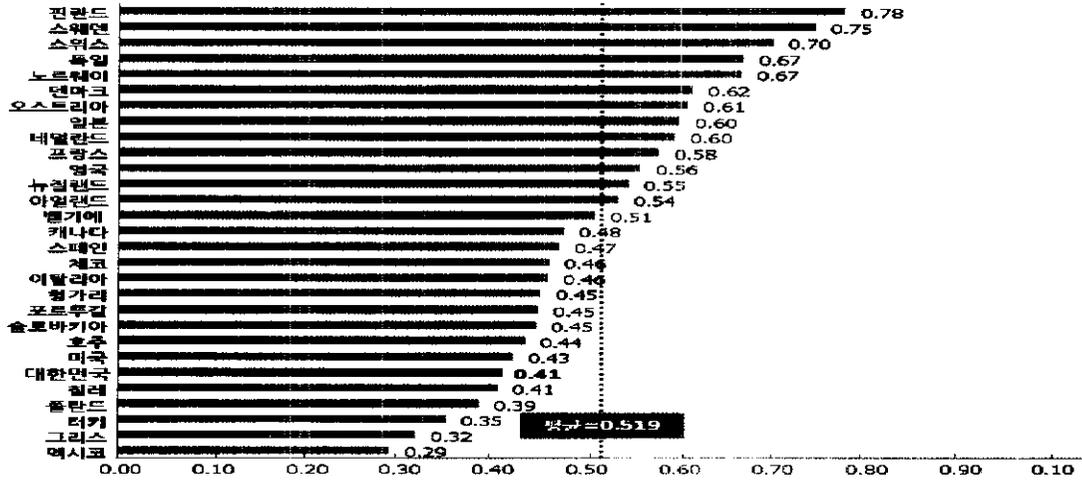
2-3. 환경

□ **환경의 질에 대한 중요성 인식 증대**

- 녹색생활은 가정, 상업, 수송 등 각 생활단계별로 친환경 소비습관을 지속적으로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생활패턴
 - 녹색생활의 확산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기업의 녹색제품 개발 및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녹색산업 육성에 기여
- 한국의 녹색생활역량은 OECD 29개국 중 24위로 하위수준

3) 국회예산정책처, 2010~2014년 경제 및 재정 전망, 2010.

- 한국의 녹색생활역량지수는 0.41로 OECD 평균인 0.52보다 낮은 편이며, OECD 29개 국가 중 핀란드가 0.780으로 1위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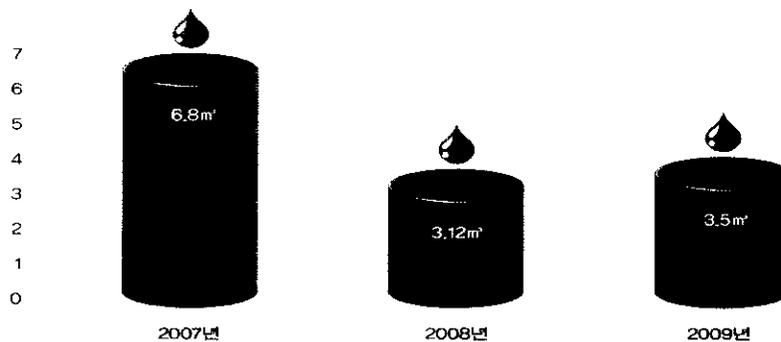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2010), 녹색생활혁명 : 기후변화 대응의 新해법

〈그림 2-28〉 녹색생활역량 국가순위

□ 수자원 확보의 불확실성 증대

- 생활수준 향상 및 도시화로 인한 물 수요량의 지속적 증가
 - OECD 평균보다 다소 낮은 취수량을 보이며, 전체 수자원에서 맑은 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1인당 하루 물 소비량은 한국인은 약 3.12m³이며, 미국인은 6.8m³, 세계평균은 3.5m³



〈그림 2-29〉 1인당 하루 물 소비량

- 기후변화의 진전에 따른 기상이변 증가
 - 가뭄 및 홍수에 의한 재난 및 인명 피해가 증가
 - 강우의 여름철 집중으로 수자원의 시간적 분배를 통한 물 공급 정책의 어려움 가중

□ 지구온난화와 에너지환경 변화

-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빈번한 자연재해, 황사현상의 심화 및 오존층 파괴 등 환경문제가 관심사로 대두
 - 국제환경 협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토정책 및 교통정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표 2-6> 지구 온난화 현상

구분	과거 (1971-2000)	과거 (1971-2000)	과거 (1971-2000)
연평균 기온	12.5℃	16.1℃	3.6℃ ↑
연평균 강수량	1,230mm	1,398mm	14.0% ↑

- 화석연료 등 자원공급의 한계에 봉착하여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가격이 급등할 전망으로, 에너지·자원의 수요관리 및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개발과 함께 자원절약형 국토개발, 녹색교통에 대한 관심이 지속 증가 예상

>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응
 >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확보 및 관리 필요

2-4. 농업

□ FTA 체결이 증가함에 따른 농업의 대응

- 국가간 FTA 체결로 전세계 농산물 무역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농업정책도 신속하게 대응함
- 한국은 2010년 현재 칠레, 싱가포르, 인도 ASEAN 등 16개국과 FTA가 발효되었고,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13개국과 진행중임
- 2009년 농가인구는 3,117천명으로 1970년대 14,422천명보다 11,304천명(-78.4% 감소)
 - 전국인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44.7%에서 2009년 6.4%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농가 가구당 가구원수는 1970년 5.8명에서 2009년 2.6명으로 감소하는 추세

<표 2-7> 농가인구

연도	전국인구 (천명)	농가인구 (천명)	농가인구 (천명)	성별		비중 (%) (농가 인구/전국 인구)	농가가구당 가구원수 (명)
				남자	여자		
1970	31,343	2,483	14,422	7,119	7,303	44.7	5.8
1980	38,134	2,198	10,817	5,915	4,902	31.4	4.5
1990	42,989	1,787	8,661	4,759	3,902	20.2	3.8
2000	47,008	1,383	4,051	1,971	2,080	8.6	3.3
2009	48,747	1,195	3,117	1,510	1,607	6.4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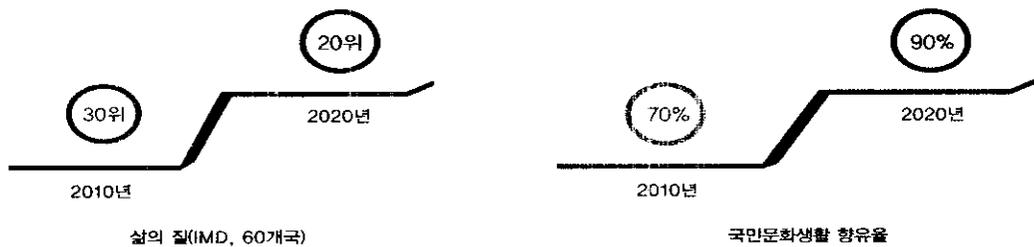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농업조사」, 2010. 12. 21, 주간 제335호, 재인용

- >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필요
- > 새로운 기후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품종개발 및 변화된 환경에 대비한 새로운 농작물 지도의 제작이 필요

2-5. 문화관광

□ 소득 증대와 고령화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욕구 확대

- 여가활동이 단순한 소비활동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지역경제에 활기를 부여하는 생산활동으로 전환
 - 여가가치를 추구하는 신유목민시대가 도래하여 유목민의 사상, 가치 및 욕구가 사회를 지배하여 세계를 무대로 한 문화교류·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 소득 증대와 고령화에 따라 보다 질 높은 삶을 추구하고, 그를 위해 문화예술 수요가 급증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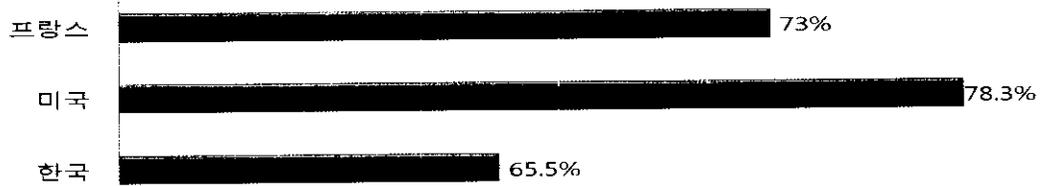


〈그림 2-30〉 삶의 질과 국민문화생활 향유율

- > 향후 확대되는 삶의 질 개선 욕구에 맞춰 선제적으로 창의적인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예술을 향유할 지역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와 지역에서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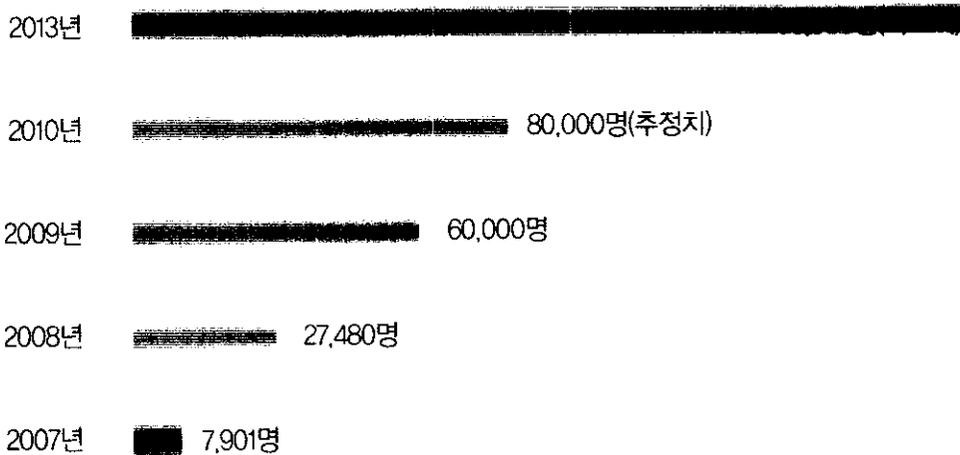
- 정부는 2009년 1월 「신성장 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발표에서 3대 분야 17개 성장 동력을 선정한 바 있는데, 이 중 MICE와 관광을 선정하여 지원을 강화함
- 관광분야는 국내 관광산업의 고비용 구조 해소, 고급화·다양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음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고용 중 서비스업의 비중이 65.5%로 미국(78.3%)이나 프랑스(73.0%)보다 절대적으로 낮음



<그림 2-31> 전체 고용 중 서비스업의 비중

□ **관광은 복융합산업으로서 산업의 영역 파괴 진행**

- 관광은 고유한 영역을 가진 산업이 아니라 영역파괴가 일어나고 있으며, 복융합 산업뿐만 아니라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관광수요 다양화와 형태 다변화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산업간 융·복합화를 지향하는 Tourism Technology(T2)의 적용으로 다양한 관광 상품 출현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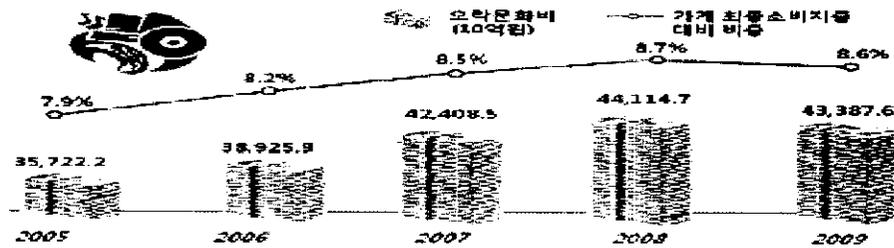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 (2010)

<그림 2-32> 외국인 환자유치 추이

● 보건의료, 휴양, 레저, 요양, 스포츠, 문화활동과 관광서비스가 융·복합된 관광형태의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 **관광산업 트렌드의 변화 가속과 관광의 변화 요구**

- 지역의 관광산업은 국내외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의 변화와 관련 정책에 의하여 영향



주: 1) 여가와 관련된 소비적출 항목을 오락문화비로 간주하여 계산
 2) 2009년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오락문화비가 하락
 자료: 통계청, KOSIS.

" 통계청(2004, 2009), 『사회통계조사결과(문화와 여가부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여가백서』.

<그림 2-33> 오락문화비의 증가추이

- 고령화의 가속화, 가족구조의 변화,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등에 따라 관광시장의 다변화 예상

▶ 웰빙·웰니스 등에 대한 관심과 미용·치유 등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이를 토대로 한 다양한 관광시설 및 체험관광 상품의 개발

2-6. 행·재정

□ 국가재정의 건정성 조기회복을 위한 예산운용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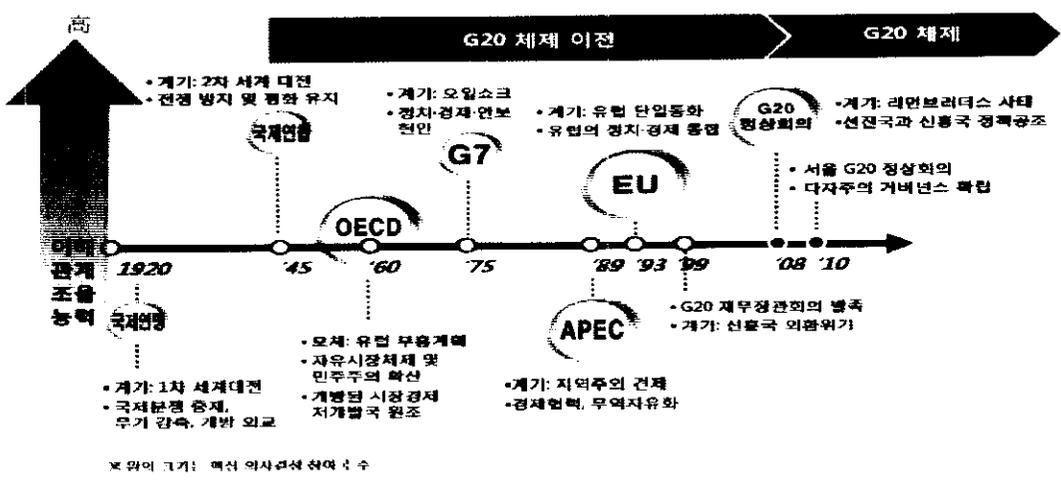
- 2011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총지출 309.6조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7% 수준으로 확대된 지출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총수입 증가율 8.2% 보다 낮은 수준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할 계획으로 경제위기 과정에서 훼손된 재정건정성을 조기에 회복하려함
- 지방재정자립도는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군·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음

<표 2-8> 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

연도	신규민공 (총계규모)	특별시 광역시 (총계규모)	도 특별자치도 (총계규모)	시 (총계규모)	군 (총계규모)	자치구 (총계규모)
2005	56.2	80.3	36.6	40.6	16.5	44.3
2006	54.4	78.5	36.1	39.4	16.1	40.5
2007	53.6	73.9	34.9	39.5	16.6	37.5
2008	53.9	71.8	34.8	40.7	17.2	37.1
2009	53.6	72.7	33.3	40.7	17.8	37.3

자료 : 행정안전부, 각년도, 한국지방재정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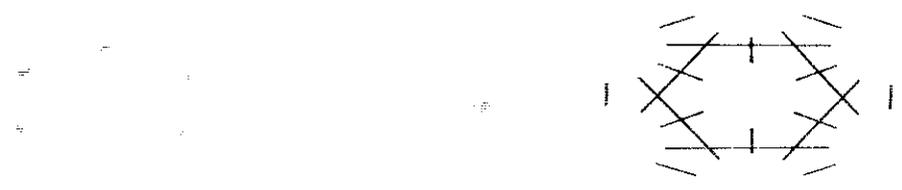
- 다자간 거버넌스인 G20 체제가 공고화
 - 선진국과 신흥국 간 실질적인 정책공조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G20체제의 지속가능성을 확인
 - 국제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제거, 교역 활성화 및 균형성장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협력을 위한 저변 확대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2010), G20 정상회의의 성과와 향후과제

<그림 2-34> 국제협력체제의 진화과정에서 G20체제의 위상

- 사회변화 트렌드는 소통하는 조직
 - 급격한 정보화와 네트워크화로 정보비대칭이 약화되면서 권력분산과 이동이 초래되는 권력이동
 -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큰 위험이 상존하는 고위험 사회⁴⁾(super risk society)가 도래
 - 디지털경제의 진전으로 네트워크가 확산되고 분야 간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경계과과 현상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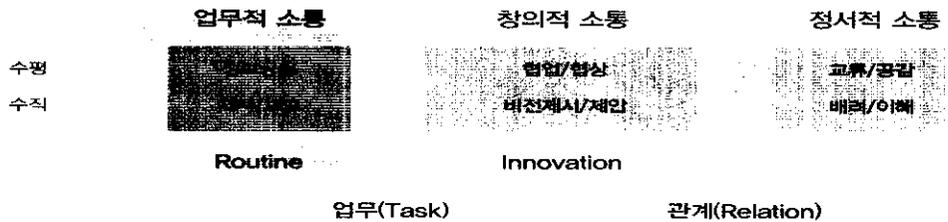


<그림 2-35>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

4) 고위험 사회란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환경재해 등 국적을 초월한 대응이 필요한 위험요소로 대두되는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현상들을 지칭하는 표현

□ 소통의 양과 질 혁신을 통해 소통활성화 도모

- 소통은 조직의 특수한 맥락 속에서 메시지에 담긴 의미이며 동일한 지향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 소통은 그 방향(수평과 수직)과 내용(업무와 관계)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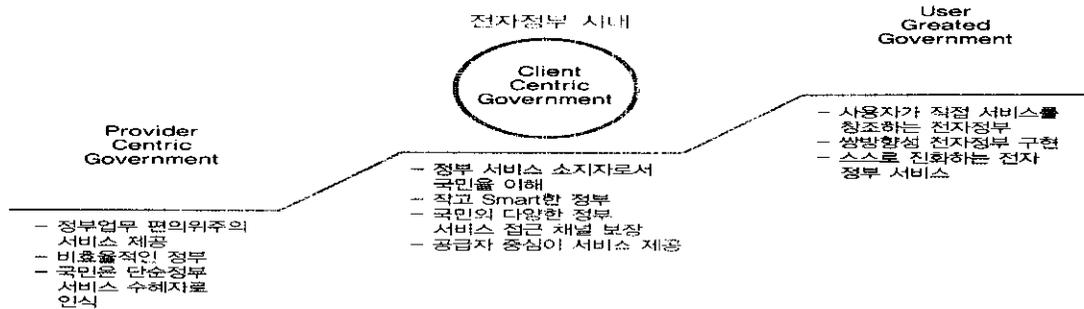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2010), SERI 전망 2011

<그림 2-36> 소통의 3대 영역

- 업무적 소통은 일상적 업무에서 최상의 성과를 구현하기 위한 소통
- 창의적 소통은 비전 제시나 제안을 통해 조직의 창조적 성과를 달성하는 영역
- 정서적 소통은 조직구성원 간의 관계에서 배려와 공감을 통해 관계의 질을 강화하는 소통

□ 사회적 가치 창출과 서비스 창조자로서의 U-Government

- 사용자가 직접 서비스를 창조하는 차세대 전자정부로서의 U-Government 단계에서는 국민을 전자정부 서비스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서비스를 창조자로 이해



자료 : 왕기홍, (2007), "서비스 사용자에게 의해 창조되는 차세대 전자정부 : UCG(User Created Government)", 「전자정부포커스」, 제7호, 한국행정연구원

<그림 2-37> 차세대 전자정부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 참여민주주의의 질적 변화에 대응한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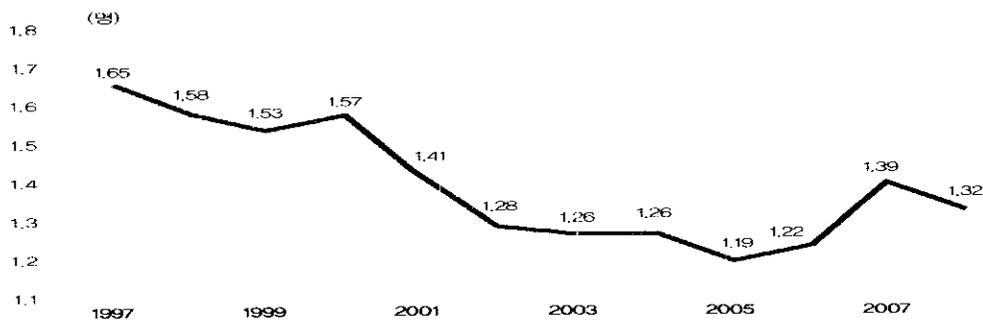
지역여건 분석 및 여론조사

3-1. 지역여건 분석

1) 사회복지

□ 저출산에 따른 아동인구 감소와 아동보육 서비스 욕구 증가

- 충북 출생아수 1997년 21,011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 추세이며, 0~19세 미만 인구비율도 급감하여 출산을 제고가 과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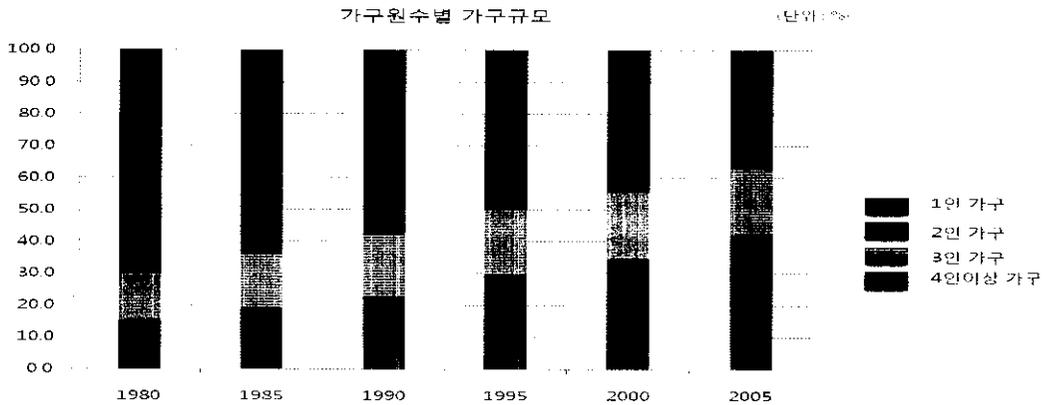
〈그림 2-38〉 충북의 저출산율

- 영유아보육 질 제고 및 아동 무상급식 확대 등 보편적 아동복지욕구 증가
 - 충북의 0-6세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율은 42.5%이며 전체 보육시설이용아동 (42,557명) 중 72.9%가 정부의 보육료지원을 받고 있음
 - 충북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64.1%로 타시도와 비교 낮은 편이며 보육교사 인건비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으나 지원이 부진함

〉 적극적인 출산, 육아지원의 확충과 남녀 모두에게 일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양립지원정책을 강화

□ 가족의 복지능 약화로 생애지속적 복지욕구 강화와 이동에 대한 사회투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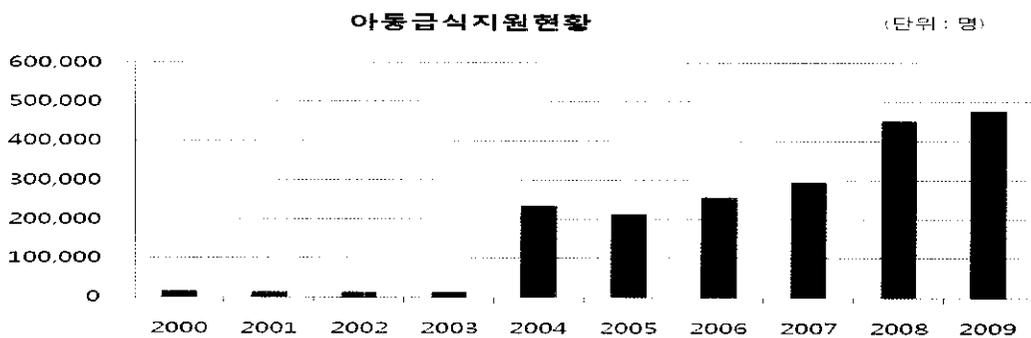
- 세대당 가구원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가족기능약화
 - 충북 1가구당 가구원 수: ('06) 2.7명→('10) 2.5명



<그림 2-39> 가구원수별 가구규모

- 이혼율의 증가로 전국 한부모가구 비율은 8.6%(2009년)⁵⁾로 한부모가족과 1·3세대 가구인 조손가족이 증가하여 가족의 전통적인 복지기능이 저하, 야간방임 아동의 보호문제 심각
 - 충북도내 사별과 이혼율 : ('00) 15.1% → ('07)17.7%
 - 조손가구 : ('05) 2,661명 → ('10) 1,768명
 - 충북의 한부모 가정 : ('10) 3,588세대로 1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비율이 70.4%
 - 급식아동비율 증가 : ('00) 15,112명 → ('04) 235,202명 → ('09) 476,444명⁶⁾

> 가족해체 혹은 신개념 가구의 등장으로 소형주택의 공급



<그림 2-40> 아동급식지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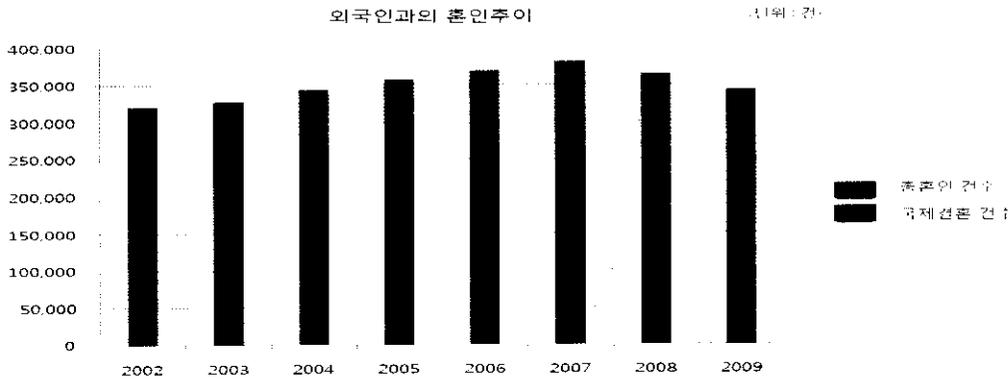
- 학대피해아동수 ('05)5,685명 → ('09)9,039명
- 방임아동수 ('05)2,416명 → ('09) 2,939명

5) 보건복지부, (2010), 보건복지백서

6) 보건복지부, (2010), 보건복지백서

□ 결혼이주가정 육구의 증가

- 결혼이주여성 유입으로 전국적인 인구의 혼성성 증가



〈그림 2-41〉 외국인과의 혼인추이

- 충북 다문화가족은 2010년 현재 총 5,664명으로 전국 181,671명의 3%이며, 여성은 5,364명이고 남성은 300명으로 95%이며, 다문화가정의 자녀수는 2006년 1,675명에서 2010년 4,647명으로 177.4% 증가함

〈표 2-9〉 충청북도 다문화가정 현황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가정수	자녀수								
총계	1,536	1,675	3,358	2,307	3,939	2,584	4,927	3,715	5,664	4,647

자료 : 충청북도, (2010), 내부자료

> 사회양극화에 따라 발생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하여 다문화 공생정책을 시행

□ 도내 인구는 증가 추세, 노령화 현상 심화

- 충북 인구는 2000년 1,467천명(3.2%) → 2005년 1,460천명(3.1%) → 2010년 1,504천명(3.1%)으로 2010년은 2000년과 비교하여 2.54%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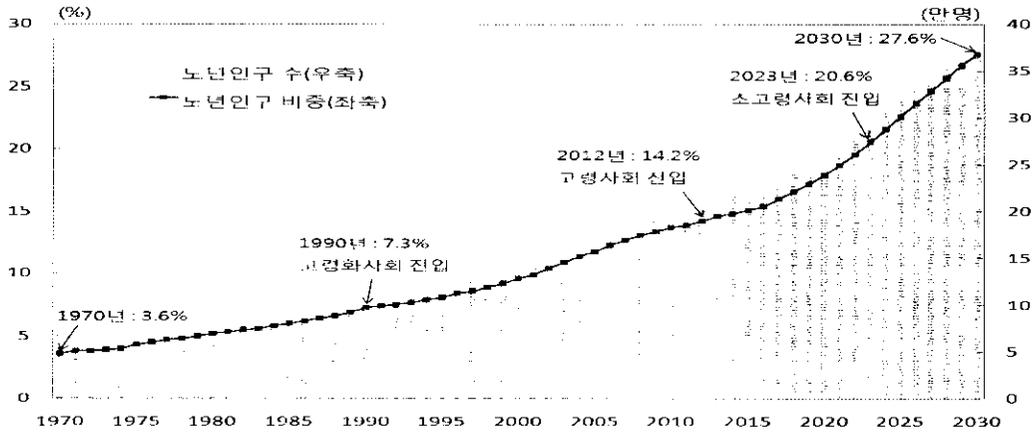
〈표 2-10〉 충북인구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2000년 (A)		2005년 (B)		2010년 (C)		증감 (C-B)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증감비
전국	46,136	100.0	47,279	100.0	48,219	100.0	940	2.0
수도권	21,354	46.3	22,767	48.2	23,616	49.0	850	3.7
충북	1,467	3.2	1,460	3.1	1,504	3.1	44	3.0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잠정 집계 결과

- 2008년 현재 충북지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2.7%로 2020년 이후에는 인구 고령화가 한층 가속화되어 2023년쯤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전국 평균은 2026년)



<그림 2-42> 충북지역 고령화 진행 추이

- 출생아수 또한 1997년 21,011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 추세
- 노령화지수와 노년부양비는 고령화 진행속도가 빨라지면서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
 - 노령화지수 : 2008년 72.3% → 2020년 151.0% → 2030년 264.5%
 - 노년부양비 : 2008년 18.2% → 2020년 25.4% → 2030년 44.6%

> 사회전반을 고령친화적인 사회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관심요구
 > 노인들의 건강과 외로움에 대한 보건·복지정책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정책 필요

□ 의료인력 약화

- 2009년도 의사(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포함) 1명이 담당하여야 할 인구 (의료보장인구/의사수)는 평균 639명
 - 치과 의사 1명이 3,412명, 한의사 1명이 3,321명, 약사 1명이 1,650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표 2-11> 주요 보건의료인력 1인이 담당하는 인구

(단위 : 명)

구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
전국	639	2,479	3,251	3,321
충북	755	3,412	3,321	1,650

자료 : 국민건강보험, (2010), 2009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 2009년 요양기관 1개 기관이 담당하여야 할 인구(의료보장인구/요양기관수)는 전국적으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포함) 158,646명, 병원(치과, 한방병원 포함) 21,077명, 의원(치과, 한의원 포함) 948명, 약국 2,393명으로 나타남
- 요양기관 1개소가 담당하여야 할 인원은 충북은 643,626명, 종합병원은 150,120명, 병원 22,406명, 의원 1,096명, 약국은 2,429명, 기타 1,689명으로 상대적으로 담당해야 할 인원이 많음

〈표 2-12〉 요양기관 1개소당 의료보장 인원(시도별)

(단위 : 명)

구분	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국	기타
전국	626	158,646	21,077	948	2,393	2,051
충북	643,626	150,120	22,406	1,096	2,429	1,6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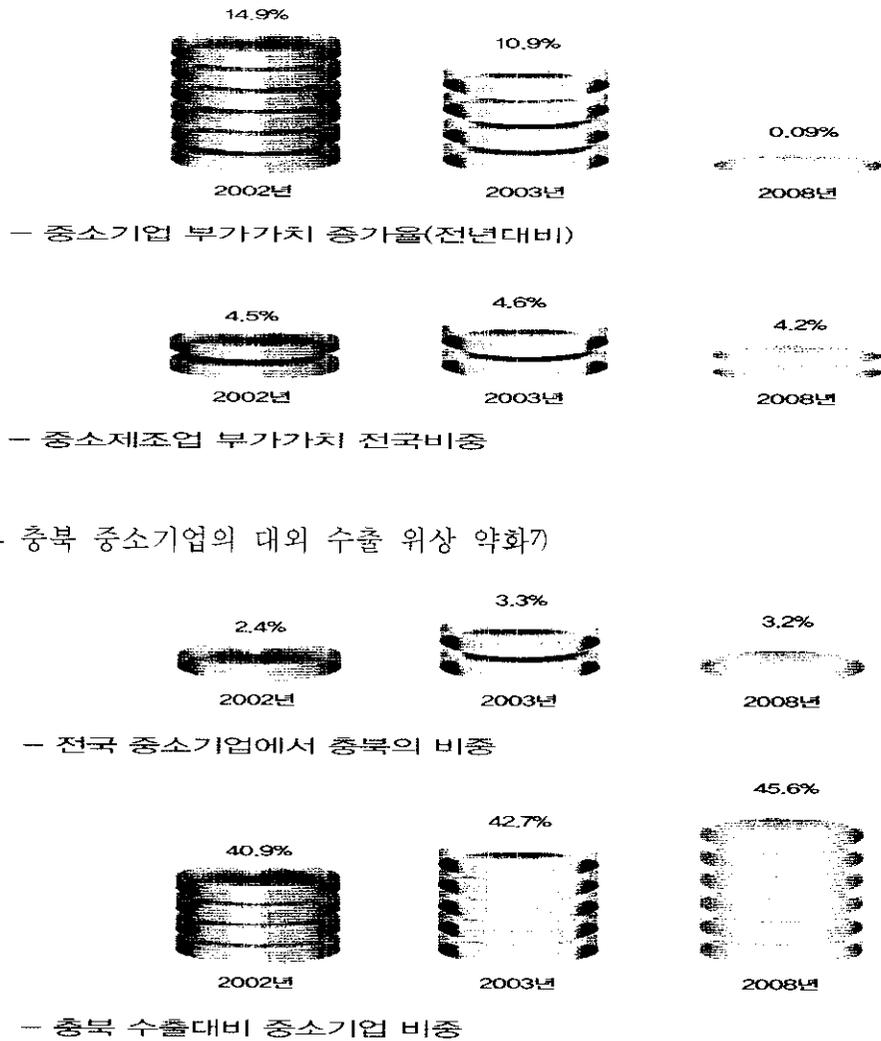
주)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병원(요양, 치과, 한방포함), 의원(치과, 한의원 포함), 기타는 보건기관, 조산원

자료 : 국민건강보험, (2010), 2009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2) 산업경제

□ 지역내 전통산업의 경쟁력 확보

- 충북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SMEs : Small and Medium Enterprises)의 국제 경쟁력 미흡
- 도내 제조업체 수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중소기업의 정체에 비해 대기업의 증가 추세 지속
 - 도내 제조업체 수는 2008년 8,801개 사업체로 2000년 4,300개 사업체 대비 204.6% 성장
 -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2003년 97,444개 사업체에서 2008년 101,775개 사업체로 4.4%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2003년 62개 사업체에서 86개 사업체로 38.7% 증가해 대기업의 증가추세를 나타냄
 - 중소기업의 생산성 둔화 및 전국 대비 위상 약화



〈그림 2-43〉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수출둔화)

□ GRDP 비중

- 2009년 충북의 지역내총생산(명목)은 31.7조원 규모이며, 전국의 3.0%를 차지함

〈표 2-13〉 충청북도 지역총내생산 추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국					
GRDP(10억원)	912,926	983.0	1,028,500	1,066,084	-
GRDP(10억원)	27,997	300,007	30,105	31,683	35,000
충북					
GRDP전국비중	3.1	3.1	2.9	3.0	-
1인당 GRDP(백만원)	18.86	20.22	20.31	21.40	-

주) 충청북도 2010 GRDP는 잠정적인 추계치임

자료: 통계청, 「2009년 지역소득」

7) 통계청, (2011), 시도별 수출

8) 통계청, (2011), 지역별 부가가치

□ 신성장동력산업 기반 확보 시급

- 충북의 4대 신성장동력산업의 세부 포지셔닝(positioning) 및 지역별 특성화 전략 검토 필요

4대 신성장동력산업	세부 포지셔닝	지역
------------	---------	----

<그림 2-44> 충북의 4대 신성장동력산업

> 4대전략산업의 향후 추진 방향성 재정립
 - 세부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포지셔닝 및 기술(TRM : Technology Road Map) 및 지역산업 로드맵(RIRM : Regional Industrial Road Map) 구현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지역별 분야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시급
 - 지역별 유희인적자원(여성, 중장년층, 노인층, 해외이주민, 장애인 등)의 활용방안 모색 필요
 - 지역 고유의 자원(identity)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 방안 고려

> 지역별 특산물, 지역의 관광자원 등과 연계된 지역 특화산업 창출 방안 고려

3) 환경

□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 '90년 이후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 가량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와 사회구조에 기인한 결과임
- 교통체계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도로교통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녹색교통수단인 대중·대량교통수단 이용은 저조한 실정임

□ 충북의 저탄소 생태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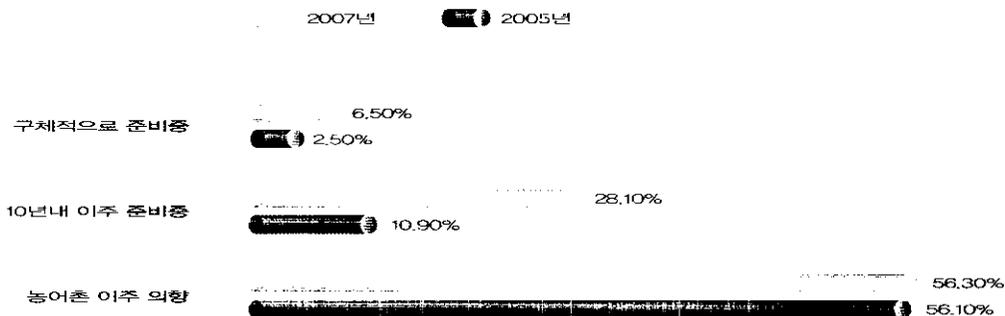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변화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
 - 민선 5기의 출범, 국내외 정책 패러다임 변화, 도민들의 정책수요 조사·분석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저탄소 녹색성장 도정목표 설정 필요
 - 기후변화 교육을 활성화 하고, 백두대간을 비롯한 생태환경 보존과 지속가능한 충북 친환경 녹색성장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친환경 충북 건설 강조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내외 흐름에 선도 대응 필요
 - 고령화 사회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기후변화 취약요인 증가하고 기후변화 현상의 가속화로 시민건강과 생태계 위협 가시화
 - 충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보급 필요성 증가
 - 탄소 시장 등 탄소 경제에 대비할 필요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연구 및 도민 교육 필요

▷ 국내외 나라와 도시들이 주목하고 있는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 기반 Greenomics(Green + Economics) 선도 필요

4) 농업

□ 농업·농촌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도시민의 93.8%가 긍정적 인식으로 인식됨에 따라 농촌지역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장(2008, KR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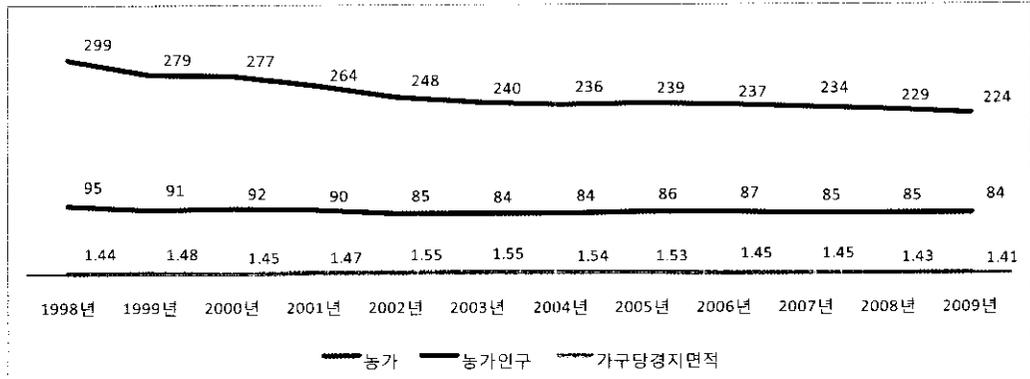


〈그림 2-45〉 도시주민 농촌지역 이주 의견

□ 농림 인구의 변화

- 농가인구의 변화는 2009년 223,580명으로 1998년 299,791명에 비해 25.4%인 76,211명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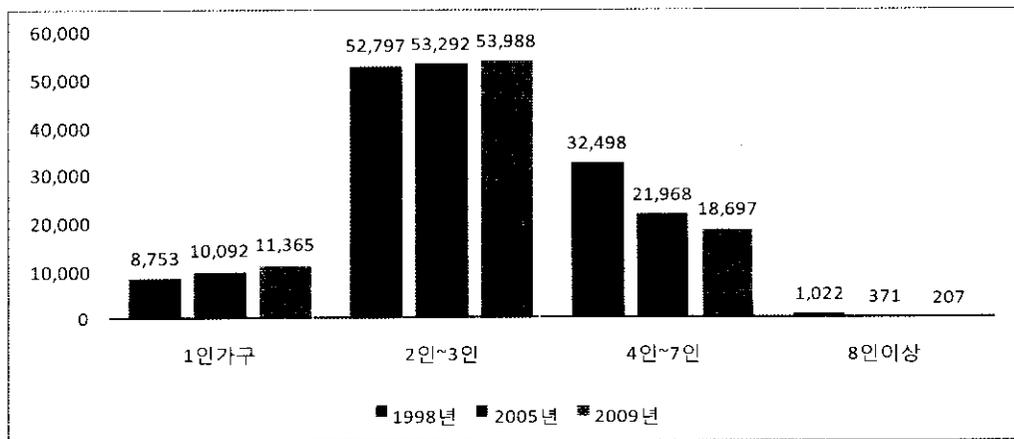
- 지속적인 이농, 혼인률의 감소, 출산률의 감소 등은 농가인구 및 농가인구비의 감소
- 영농규모의 확대가 부진한 가운데 농업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농촌의 유휴농지가 증가



<그림 2-46> 충청북도 농가 현황

● 농가가족 구성 변화

- 1998년 가구원별 농가 수 중 단독가구는 8,753호로 9.2%, 2009년에는 11,365호로 13.5%로 증가
 - 8인 이상 대가족 농가는 1998년 1,022호로 1.1%, 2009년에는 207호로 대폭 감소
- 전체 농가 중 0.2%의 비중을 보임



<그림 2-47> 농가가족 구성 변화

- 2009년 충북의 친환경농산물⁹⁾ 인증실적은 전체 6,557가구에 5,453ha이며, 유기농산물은 789가구에 734ha이며, 무농약농산물은 2,435가구 1,930ha이며, 저농약농산물은 3,333가구 2,789ha로 나타남

9) 친환경농업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존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의미

〈표 2-14〉 2009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최종)

(호, ha, %)

시·군	계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계	6,557	5,453	789	734	2,435	1,930	3,333	2,789
청주시	90	72	40	31	29	22	21	19
충주시	818	1,011	34	52	315	287	469	672
제천시	240	275	9	26	143	120	88	129
청원군	1,500	1,000	414	334	513	367	573	299
보은군	448	456	14	14	196	209	238	233
옥천군	779	365	18	11	255	116	506	238
영동군	510	400	9	20	33	27	468	353
증평군	63	42	8	8	54	32	1	2
진천군	515	510	91	72	361	363	63	75
괴산군	802	575	110	105	341	233	351	237
음성군	487	519	12	17	64	61	411	441
단양군	305	228	30	44	131	93	144	91

※ 인증유형별 재배면적 비율 : 유기(13.5%), 무농약(35.4%), 저농약(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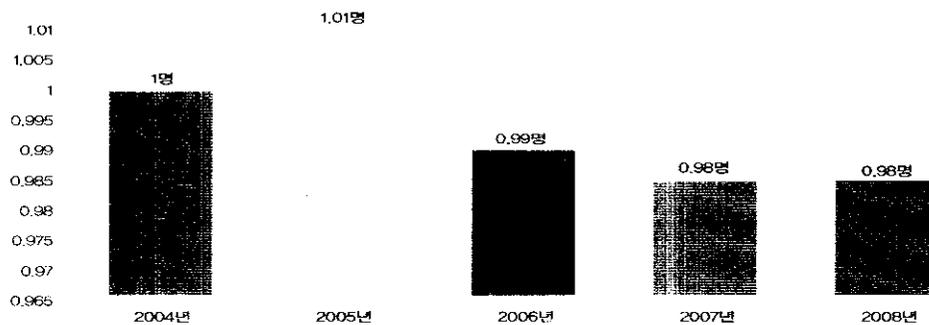
*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의 융복합(IT·BT·NT)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5) 문화·관광

□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인프라 확대

- 모두가 향유하는 문화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기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 공연 위주의 대규모 문화예술시설보다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하고 지역 문화예술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예술 거점지구(문화예술클러스터) 필요
 - 문화공간의 수는 2004년 인구 1만명당 1명에서 2008년 0.98명으로 감소



〈그림 2-48〉 인구 1만명당 문화공간의 수

□ 지역의 인적·물적 문화자원 관리와 활용

- 충북의 지정문화재가 상대적으로 빈약하지만, 지역 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전망
 - 전통사찰과 같은 역사문화자원, 전통시장·지역축제 등과 같은 생활문화자원, 국악·탈춤·민속놀이·사물놀이 등 전통공연예술과 지역전통먹거리 문화가 중시되면서 새로운 자원으로 부각
- 문화의 힘은 사람, 즉 지역 문화예술인으로부터 나오는 만큼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과 인력 양성이 필요함
 - 젊고 유능한 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 지원
 - 지역 문화예술인력 육성

> 여가가치를 추구하는 신유목민 시대의 등장으로 문화예술시설과 문화예술인 및 주민을 결합 시켜 프로그램화 함

□ 자연친화적 문화관광산업 르네상스 시대 도래

- 관광은 청정한 자연생태계 및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에 대한 잠재적 가치가 높음
 - 댐(2) : 대청댐, 충주댐
 - 국립공원(3개소) :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등 전국 20개소 대비 15.0%에 해당하는 3개의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총 884,901km²의 면적을 차지함

> 호수, 산, 등 고유의 자연 및 생태관광자원으로 충북을 대한민국 중심의 관광기저로 변모

6) 지역개발

□ 세종시와 연계한 충북의 발전

- 세종시원안의 정상추진에 따른 연계협력방안 모색
 - 세종시 원안 정상 조성을 위한 기반 확립 : 세종시 설치법(‘10. 12.8)
 - 도시간 차별적 기능·특성에 따라 경쟁과 협력 관계가 동시 발생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중추관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의료·관광 등의 배후기능을 지원

-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건설확정 : '10.6.29
 - 12부4처2청(49개 기관) → 9부 2처 2청(36개 기관)
- 세종시 법적 지위 및 관할구역에 대한 세종시 설치법 통과('10.12.8) :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편입결정 (청원군 부강리 등 8개 마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과 집중(오송역, 공항, 태양광, 생명산업) • 전략적 브랜드화(국토중심, 청정, 웰빙) • 청주청원통합을 고려한 세종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분야	
산업경제 (생명과 태양의 땅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우위산업 육성(바이오밸리, 솔라밸리, MRO) • 경쟁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기업유치, 오송역세권) • 협력을 통한 광역 네트워크 구축(과학비즈니스벨트, 경제자유구역)
관광 (세종시와 연계 충북관광 르네상스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광상품개발(알짜배기 관광상품, 시티투어 운영) • 관광안내서비스 구축(충북 웰컴투어센터, 관광안내서비스) • 다시찾고 싶은 관광명소 개발(차이나문화파크, 충주호, 늘머니 등) • 청주국제공항을 관문으로 육성(신규 국제노선, 시설확충)
인프라 (중부권 최고교통주거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 청원통합(도시계획통합 협약, 입안시행) • 철도·물류분야(KTX오송역, 공항~전안 복선전철, 광역철도망) • 도로분야(행복도시~오송역, 오송~청주, 오송~공항) • 정주여건분야(주거단지 추가조성, 후생복지시설 건립등)
농업 (청정생명농업의 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공급확대(유기농특구, 농특산물유통기지) • 도시민 유치기반 강화(백두대간 녹색생태축, 웰빙체험마을) • 다시찾고 싶은 청정충북(양서류생태관, 미호천 친수공간, 워터투어) • 정주여건분야(주거단지 추가조성, 후생복지시설 건립등)
교육 (수도권 수준 교육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중견전문인력 양성(오송고, 자사고) • 미래핵심 전문인력 양성(바이오융합대학원) • 융·복합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인력양성 • 오송 산학융합지구 조성(산업단지캐мп러스, 기업연수관, 기업자원센터 조성 등)

자료 : 충청북도(2010), 세종시 연계충북발전전략, 내부자료

●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 세종시의 유휴인력을 강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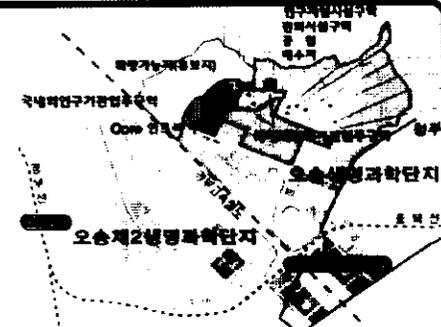
- 대덕단지 (연구기능)
- 행정도시 (행정중심기능)
- 오송생명과학단지 (산업기능)
- 오창과학산업단지 (산업기능을 연결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 오송지역의 공간적 위상제고

- 충청권 지역교통과 지역경제성장동력의 거점기능을 강화

- 세종시와 KTX 오송분기역을 구심점으로 하는 청주-대전-공주-천안을 연결하여 구성된 "Golden Squire"가 신충 국토발전축 체계의 기종점(OD)역할을 부여받아 새로운 차원의 미래기회 확보
- 경부선 오송역 개통(10.11.1)
- 호남선, 수서선(14년 완료)
- 생명태양의 땅 건설 : BIGH-T 미래산업 육성



□ 혁신기업도시를 연계한 충북발전

- 지역적으로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와 기업이 주체가 되는 기업도시를 추진
 - 2007년 2월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혁신도시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고 2007년9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2012년까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완료계획
 - 정보통신산업군과 인력양성군 중심의 혁신도시 입주에 따라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파급효과 구현
 - 정보통신(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력개발(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앙교육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한국고용정보원), 기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기술표준원)
 -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004년 12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안을 제정·공포함

▷ 세종시와 충북지역간 발전축의 위상을 강화하며, 국토의 주류발전축으로 편입됨으로써 지역발전의 계기

7) 행정

□ 청주·청원통합의 효과 및 대응

- 민선5기 도-청주·청원 자치단체장은 통합협약 체결(10.8.11)
 - '10년 청주·청원 인사교류, 워크숍 및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 11년 도-청주·청원통합발전방안계획수립
- 청주·청원의 통합은 인구나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크게 영향을 줄 것임

〈표 2-15〉 청주·청원통합의 종합적 예상효과

주요 예상 효과	
도시공간적 측면	- 공간적 통합성 달성 - 생활권의 일치
사회·문화적 측면	- 문화적 불평등 해소 - 지역연대감 조성
정치·경제적 측면	- 설치비용의 감소 - 재정운영의 명확성 확보 - 자원배분의 합리성
행정적 측면	- 조직운영의 효율성 확보 - 주민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

> 청주권과 타 권역간 공동사업 추진으로 공동이익 실현과 갈등완화
 > 청주중심의 입국화 방지를 위해 지역별 전략산업의 분산정책 추진

● 청주·청원통합의 대응과제

구분	사업내용
통합시 체제정비	• 통합시의 명칭, 통합청사의 입지, 행정조직의 인력과 기구, 통합시의 예산 통합
통합시 출범전 조치사항	• 청주·청원통합시의 명칭표기, 충북도와 통합시기 간의 기능배분, 개청식 출범행사
통합시 출범에 따른 과제	• 통합시장의 선출, 청주·청원지역간의 격차해소, 청주시 도심 공동화 해소

3-2. 충북의 여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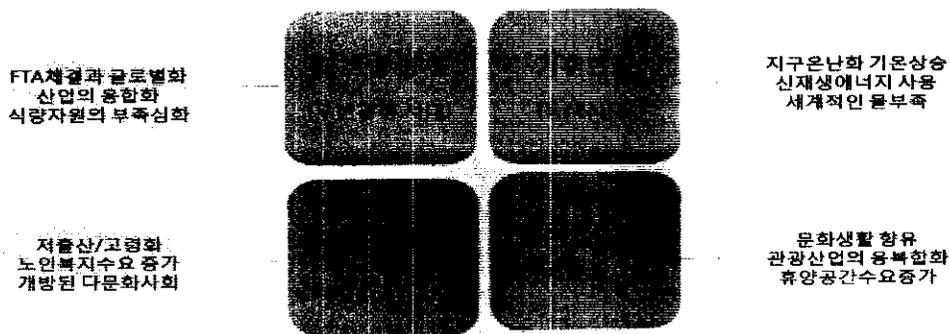
1) 충북도의 여건분석

- 오송 KTX역의 개통으로 국토공간의 X축 형성과 국토균형발전 촉진 등 통합 국토의 중요거점지역으로 발전
 - 세종시의 관문으로서 물류중심의 네트워크 증추기능 수행
 - 경부·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인 KTX오송역은 대한민국의 융복합 플랫폼으로서 국가철도망 X축의 핵심
- 바이오·태양광·MRO 산업의 중심지
-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는 핵심거점지역
- 전통산업의 근간으로부터 BIGH-T산업의 융합으로 고부가가치 신산업 기술지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

<표 2-16> 충청북도 SWOT 분석

내부환경	국가기간 교통망 결절지역 (오송:경부선, 호남선 분기) 동북아 인적·물적교류의 관문(청주국제공항) 우수한 역사·문화자원 (직지, 청남대, 조정약수) 산업집적화 및 클러스터 추진	국가정책에서 상대적 소외 (미개발) 고령화 및 저출산 현상 다문화 사회로 인한 갈등 중원문화유산의 인지도 약화 도민결집 응집력(구심점)부족 도 정체성(identity) 미약 도세 미약(인구, 재정자립도 등)	
외부환경	<p>X축의 중심 오송역 개통 국제도시 기반 청주국제공항 BIGH-T 미래산업 집적 세종시 건설 경제자유구역 추진 첨단산업벨트 조성 혁신·기업도시 건설</p> <p>수도권 규제완화 자유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쟁 다문화시대 지역경쟁력 약화 젊거나 유능한 낙후지역 노동력 유출 에너지 및 자원고갈</p>	<p>대규모 개발사업지역과의 긴밀한 교통인프라를 통한 거점 구축 시장개방에 대응한 적극적 해외시장 개척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선도산업 육성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경제적 수익창출</p> <p>적극적인 시장지향적 정책 지역전략산업과 광역경제권과의 연계 인재유출을 방지 및 유입을 위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p>	<p>국가기간 간선교통망 확충 기업간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간 양극화 극복 특화도시 구축 기반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외자유치</p> <p>광역경제권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p>

2) 충북의 도약과 정책방향



< 새로운 정책수요 >

- 글로벌 경제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 고령화 사회 : 사회복지 수요 증가
- 기 후 변 화 : 지구온난화 대응, 수자원 확보
- 새로운 가치 : 여가가치를 추구하는 신유목민시대 대응

<그림 2-49> 충북의 도약과 정책방향

3-3.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실현을 위한 도민인식조사

□ 조사개요

- 민선5기 충청북도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도민 대상 설문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17〉 민선5기 충청북도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내용

구분	내용
충청북도의 현재 이미지	- 교육, 행정, 환경, 스포츠레저, 문화, 관광, 경제산업, 첨단과학, 사회복지 등에 대한 현재의 충청북도 이미지
충청북도 거주 만족도	- 충청북도 거주 만족도
충청북도 분야별 현재여건	- 균형발전 수준, 경제여건, 교통여건, 교육여건, 복지여건, 환경여건, 치안·재난·소방여건
충청북도 분야별 현재여건	- 균형발전 수준, 경제여건, 교통여건, 교육여건, 복지여건, 환경여건, 치안·재난·소방여건
충청북도 도정방향	-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 도정방침 - 찾아가는 평생복지 달성을 위한 최우선 전략 - 살맛나는 서민경제 달성을 위한 최우선 전략 - 농촌도시 균형발전 달성을 위한 최우선 전략 - 창의적인 문화예술 달성을 위한 최우선 전략 - 참여하는 열린도정 달성을 위한 최우선 전략
충청북도 중점과제	- 사회복지분야, 경제분야, 지역개발분야, 농정분야, 환경분야, 관광분야, 문화분야, 열린도정 분야 등의 역점 추진 과제

□ 설문조사 방법 및 기간

- 설문대상
 - 충청북도 12개 시·군 주민
- 설문조사 방법
 - 시·군의 협조를 받아 1:1 면접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기간 및 표본수
 - 설문조사 기간 : 2010년 10월8일 ~ 2010년 10월 17일
 - 표본 수 및 표본추출방식 : 충청북도 도민 중 지역별로 인구비례에 의한 할당방식으로 1,300명을 표본추출

〈표 2-18〉 조사기간 및 유효표본수

구분	표본수	구분	표본수
청주시	500	영동군	50
충주시	170	증평군	35
제천시	123	괴산군	40
청원군	130	음성군	80
보은군	32	단양군	30
옥천군	55	진천군	55
		합계	1,300

□ 설문분석기법

- 설문지 데이터 계량화
 - 설문문항을 분석 가능한 형태로 계량화 작업(코딩)
- 설문조사 통계분석
 - 수집된 통계자료 분석 : 코딩과정을 거쳐 통계처리가능 상태의 자료(data)를 통계프로그램으로 분석
 - 주요 통계분석프로그램 : SPSS 프로그램
 - 기초통계분석 및 부문별 인식도 조사 결과분석

□ 인구통계학적 특성

- 설문대상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표 2-19> 참조), 성별의 경우 남성은 55.5%, 여성은 44.5%로 나타났음. 연령별로는 20대이하 10.0%, 30대 34.8%, 40대 32.7%, 50대 19.3%, 60대이상 3.2%로 나타남
- 거주권역은 청주권 47.0%, 북부권 24.1%, 중부권 17.1%, 남부권 11.8%로 나타남
 - 시군별로는 시지역 61.9%, 군지역38.1%로 나타남

<표 2-19>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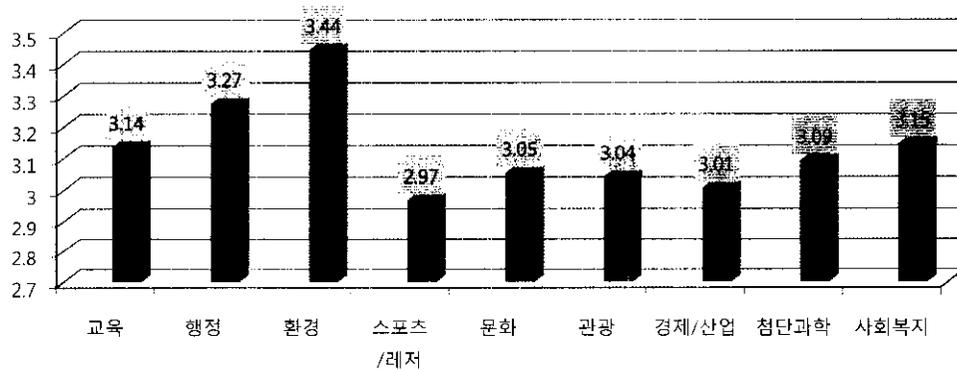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611	55.5	성별	고졸이하	280	25.9
	여성	490	44.5		전문대졸	238	22.0
	합계	1101	100.0		4년제대학졸	512	47.4
연령	20대이하	110	10.0	대학원이상	50	4.6	
	30대	383	34.8	합계	1080	100.0	
	40대	360	32.7	청주시	423	39.6	
	50대	212	19.3	충주시	146	13.7	
	60대이상	35	3.2	세천시	92	8.6	
	합계	1100	100.0	청원군	79	7.4	
직업	농림축산업	75	6.8	거주지	보은군	29	2.7
	자영업	125	11.4		옥천군	54	5.1
	사무직	227	20.7		영동군	43	4.0
	생산/건설	43	3.9		증평군	36	3.4
	전문/기술직	34	3.1		진천군	54	5.1
	학생	38	3.5		괴산군	41	3.8
	주부	182	16.6		음성군	52	4.9
	무직	37	3.4		단양군	19	1.8
	공무원	280	25.5		합계	1068	100.0
	기타	56	5.1		청주권	502	47.0
소득	합계	1097	100.0	거주권역	북부권	257	24.1
	100만원미만	188	17.5		중부권	183	17.1
	100~200만원미만	425	39.5		남부권	126	11.8
	200~300만원미만	318	29.6	합계	1068	100.0	
	300~400만원미만	92	8.6	시군	시지역	661	61.9
	400만원이상	52	4.8		군지역	407	38.1
합계	1075	100.0	합계	1068	100.0		

3-4. 분석결과

□ 충청북도의 현재 이미지

〈표 2-20〉 충청북도의 현재 이미지

구분	교육	행정	환경	스포츠 /레저	문화	관광	경제/ 산업	첨단 과학	사회 복지
평균	3.14	3.27	3.44	2.97	3.05	3.04	3.01	3.09	3.15
표준 편차	.710	.670	.740	.790	.816	.809	.785	.789	.696



참고 : “매우 나쁘다” 1점, “나쁘다” 2점, “보통” 3점, “좋다” 4점, “매우 좋다” 5점.

□ 충청북도 거주 만족도

〈표 2-21〉 충청북도 거주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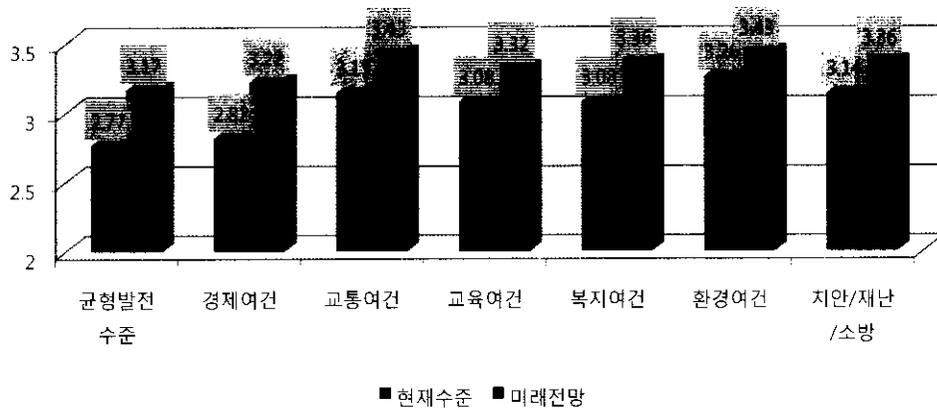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매우만족	35	3.4
만족	400	38.8
보통	509	49.3
불만족	83	8.0
매우불만족	5	.5
합계	1032	100.0

구분	비율
매우만족	3.4
만족	38.8
보통	49.3
불만족	8.0
매우불만족	0.5

□ 충청북도 분야별 현대여건 및 미래 전망

〈표 2-22〉 충청북도의 분야별 현재여건 및 미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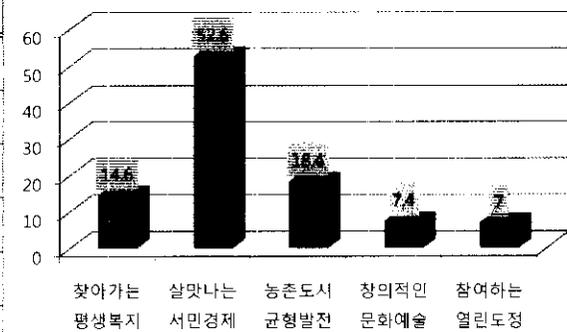
구분		균형발전 전수준	경제 여건	교통 여건	교육 여건	복지 여건	환경 여건	치안/재 난/소방
현재 수준	평균	2.77	2.82	3.15	3.08	3.08	3.26	3.14
	표준 편차	.675	.757	.821	.712	.682	.715	.704
미래 전망	평균	3.17	3.22	3.43	3.32	3.36	3.43	3.36
	표준 편차	.695	.759	.739	.715	.708	.722	.723



□ 충청북도 도정 방향

〈표 2-23〉 충청북도 도정 방향

구분	빈도	비율
찾아가는평생복지	165	14.6
살맛나는서민경제	594	52.6
농촌도시균형발전	208	18.4
창의적인문화예술	83	7.4
참여하는열린도정	79	7.0
합계	1129	100.0



〈표 2-24〉 “찾아가는 평생복지” 최우선 전략

구분	빈도	비율
저소득층일자리창출	368	32.8
창의적인청소년육성	183	16.3
양성평등의실현	97	8.7
의료보장및질개선	195	17.4
육아및보육서비스/시설개선	226	20.2
장애인복지서비스확충	44	3.9
기타	8	7
합계	1121	100.0

〈표 2-25〉 “살맛나는 서민경제” 최우선 전략

구분	빈도	비율
신성장동력산업육성	180	16.0
지역전략산업고도화	326	29.0
신지식서비스산업육성	89	7.9
지역1차산업육성	60	5.3
다양한일자리창출	467	41.5
기타	2	0.2
합계	1124	100.0

〈표 2-26〉 “농촌도시 균형발전” 최우선 전략

구분	빈도	비율
광역연계SOC구축	213	19.1
전략적성장거점육성	386	34.6
균형발전시스템구축	497	44.5
기타	17	1.9
합계	1117	100.0

<표 2-27> “창의적인 문화예술” 최우선 전략

구분	빈도	비율
문화/체육시설확충	275	24.5
서민휴식/레저공간확충	452	40.3
문화프로그램개발	188	16.8
문화예술관련행정및서비스지원	176	15.7
지역이벤트개최	28	2.5
기타	3	.3
합계	1122	100.0

<표 2-28> “참여하는 열린도정” 최우선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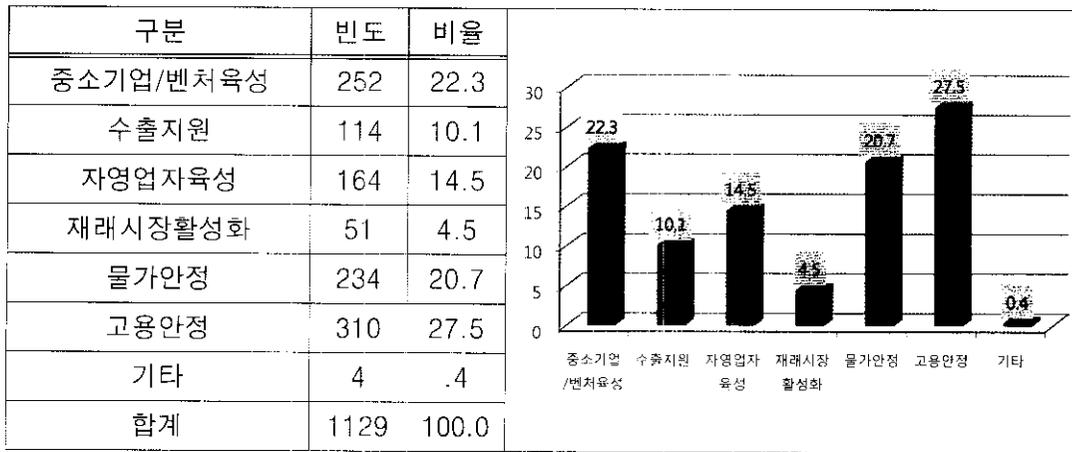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도민과소통강화/참여확대	444	39.8
서민지향적인전담부서설치	289	25.9
도-시군간공무원인사교류	124	11.1
지역간균형발전을위한출장소설치	176	15.8
도민참여예산제도운영	80	7.2
기타	3	.3
합계	1116	100.0

□ 충청북도 중점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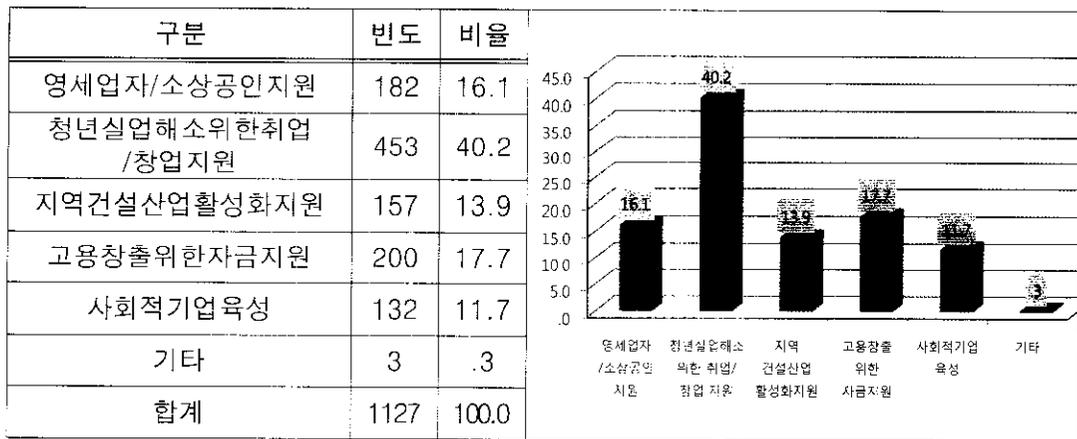
<표 2-29> 사회복지분야 역점 과제

구분	빈도	비율
사회복지자원확충	279	24.7
노인의료보장	299	26.5
사회복지전달체계확립	111	9.8
민간부분활성화	106	9.4
사회적일자리창출	325	28.8
기타	9	.8
합계	112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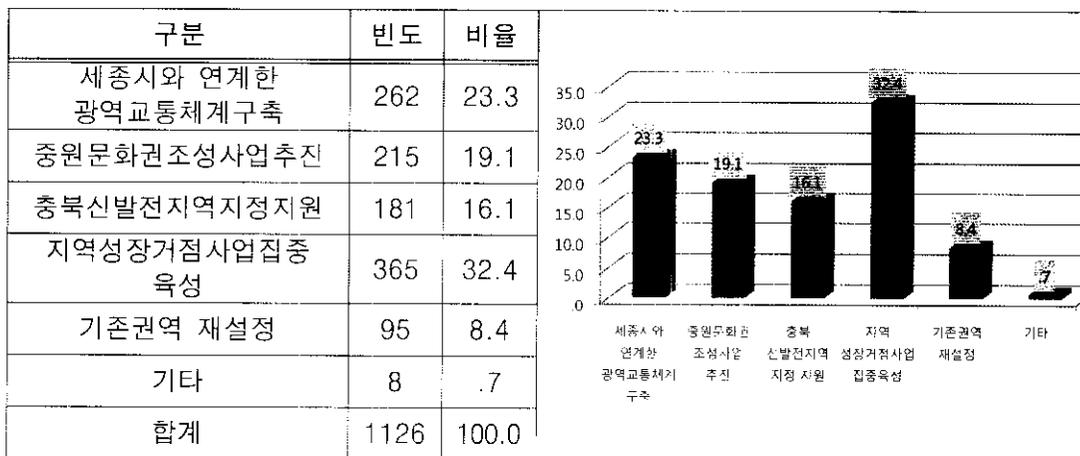
〈표 2-30〉 중소기업과 도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경제분야 역점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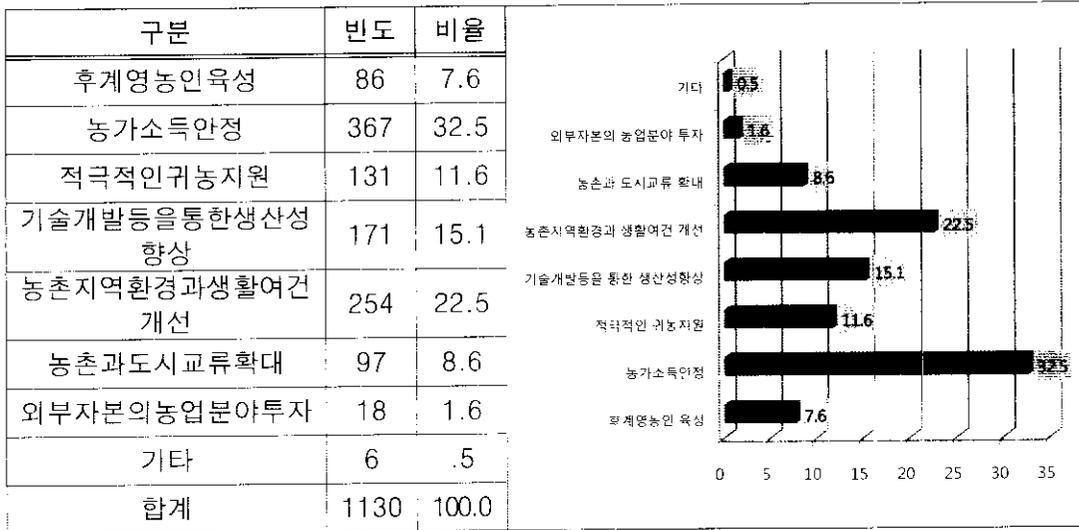
〈표 2-31〉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해 경제분야 역점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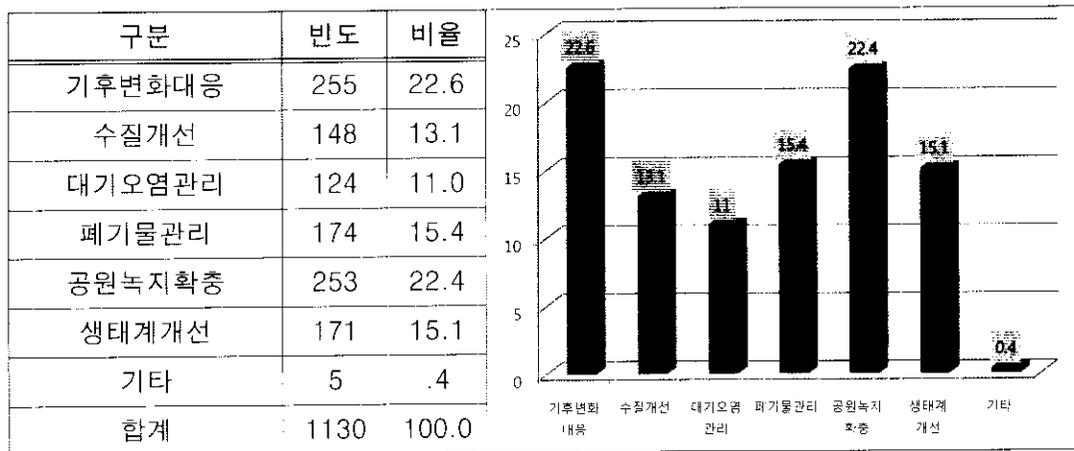
〈표 2-32〉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개발분야 역점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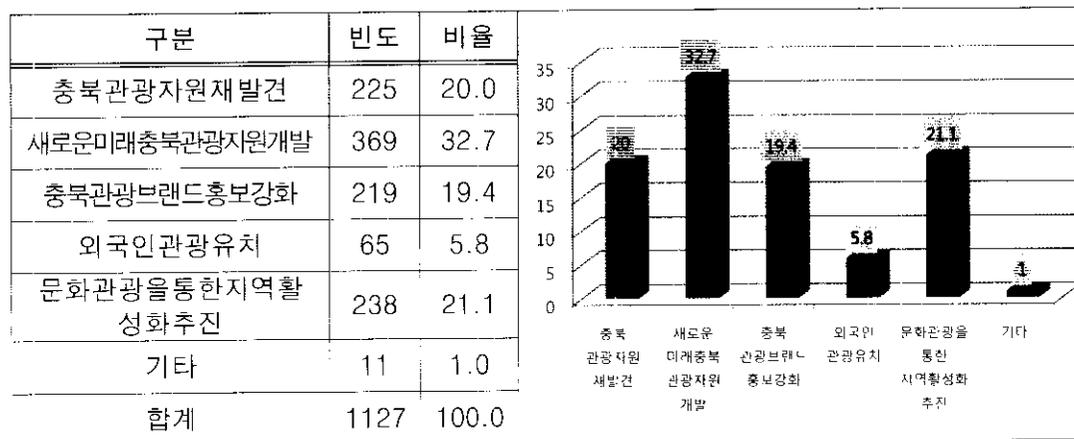
<표 2-33> 농정분야 역점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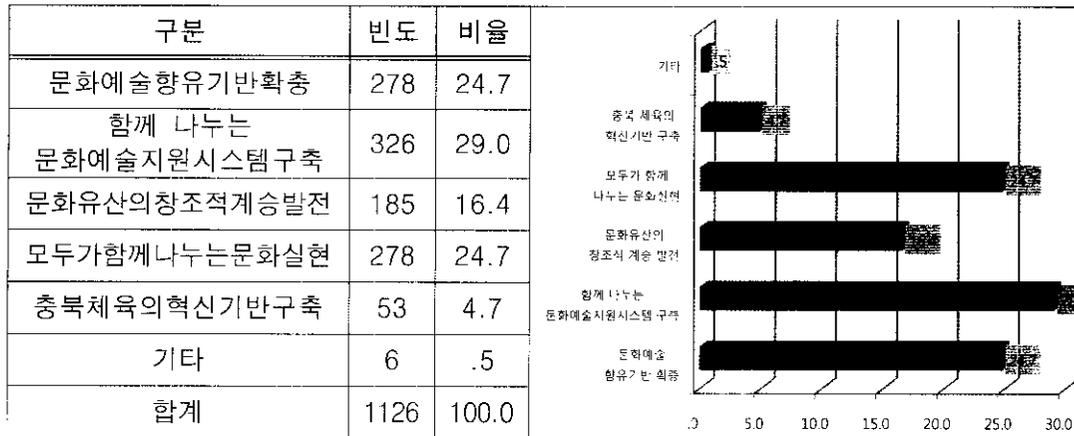
<표 2-34> 환경분야 역점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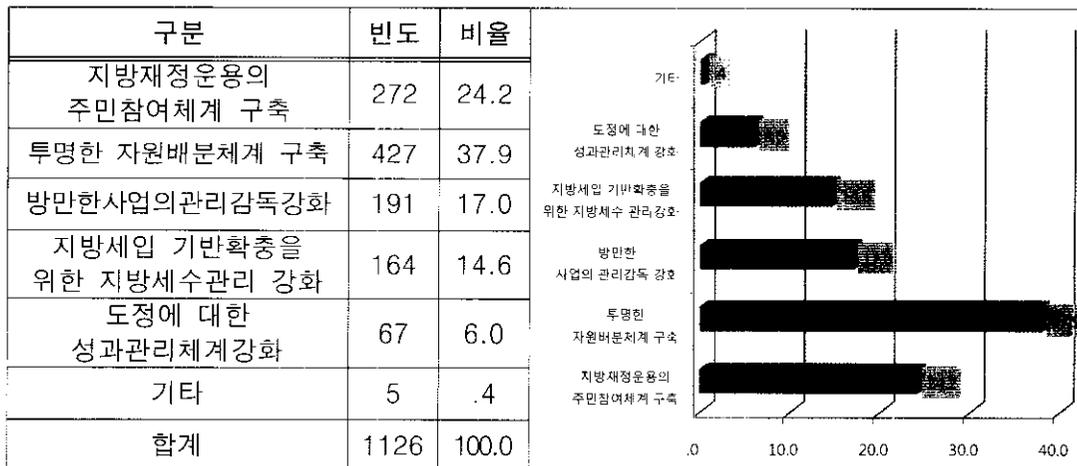
<표 2-35> 관광분야 역점 과제



<표 2-36> 문화분야 역점 과제



<표 2-37> 열린도정 분야 역점 과제



3-5. 시사점

□ 충청북도에 현재와 미래

- 도민들은 충청북도에 대한 이미지 중 환경과 행정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거주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충청북도의 분야별 현재 모습에 비해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밝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과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미래에 대한 전망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충청북도의 도정 방향과 과제

- 충청북도민은 살맛나는 서민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 으며, 다음으로는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기대함
- 살맛나는 서민경제(52.6%), 농촌도시균형발전(18.4%), 찾아가는 평생복지(14.6%), 창의적인 문화예술(7.4%), 참여하는 열린도정(7.0%)
 - 도정방침별 최우선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제시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함께하는 충북”이라는 도정목표에 부합하는 서민과 함께 하는 전략의 수립을 요구됨
 - 특히, 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부분에 우선순위임

- | | |
|-------------|--------------------|
| ▶ 찾아가는 평생복지 | ▶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
| ▶ 살맛나는 서민경제 | ▶ 다양한 일자리 창출 |
| ▶ 농촌도시 균형발전 | ▶ 균형발전 시스템 구축 |
| ▶ 창의적인 문화예술 | ▶ 서민휴식/레저공간 확충 |
| ▶ 참여하는 열린도정 | ▶ 도민과 소통강화 및 참여 확대 |

<그림 2- 46> 도정방침별 최우선 전략

- 충청북도의 중점과제 중 최우선 역점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지적하고 있음

<표 2-38 > 도정 최우선 역점 과제

도정 최우선 역점 과제	
● 사회복지분야	→ ① 사회적일자리 창출, ② 노인의료보장
● 경제(중소기업/도민생활안진)분야	→ ① 고용안정, ② 중소기업/벤처 육성
● 경제(더불어사는 사회구현)	→ ① 청년실업해소 위한 취업/창업 지원, ② 고용창출 위한 자금지원
● 지역개발분야	→ ① 지역성장거점사업 집중 육성, ② 세종시와 연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 농정분야	→ ① 농가소득 안정, ② 농촌지역 환경과 생활여건 개선
● 환경분야	→ ① 기후변화 대응, ②공원녹지 확충
● 관광분야	→ ① 새로운 미래 충북관광자원 개발, ②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활성화 추진
● 문화분야	→ ①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지원시스템 구축, ② 문화예술향유 기반 확충 및 모두가 함께 나누는 문화 실현
● 열린도정분야	→ ① 투명한 자원배분체계 구축, ② 지방재정운용의 주민참여체계 구축

1) 충북도정의 민선자치이후 성과평가

(1) 민선자치이후 주요 충북도정 정책추진 성과

〈표 2-39〉 민선자치이후 주요 충북도정의 주요 정책성과

구분	추진경과
민선1기 (1995.7~1998.6)	- 증원군·충주시, 제원군·제천시 도농통합('95.1) - 청주국제공항 개항('97.4) - 국가사업단지(바이오 보건의료특화단지) 지정('97.9) - 충북도립대학 설립('97.11)
민선2기 (1998.7~2002.6)	- 오창과학산업단지조성 준공('02.3) -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 건설 ('99.11) - 청주광역권 계획('01)
기반구축 단계	- 청남대 개방('03.4) -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04.12)
민선3기 (2002.7~2006.6)	- 중평군 개청('03.8) - 오송KTX분기역 유치('03.11) - 바이오엑스포 개최('02.9)
민선4기 (2006.7~2010.6)	-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개통('07.11) - 오송생명과학단지 준공('08.10)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09.8) - 2013 중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09.8)
도약단계	- 오송 KTX분기역 개통('10.11) -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건설 선언('10.11) - 세종시 법적지위 및 관할구역 확정('10.12)
민선5기 (2010.7~현)	

□ 기반구축단계('95 ~ '09) : SOC 구축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청주국제공항 개항, 오송 KTX 분기역 유치 등 접근성 제고
- 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대형국책사업 및 공공투자유치(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 조치원~봉양간 115km 구간의 충북선전철화 사업, 춘천~제천~대구 구간 280km)

□ 도약단계('10 ~ 현재) :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건설

- BIGH-T 미래산업 육성(IT, Green-Health-Technology)
- 바이오밸리 건설(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1·2생명단지, KTX역세권 개발)
- 솔라밸리 조성(36번 국도)
- 균형발전 토대구축(충청내륙고속도로설계비 반영, 신발전지역지구지정 추진)

(2) 주요성과

□ 정보화 인프라에 대한 집중투자로 컴퓨터 잘쓰는 道 기반 마련

- 초고속 정보통신망 조기 구축, 인터넷·이동전화 보편화 등 인터넷 잘 쓰는 도 등 위상 제고
- 정보화 공동추진 선포식(2000.4.21) 1년 이후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24배 증가(6.4천→156천 회선)

□ 21C 국토의 중심역할지역 부상을 위한 SOC 지역발전 기반시설 구축

- 지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으로 사통팔달의 지역간 및 지역내 도로망을 확충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
- 청주국제공항 개항('97.4),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유치('99.8), KTX 오송분기역 개통('10.11)
- 경부고속철도 오송KTX역은 1989년 범도민운동을 전개한 이후 14년만에 2003년 11월에 충북 오송으로 확정됨
- 조치원~봉양간 구간의 충북선전철화사업, 중앙고속도로(춘천~제천~대구, '01.10)·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개통('04.11)
- 대전광역권도시계획에서 청주·청원을 청주광역도시계획권역으로 설정함으로써 전국 7대권역에서 8대권으로 확대함

□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기반구축

- 교육지원체제 구축
 -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제정('06.11),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정('08.1)
- 인재양성재단 설립·운영
 - 사람이 경쟁력이라는 믿음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08.1), 인재양성재단 기금 조성(9목표 1,000억원, 조성 333억원), 충북미래관 개관

□ 21세기 첨단지식·정보기술과 바이오, 태양광, MRO를 핵심성장전략 산업으로 설정·육성

- 오송첨단의료복합과학산업단지 유치('09.8)
-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산업(IT) 육성

(3) 미흡한 점

- > 집단이기주의와 지역이기주의 표출
- > 지역거점 성장산업 부재
- > 지역현안의 전략적 해결 미흡

□ 자치단체간 연계협력 미흡

- 민선이후 자치단체간 지역 및 집단간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지연
 - 광역-광역(충주댐환경기초시설 운영비부담, 중부내륙화물기지, 호남고속전철분기점)
 - 광역-기초(인사교류), 기초-기초 간(청주광역쓰레기 매립장, 제천시 장곡취수장, 태권도공원, 대한체육회선수촌, 청주·청원통합)의 갈등발생

□ 전국대비 3%의 성장한계

- 고부가가치 미래성장산업 육성미흡, 사회간접자본확충 미흡, 양질의 노동력 미흡으로 인구나 경제부문의 3%를 탈피하지 못함

<표 2-40 > 충북의 인구·GRDP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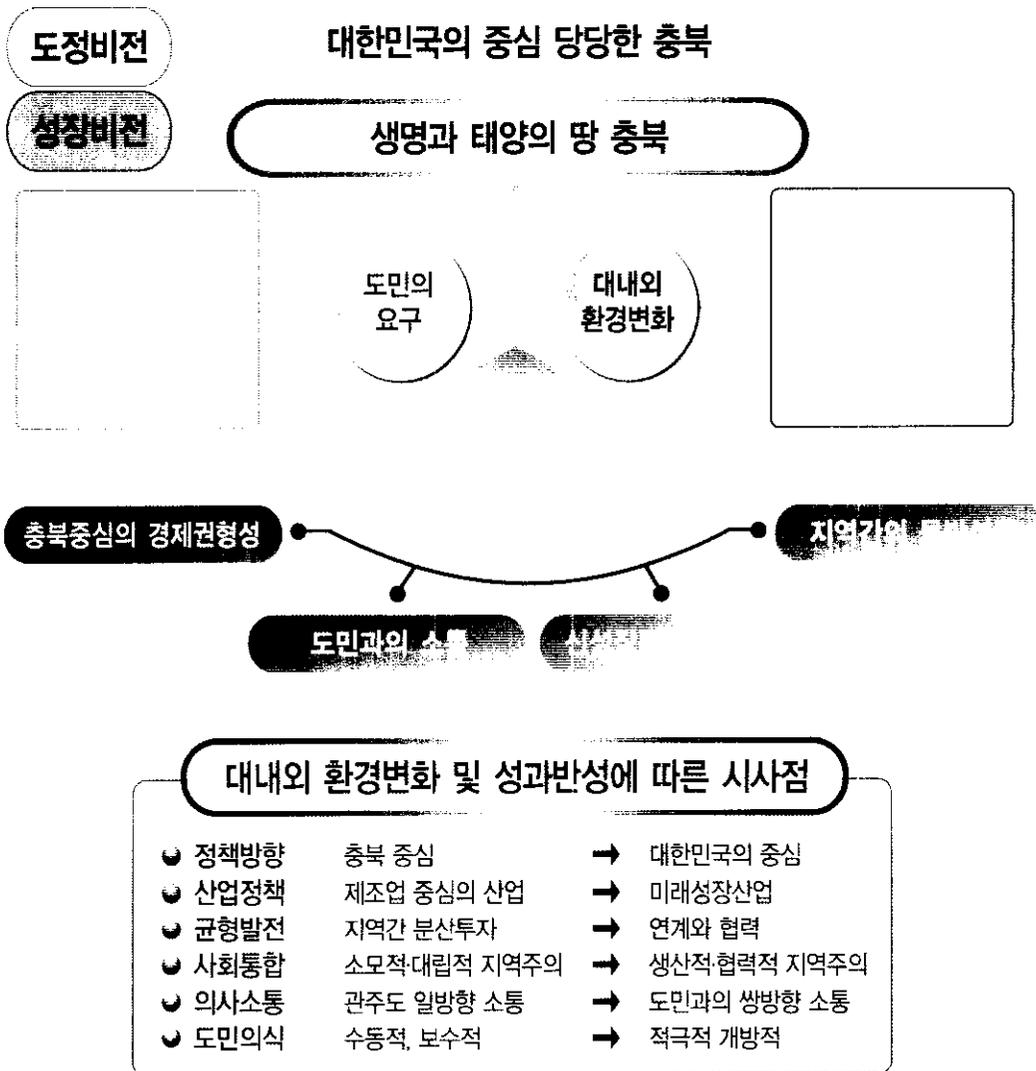
구 분		2006		2007		2008		2009	
인구 (명, %)	전국	48,297	-	48,456		48,607		48,747	
	충북	1,484	3.1	1,483	3.1	1,482	3.0	1,481	3.0
GRDP (10억원)	전국	912,926	-	983,030		1,028,500		1,066,084	
	충북	27,997	3.1	30,001	3.1	30,105	2.9	31,683	3.0

□ 국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미흡

-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적합한 도의 역할, 선제적 기능·제도구축 미흡
 - 당초 초광역개발권에 배제되었으나, 강력한 정부건의 등을 통해 내륙벨트(첨단산업벨트, 백두대간벨트)계획에 충북 등 내륙권역 설정

(4) 민선5기 도정 정책방향

국내외 환경 및 정책변화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충북발전전략 수립 필요
 민선5기 도정을 이끌어갈 실천계획의 성장전략산업 도출



새로운 환경변화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능동적인 발전전략으로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실현

<그림 2-47> 민선5기의 도정 정책방향



제3장

비전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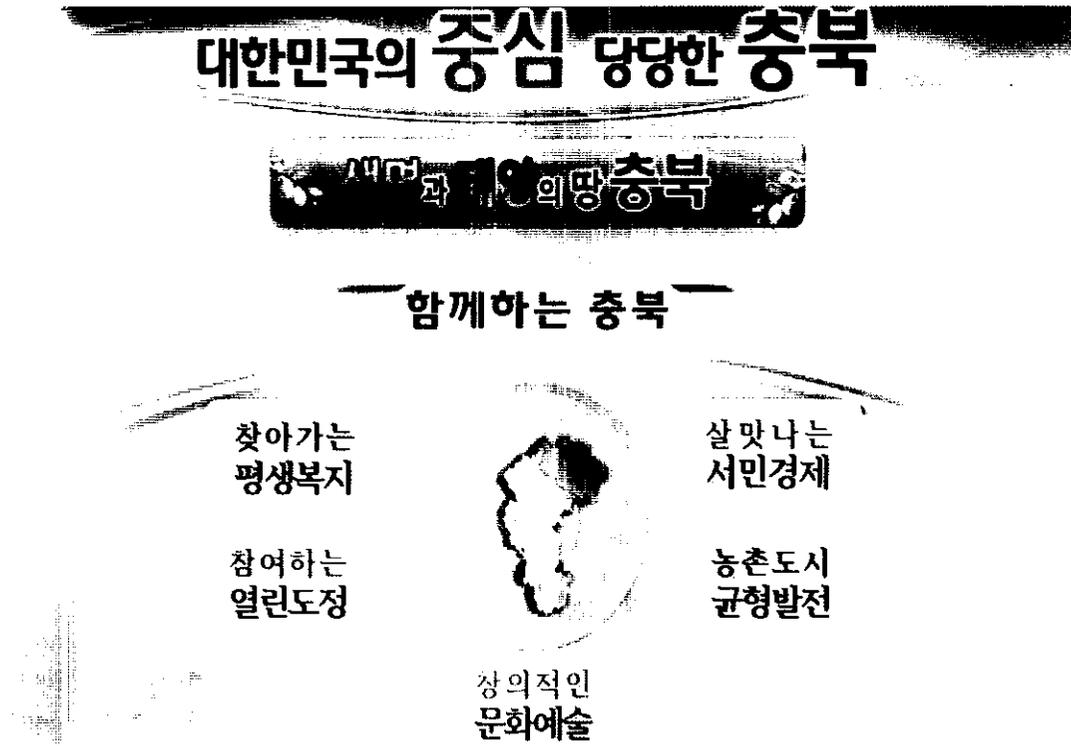
- 1. 비전·전략체계도**
- 2. 미래성장 전략**
- 3. 오승거점 발전전략**
- 4. 성장동력 체계**



1

비전·전략 체계도

1-1. 비전·전략



□ 비전과 전략 :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건설을 통한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실현

⇒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이란?

-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이라는 충북도정 비전은 단순히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중의 하나라는 협의의 의미가 아니라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발전하여 대한민국을 선진일류국가로 창조하는 데 선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임
- 지정학적인 국토의 중심, 물리·물질적 측면의 미래첨단산업(BIGH-T) 집적, 문화적 측면의 융합과 포용의 중원문화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100년을 선도하는 중심으로 당당히 나감으로써 우리 후손들이 충북 자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히 나아 가겠다는 의미

□ 전략 :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건설을 위한 함께하는 충북

- 너와 나, 가진 자와 못 가진자, 남과 여, 노와 소 등 모든 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더불어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
 - “함께”에는 너와 나라는 독립적인 개체의 집합개념을 넘어, 그 자체에 형평·소통·공유·동참·반려·배려·나눔·협력의 뜻을 내포

1-2. 부문별 목표 및 전략

□ 목표·과제 체계 : 5대부문 18분야 298과제

- 2014년 충북의 미래상을 초점을 두고, 298개 과제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미래성장전략의 가치를 극대화 하고자 함
 - 민선5기의 비전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5대목표 18 전략을 설정함
- 지역, 계층간, 산업간의 역기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복지, 경제, 지역개발, 농업, 문화, 예술, 환경, 행정 등의 영역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를 설정함으로써 충북도민들이 미래 도시공간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5대목표	18분야	18분야	과제(298개)
평생복지 부문	도민을 찾아 섬기는 평생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지원기반 마련 - 출산에서노후까지 평생복지구현 - 도민이 만족하는 평생건강실현 -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사업 등 47개 과제
서민경제 부문	도민 모두가 잘사는 충북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 거점조성 - 미래전략산업 육성 -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성장 촉진 - 서민경제 지원지원 	KTX 오송역세권 개발 등 44개 과제
균형발전 부문	함께 잘사는 도시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추진 -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교통망 구축 - 녹색기반자립 농촌건설 	균형발전특별회계 조성 등 112개 과제
문화예술 부문	함께 누리는 문화, 도약하는 명품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격 문화예술기반확충 - 명품관광 프로젝트 개발 - 도민이 함께하는 평생체육 육성 - 자연이 살아숨쉬는 청정충북 실현 	도지정예술단 운영 등 41개 과제
	도민과 소통하는 창의적 행정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구현 - 일과 성과중심의 도정운영재해 -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도정정책자문단 구축 등 54개 과제

<그림 3-1> 충북 Vision 2014 목표 및 전략

□ **평생복지 부문 : 도민을 찾아 섬기는 평생복지 실현**

> 농민, 노동자, 장애인, 상인, 노인, 저소득층 등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평생을 보살피는 복지를 실현

현재(As-Is)

- 함께하는 사회계층 지원미흡
- 서민생활의 불안정
- 소극적인 사랑과 나눔
- 서민복지체감도 미흡
- 예방적 의료체계 미흡
- 의료서비스 지역간 불균형
- 일과 가정 양립 미흡

**취약계층
자립기반 마련**

평생복지 구현

**평생건강
실현**

**가족친화
환경조성**

미래(To-Be)

- 사회취약계층에 섹제적 미래대응
-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 사랑과 나눔의 사회통합
- 서민복지 체감도 제고
- 의료서비스 지역간 형평성 제고
-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 **서민경제부문 : 도민 모두가 잘사는 충북실현**

> 부자 위주의 경제성장정책에서 서민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화하고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서민이살맛나는 경제기반을 구축

현재(As-Is)

- 중산층 약화 및 빈부격차 확대
- 첨단산업의 지역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미흡
- 전통산업의 침체
- 지역특화산업 클러스터 미 확립

신성장 거점 조성

미래전략산업 육성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성장 촉진**

**서민자립
경제지원**

미래(To-Be)

- 서민경제활성화 구현으로 서민층 활력구현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의 신성장동력화
- 전통과 첨단이 어울러진 충북경제특화모형 확립
- 전통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달성

□ **균형발전부문 : 함께 발전하는 농촌·도시 건설**

> 농촌과 도시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도내 전역이 고루 상생하는 균형발전을 촉진

현재

- 수도권 경부축 중심개발
- 지역간 상대적 불균형 심화
- 자동차도로중심의 교통체계
- 청주권 중심의 발전거점 지원 교통망
-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명품브랜드 미흡
- FTA시장 개방에 대응미흡

**함께 상생하는
균형발전추진**

**지역발전 견인하는
교통망 확충**

**녹색기반
자립농촌 건설**

미래

- 충북관동 동서축 개발
- 지역간 동반성장
- 녹색교통중심의 교통육성
-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교통망 확충
- 향토자원의 산업화
- 고부가가치 명품농산물 육성

□ 문화예술부문 : 함께 누리는 문화, 도약하는 명품관광

> 중원문화의 다양성을 토대로 문화에 대한 창의력을 극대화 시켜 문화예술을 경쟁력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며, 도민이면 누구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공간을 마련

현재(As-Is)

- 관중심의 문화예술
- 계층·지역간 문화향유격차
- 시설공급위주의 관광개발 정책
- 단일산업위주와 관광산업
- 엘리트 중심의 체육
- 온실가스 관리감독 및 기후변화대응 미흡
- 환경관리전략 미흡

고품질문화예술기반 확충

명품관광프로젝트 개발

함께하는 평생체육 육성

자연이 숨쉬는 환경친화 실현

미래(To-Be)

- 창의성에 기반한 문화예술기반 실현
- 모두가 누리는 문화예술향유기반조성
- 콘텐츠와 체험위주의 관광 명소 확대
- 고부가 가치 관광산업 육성
-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기반 조성
- 환경산업육성과 환경자산의 가치창출
-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천복원

□ 열린도정부문 : 도민과 소통하는 창의적 행정실현

> 각계각층의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함

현재(As-Is)

- 도정의 형식적인 도민참여
- 폐쇄적인 조직문화
-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 낮은 행정서비스 만족도
- 위기대응능력 체계 미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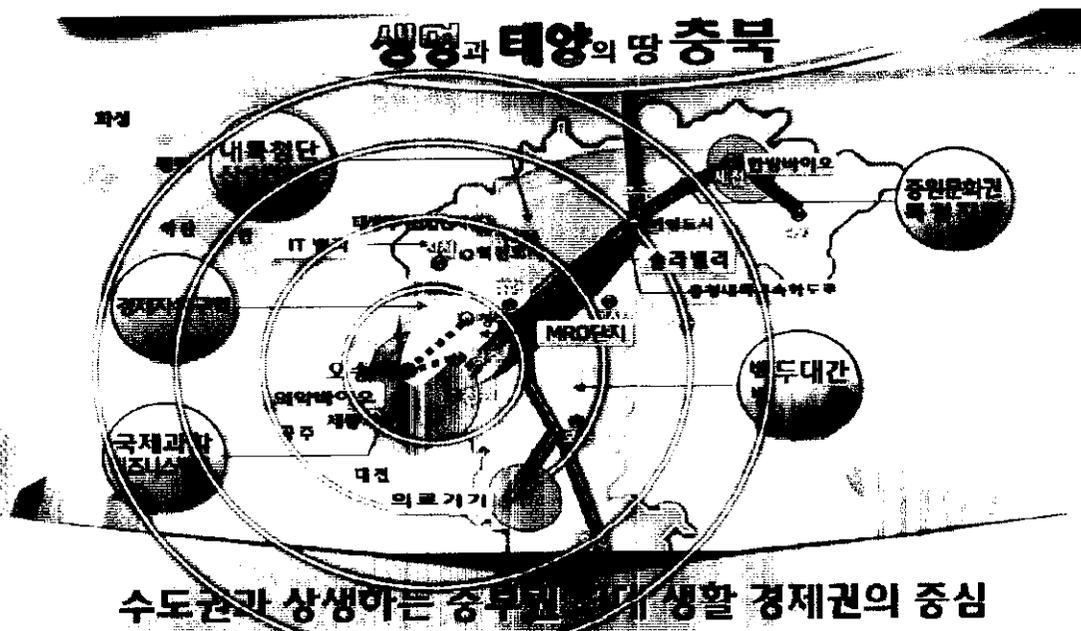
도민과 함께 소통행정구현

성과중심의 도정운영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미래(To-Be)

- 도민참여제도화와 실질적 참여
- 개방과 소통의 문화정착
-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 성과중심 행정체제 고도화
-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표 3-1> 미래성장 전략

구분	범위	사업내용
수도권신용연결	공간적 범위	수도권 ~ 천주공항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중심의 천주공항까지 연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제고 수도권 남부 및 충청내륙부권의 항공이용 수요 확대 세종시 및 오송KIX이과 연계된 충청권 광역신공항 구축을 위한 공동발전과 천주공항의 활성화에 기여
태생국가 산업단지	공간적 범위	충청권 광역권, 대주역, 삼성면 일원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 부문 R&D, 소재부품 모듈 제품 중심의 국가차원의 생산단지 조성
중원문화권 특장지역 개발	공간적 범위	충주, 제천, 단양 일원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주, 제천, 단양관광자원개발, 충주호, 제천지구물 순환수로 원유 및 관광자원, 산악자원의 통합을 위한 관광개발 전략 강화 세계적인 관광자원(배이관관, 영불호반)과 연계한 관광개발, 지역특성 중심의 관광지 개발로 특화 단양 권역 산악자원과 역사문화자원 중심의 관광자원개발, 용원레저시설의 관광지점사로 특화
신선농업 혁신도시 건설	공간적 범위	진천군, 단양군 및 음성군 맹동면 일원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화원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성질 기질 도시로서 역할 수행 정보통신산업집중원 등 1개 공공기관 이전
신발제조업 특장지역 조성	공간적 범위	보은읍천연리, 괴산읍명동리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발수출지역, 종합발전구역의 위치를 신발전 지역 646km², 인주지역 47km² 지역별 규모: 보은 16.5%(114km²), 단양 16.4%(119km²), 영동 16.5%(192km²), 괴산 33.0%(227km²) 등 산업, 농림, 관광, 체육 4분야 중, 35개 사업 중 발전촉진 지구 15개소, 부수특수지구 20개소
내륙철도 산업벨트	공간적 범위	충북(진주, 충주, 제천, 청원, 증평, 진천, 음성 6개 시군) 광역, 대전, 충남, 호남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양생태, 역사, 문화, 휴양 정주지대로 개발 의료산업, 전자정보부품소재산업, 바이오 신소재 산업, 사제대 대체에너지 산업, 항공·우주과학기술
백두대간 벨트	공간적 범위	충북(영동, 옥천, 영동, 괴산, 단양), 강원, 경북, 전북, 전남, 경남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두대간 녹색성장 특장화 분야로 그외에 1차산업벨트 및 생태 관광벨트, 문화 백두대간 생태축 개발, 세계적 관광자원 수호의 개방형 생태관광원 조성 소규모융합산업 육성 분야로 강원, 생애관련개발과 생보, 한방 산업 중심의 백두대간 관광생태벨트 조성 역사문화자원 육성 분야로 유교, 불교, 공예, 고원문화원 연계 역사문화 클러스터 육성 농산품산업 특화 분야로 지역내외 마다 식품클러스터와 건강기능식품 클러스터 조성 소방(안전)관리 확충 분야로 화재 5.7.8 등 도로방화총과 소방대응 교육시설, 중앙신 안전장치의 등 절도형 확충

3

오송거점 발전전략

- 신오송시대 개막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
 -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1·2생명단지, KTX오송 역세권 등을 아우르는 오송 바이오밸리는 세계 바이오산업의 허브로 도약
 - 오송은 교통 접근성의 용이함과 식약청 등 국책기관의 이전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함
 - 오송은 바이오, 태양광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의 새로운 발전을 선도하며, 대한민국의 중추거점으로 정착할 것임

> KTX 오송역 개통 (호남선·강남 수서선 : '14년 완공)

> 9,542천㎡ (289만) 규모 오송바이오밸리 건설 (첨복단지, 오송1·2단지, KTX역세권)

생명·태양의 땅 건설

- BIGH-T 미래산업 육성
 - 바이오밸리, 솔라밸리
- 융복합 바이오 환경 개발

교통·물류의 중심

- 국가철도망 X축 중심
- 대륙횡단철도 연계 기점
 - 중국·러시아·유럽 교류 확대

소통과 통합의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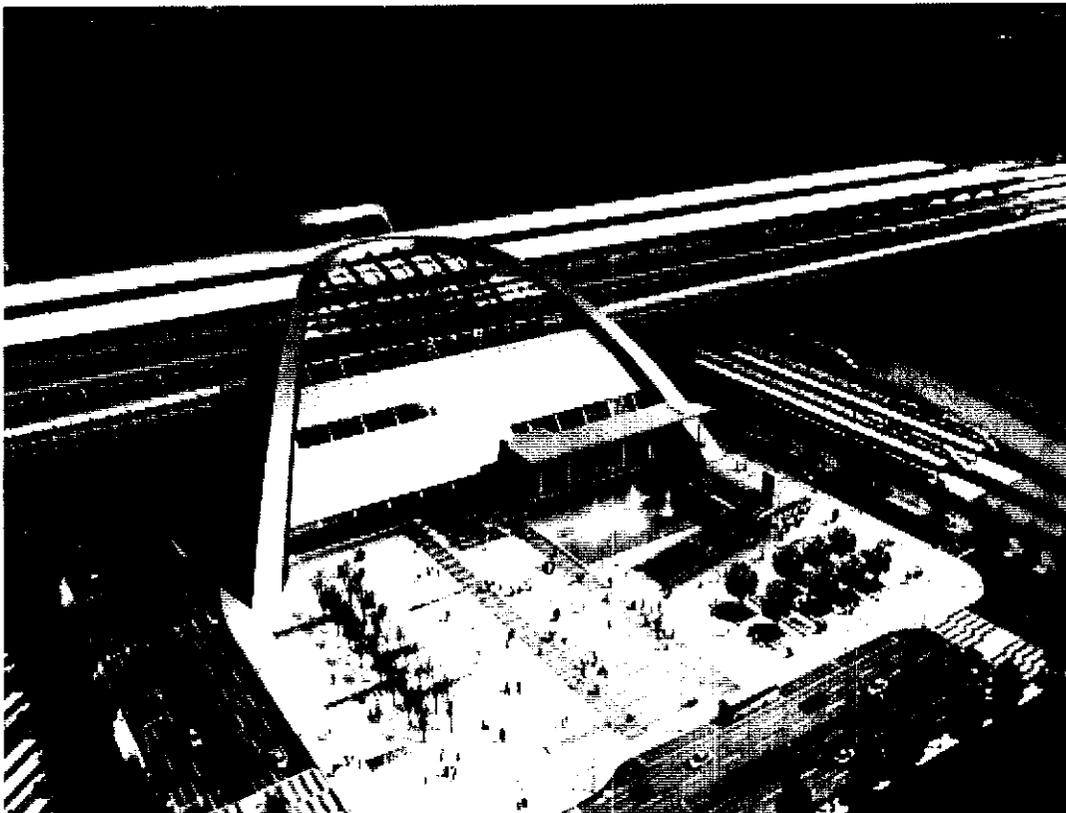
- 영남과 호남, 동과 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통
- 문화예술과 유행 통합

「오송거점」이 대한민국 발전 선도

〈그림 3-1〉 오송거점 발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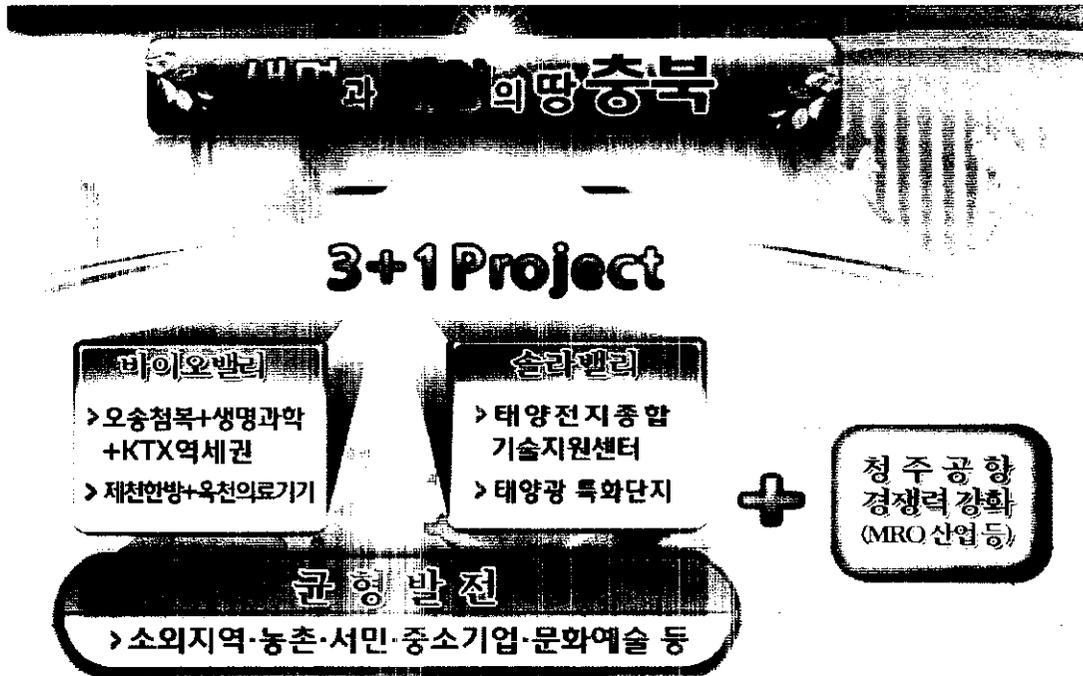
- KTX 오송역세권은 바이오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개발
 - 오송 KTX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를 골격으로 X자형 고속 철도망을 연결
 - 유라시아 대륙과 남북한을 연계하는 오송 KTX은 거대한 황금루트를 형성하여 대한민국의 교통허브로써 세계적 성장기회를 유인하는 역할을 수행
 - 오송은 대륙횡단철도와 청주국제공항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적 기종점으로 도약
 - 전국이 1일 생활권이 정착되어 하나의 도시, 생활권 조성으로 지역간의 격차 해소
-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 연구타운으로 조성
 -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보건의료산업의 국가핵심기관이 보건의료행정타운에 입주
 - 글로벌 바이오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물적 인프라가 집적하여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세계적인 바이오 메디컬 허브로 육성

- 첨단의료복합단지내 핵심·연구지원시설은 7만7978㎡의 부지에 건축 연 면적 4만2천571㎡로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임상시험신약 생산센터, 실험동물센터 등 4개 센터를 건립
- 오송생명 1, 2과학단지를 바이오 전문단지로 육성
 - 오송생명 1과학단지는 6대 국책기관과 연구기관, 첨단업체 등 산·학·연·관이 어우러진 국내 바이오 보건의료 클러스터 조성으로 대한민국의 BT 경쟁력을 유도
 - 오송1단지는 바이오 행정·산업 전문단지로 육성
 - 오송2단지는 바이오산업의 허브에 부합하는 수준높은 친환경·인간중심의 바이오 교육·의료 전문단지로 조성



4

성장동력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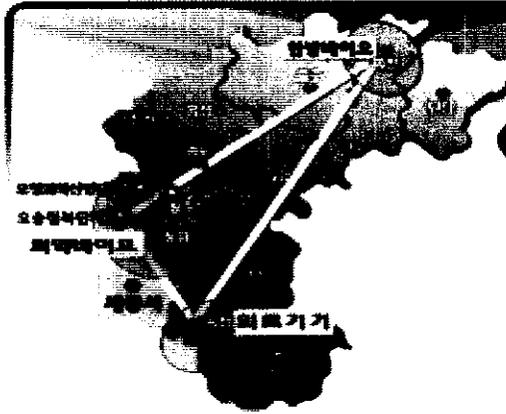


4-1. 바이오밸리 육성

□ 바이오 산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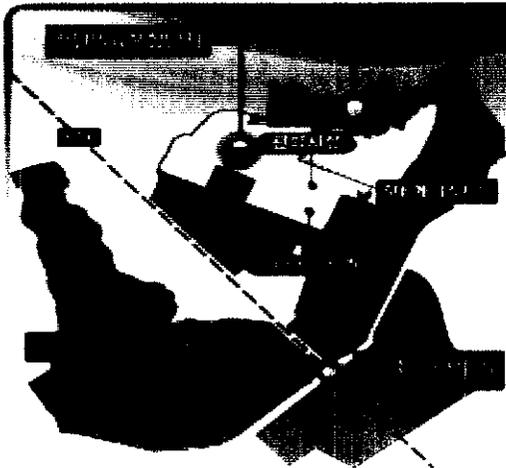
- 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기술 + 생물체의 기능 개량·응용
 - 인류 난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 및 제품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산업
 - 의약, 의료기기, 한방, 화장품, 헬스 등을 총칭
- 세계시장규모는 7,731억불로 메모리 반도체시장의 17배
 - 최근 6년간 8.4% 성장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13년 9,750억불(26%증가), '20년 1조 3천억불(68%증가)
 - 중국, 인도, 싱가포르, 남미 등 신흥개발도상국은 15%이상의 고도 성장추이를 나타냄
- 국내시장('08년기준)은 제약업체 874개사, 총매출액 154억불(세계12위)로써 평균 11%의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내며, 정부는 '16년 바이오 G7 진입을 목표로 함
- 국가 유일 바이오 오송단지는 LG생명과학, CJ제일제당, 신풍제약, 안국약품 등 58개 업체가 입주

□ **충북의 바이오단지 현황**



- **제천한방바이오**
 - 2,496㎡(75만), 왕암동 일원 ('04.12월 준공)
 - 한방바이오산업 R&D 기반구축
 - 한방바이오 고기능제품개발 지원
- **옥천의료기기**
 - 15만㎡, 옥천 가동리 일원('10.9월 준공)
 - 의료기기업체 클러스터 구축
 - 오송바이오밸리와 네트워크(기술, 인력)
- **오송약업바이오**
 - 9,542㎡(289만) 오송일원
 - 세계적 연구타운조성
 - 바이오 문화관광교육도시 조성

□ **바이오밸리 육성전략**



- **첨단의료복합단지**
 - 글로벌 의료연구타운 1,131천㎡(34만)
 - 5개 핵심연구지원기관 (산약 의료기기개발 지원센터 등)
-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 오송1단지 3,499천㎡(106만) 규모
 - ▶ 보건의료행정타운(6대국책기관)
 - ▶ 제약기업(36개), 의료기기기업(18개)
 - ▶ 건강기능성식품기업(4개)
 - 오송2단지, 3,332천㎡(100만)규모
 - ▶ 바이오 교육·의료단지조성, 산학융합거점 대학건립, BT융합대학원 건립, 바이오센트럴 파크조성
- **KTX 오송역세권 개발**
 - 바이오 컨버전스 도시형성
 - 중부권 최대 생활 경제권 유치마크 건설

4-2. 솔라밸리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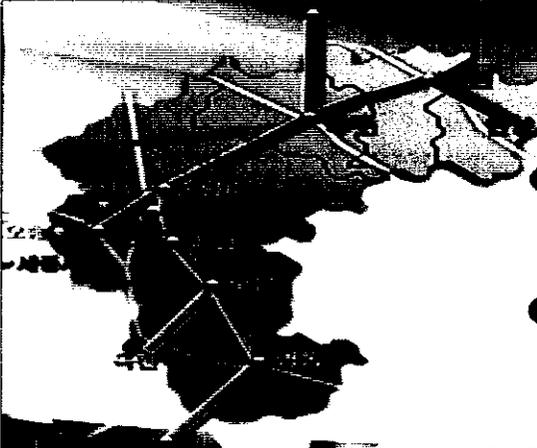
□ **태양광산업의 세계시장 동향**

- 태양광산업 시장규모는 ('10년기준) 361억달러로 '05년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있으며, 연 40%의 성장추세
- 세계의 태양전지 생산규모는 30,500MW이며, 국내 생산량은 1,650MW(세계 5.4%), 충북은 1,000MW(국내 60%)
- '15년 이후 태양광 산업은 평균 23%의 성장을 예상하며, 메모리반도체시장을 추월하며, 미래핵심산업으로 부상

● 추진계획

- 신발전지역위원회 심의 및 국토해양부 지정고시('11.3월)
- 투자·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11.4~12월)
- 기반시설 국비지원 및 민간투자 유치('12년부터)

□ 충청내륙고속도로 조기건설



개요

- 구간 : 제1구간(청주~증평~음성~충주~제천(원주)~단양), 제2구간(영동~옥천~보은~미원~내수)
- 총사업비 : 2조85억원(L=229.1km, 4차로)

필요성

- 세종시, 강원, 전북과 연결, 국토의 X축 완성
- 청주를 중심으로 남부, 북부권을 만나질 생활권으로 유지

추진상황

- 청주~제천(원주)구간 : 기본계획 설계중('10.12)
- 영동~내수 구간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반영 추진중

□ 남북부권 균형발전추진

● 성장거점육성 개요

- 내륙첨단산업벨트 지정(IT·BT·첨단산업) : 7개 시·군
- 백두대간벨트 지정(녹색성장, 관광산업) : 남부3군 + 괴산, 단양
- 중원문화권 특정지역개발 : 충주, 제천, 단양
- 석회석 활용 저탄소 산업(단양), 대청호생태관광사업(보은·옥천)
-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 보은·옥천·영동
- 남부권 등 LNG 조기공급 :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 인프라 구축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 165억원('10년) → 500억원('14년)
- 도청출장소 설치('10 북부, '12남부) 및 물류단지 조성(제천, 영동)
- 원주~제천간 복선전철화 사업
- 동서고속도로(음성~제천) 건설
-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철도 건설
- 경부고속도로 선형개량 및 확장(옥천~영동)

□ 찾아가는 평생복지 구현

- 현장중심의 체감복지 추진
 - 종합사회복지센터 기능강화, 기초생활구급자 급여지원, 장애인 이동세탁소 운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 생태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 영유아 보육료지원 확대, 초중학생 무상급식 실시, 대학생 등록금이자 지원, 노인 일자리 확대
- 도민만족형 평생건강실현
 - 보건의료기관시설 장비보강, 암조기검진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사업,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친환경·고부가치 농업육성

- 농촌활력 창출 범도민운동 전개
 - 사회단체 참여 범도민운동본부 설치 및 농촌 핵심리더 양성
 - 충청북도 농촌마을 대상 시상제 도입 : 매년 5개마을 선정
 - 충북명품 농·축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 사과, 포도, 인삼, 한우 등
- 친환경 농·축산 육성
 - 유기농 푸드밸리 조성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진천·증평·괴산 등 6개소
 - 농필품 지원확대, 축산자재구입 지원
- 녹색산림·생태·휴양자원 확충
 - 백두대간 생태축 조성, 치유의 숲 조성(영동 등 3개소)
 - 탄소저감 산림자원 및 청정 Green 에너지 보급 확대
 - 해양수산물문화체험관 건립

□ 함께하는 문화예술 진흥

- 문화예술 기반 확충
 -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253억원), 도지정예술단 확대 운영, 옛 산성군 세계유산 등재
- 명품관광지 개발
 - 차이나테마파크 조성, 종교유적지 관광자원화, 남한강 목계나루 복원
- 함께 즐기는 평생체육 육성
 - 충북체육진흥기금조성(200억원), 근대5종 훈련장 건립,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
- 함께하는 청정충북건설
 - 환경보전기금 조성(185억원), 양서류 생태관 건립, 생태하천 복원(1,000억원)

4-4. 청주공항 경쟁력 강화(MRO 산업육성 등)

□ 청주공항 여건

● 공항개요

- 주요시설 : 여객·화물터미널, 활주로, 계류장(부지 674만㎡)
- 항공노선 : 국제(정기 4, 부정기 12개 노선), 국내(제주)

● 최근현황

- 공항이용객(1,200만명 수요) 및 화물수요 대폭증가
 - 북경(기존) + 오사카·홍콩·방콕(신규)취항('10.9.1)
 - 개항 이후 4년 연속 100만명 돌파('07-'10년)
 - ※ '10년 국제선 이용객 급증 : 32,201명→132,126명(307%증)
- 활주로 등 기반시설 및 교통인프라 확충 절실

□ 청주공항 경쟁력 강화

● 공항기능 강화

- 국제노선 확대 : 4→6개 노선('11~'14)
-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확대
-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격상 : 제4차 공항개발계획 반영
- 항공정비 시범단지 지정(국토부, '09.12월)
- MRO유망거점지구 선정(지경부, '10.11월)

● 인프라 확충

- 활주로 연장(증 857m) : 3,600m
- 추가 진입로 개설 : L = 900m
- 화물청사 증축 : 18천㎡
- 수도권 전철 청주공항 연장
 - 기존선 56.1km
 - 전용선 37.4km

□ MRO산업 육성전략

● 국내외시장은 항공기 제조산업 발전 및 보유대수 대비 MRO산업 열악

- 항공기 대수('07년→'27년) : 세계(17,660대→34,400대), 국내(196대→527대)
- 국내 항공사 엔진정비(75%)·기체중정비(53%), 해외 아웃소싱

● 우수한 기술력과 증거가 정비료로 세계시장 변화 주도 필요

- 국내 민수분야 MRO 지출액 451억불('08년), 연평균 4.3% 성장예상

- MRO산업 정착시 6조6천억원 파급효과, 17,500명 고용창출 전망

● 항공정비(MRO)단지 및 항공복합단지 조성

● 항공정비(MRO) 단지조성

- 기간·위치 : '10 ~ '20년 청주공항주변지역
- 규모 : 356천㎡(11만) → 1부지(151천㎡), 2부지(205㎡)
- 입주대상 : 기체중정비업체, 부품정비업체
- 추진절차 : 입주수요 확보 → 실사실계 → 기반시설 확충 → 분양

● 항공복합단지 조성

- 기간·위치 : '10 ~ '20년 청주공항주변지역
- 규모 : 1,060천㎡(32만)
- 입주대상 : 부품정비생산, R&D센터
- 추진절차 : 개발계획수립 → 신단지정 개발 → 분양

제4장

5대부문

- 1. 찾아가는 평생복지**
- 2. 살맛나는 서민경제**
- 3. 농촌도시 균형발전**
- 4. 창의적인 문화예술**
- 5. 참여하는 열린도정**



I. 찾아가는 평생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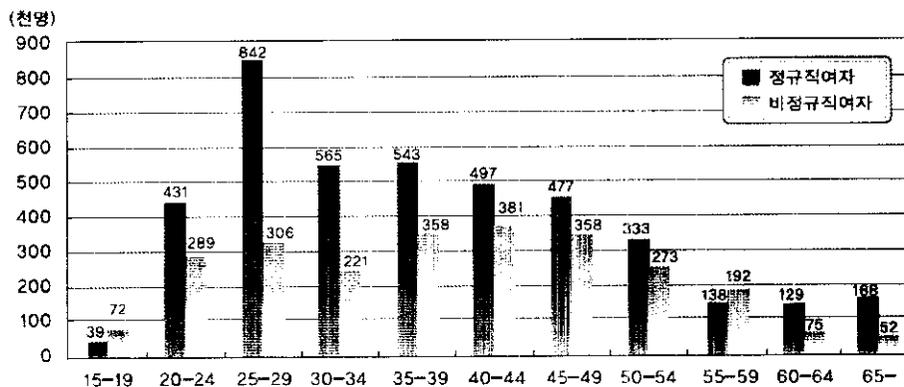
I. 찾아가는 평생복지

추진 목표

- ◆ 시니어클럽 확대설치 및 지원 ' 10년 7개소 → ' 14년 10개소
- ◆ 영육아 무상보육 단계적 실시 : ' 10년 70%이하 → ' 14년 만5세이하 100%
- ◆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 환경조성

- 적극적 일자리 창출에 의한 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마련
 - 빈곤층위주의 선별적 복지에서 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 계층별 안전망을 형성하여 누구나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있는 평생복지를 구현(충북개발연구원, 2010, 충북Issue & Trend)
 - 소득이전을 통한 사후적 결과의 평등보다는 적극적인 의미의 기회균등으로써 직업교육과 일자리 제공을 추구 등 시혜적, 사후적 복지에서 능동적, 예방적 복지로 전환
 - 취약계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시설·서비스 형태 및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여 수요와 공급간 불일치 등 비효율성 존재
 - 국공립보육시설은 2009년 총 1,917개소로 전체 보육시설의 5.4%에 불과(보건복지가족부, 「보육통계」, 2009)
 -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의무이행율이 2005년 27.5%에서 2009년 6월 63.1%로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은 2006년 25.7%, 2007년 32.0%, 2008년 34.0%, 2009년 6월 35.8% 등 낮은 수준 지속(노동부, 2009)
 - ※ 충북도내 국·공립보육시설 5.5%, 법인보육시설 4.4%, 민간보육시설 42.6%, 부모협동시설 0.2%, 가정보육시설 46.3%, 직장보육시설 1.0%로 나타나 민간 보육시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충북보육정보센터, 2009. 3.31)
- 베이비 부머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 현 노인세대와 비교해 훨씬 규모가 큰 인구집단(712만명, 총인구의 14.6%)이며, 교육수준·건강상태·육구 등 제반특성이 매우 상이한 베이비 부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1980년 3.8%에 불과하였으나, 2050년은 38.2%로 '70년간 3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통계청, 2011, 한국의 사회지표)
- 2010년에는 10가구 중 1가구가 독거노인 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통계청, 2010)
 - ※ 독거노인 가구 '10년 1,021,008가구, '00년 543,522가구(통계청, 2010)
-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확립
 -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다양한 사회참여제공, 노후의료보장 내실화, 노인권익증진 등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
 -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근로 기회제공 및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자활서비스 지원으로 탈빈곤 촉진
- 가족의 해체 혹은 가족구조의 유연성 강화
 - 가족주의 약화와 동거와 독신, 만혼과 비혼, 무자녀 가족의 증가를 대표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수 감소 및 1인 가구의 수 증가 추세
 - ※ 1인가구 수 및 구성원(통계청, '07) : '07년 329만 8천가구(20.1%) → '10년 347만 3천 가구(20.3%) → '20년 410만 9천가구(21.6%)
-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 노령기의 건강행태개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확대,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체제를 구축
 - 고령화 될수록 유병율 및 진료비 증가(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 ※'03년~'08년 사이 64세이하 유병률은 8.9%증가, 65세이상은 18.8%증가
 - ※'03년~'08년 사이 64세이하 피보험자 1인당 진료비는 평균 년62만원, 65세이상은 평균 256만원으로 약4배증가
-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 환경조성
 - 여성근로자 연령별 근무형태 현황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08. 8);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여성부: 2007)
=> 요람에서 무덤까지 충북 지역의 평생복지 기반 구축

도민을 찾아 섬기는 평생복지

취약계층
자립기반 마련

출산에서
노후까지
평생복지 구현

도민이
만족 하는
평생 건강 실현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 환경조성

함께하는 사회계층 지원미흡

사회취약계층에 선제적 미래대응

소극적인 사랑과 나눔

사랑과 나눔의 사회통합

예방적 의료체계 및 지역간 불균형

의료서비스 지역간 형평성 제고

일과 가정 양립 미흡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 취약계층 자립기반 마련
 - 함께하는 지역복지기반 조성,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다문화가정 감동복지실현
- 출산에서 노후까지 평생복지 구현
 - 장애인 자립여건 조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동·보육 서비스 제공, 건강한 노후복지
- 도민이 만족하는 평생건강 실현
 - 의료안전망 확보, 의료서비스 향상, 한의약 산업 육성
-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 환경조성
 - 참여와 자율의 여성정책 추진, 여성이 일하기 좋은 문화 확산,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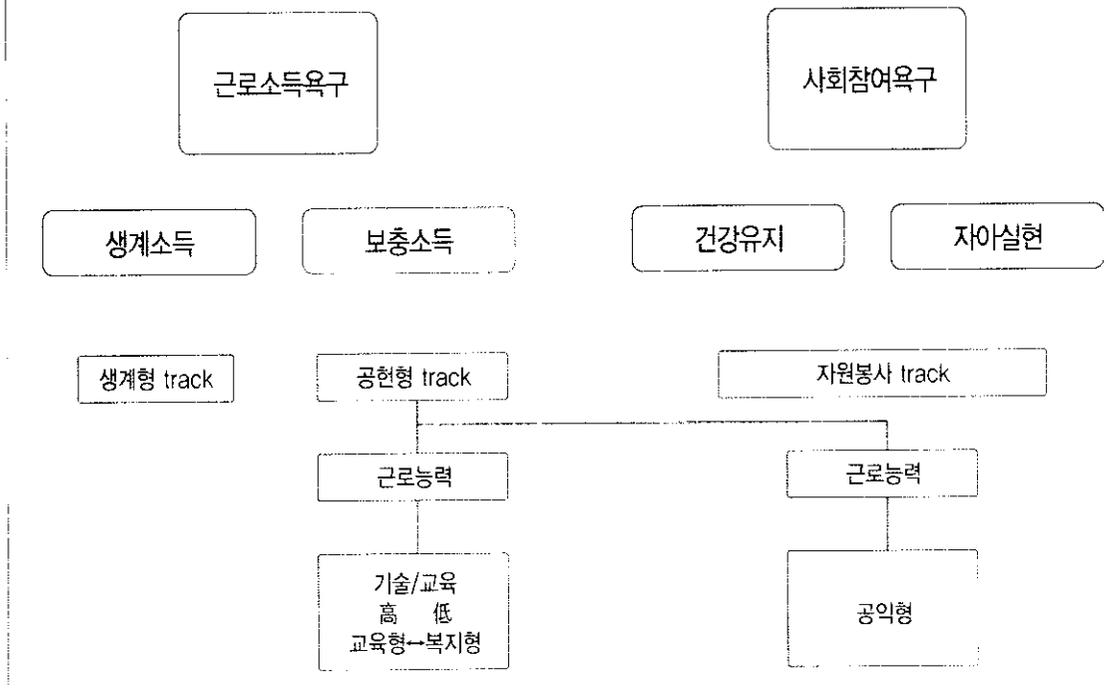
1. 취약계층 자립기반 마련

추진 목표

- ◆ 지역맞춤형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 ' 10년 51개사업 72억원 →
' 14년 60개사업 125억원
- ◆ 다문화여성의 사각지대 없는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계획수립

- 지역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모든 도민이 함께 잘사는 선진국형 복지사회를 구현
- 전통적 가족관계 해체, 가족간 유대 약화, 고령화, 빠른 도시화와 함께 지역커뮤니티의 유대감과 친화성이 저하되면서 취약계층이 증가
 - 사회변화에 따라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확대
- 소득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를 추진함으로써 일부 정책의 경우 체감도가 미약함
 - 노인보건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후적 접근방식 뿐만 아니라 향후 가까운 시일내에 노년기에 접어들 중고령층에 대한 사전예방적 정책적 접근이 미흡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노인의 욕구충족이 가능한 사회통합을 제고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활기찬 노인생활기반확립을 추구
 - 공공분야 일자리 확충 및 사회 공헌형 일자리의 내실화를 위해 급여수준 및 참여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안전하고 활기찬 노인생활기반 확립
 - 노인들의 삶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체계 구축을 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영위와 사회통합을 제고
 -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중 5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년 19.4%로 '00년 15.2%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가고 있음(통계청, 2010, 「경제활동인구연보」)
 - 55세 이상 인구의 산업별 취업자 비율을 보면 '농림어업'은 '10년 40.6%에서 '10년 23.3%로 감소하였으나, 'SOC 및 기타'는 '10년 67.1%로 계속 증가추세임
 - 노인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다양한 사회참여, 노후의료보장 내실화, 노인권익 증진 등 고령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로 자립기반 조성이 시급하나 협력시스템 기반은 미흡
 -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시니어클럽 간의 연계와 노인 복지단체, 노인복지관 등 유관 단체와 협력 시스템 구축 및 일자리 수요와 공급 파악을 위한 통합정보망 구축
 -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례관리 및 사업지원체계 총괄흐름

접수면접 및 욕구사정



-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내국인의 부정적 인식이 미흡하며, 한국국민의 다문화 수용정도가 미흡한 수준임
 - 다문화 가정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자녀 한글교육 및 한국문화교육방법에 대한 지원강화
- 다문화 가족 및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 국제결혼의 체계적 관리 및 결혼 이미지 조기적응지원 강화 및 다문화가족 영육아의 언어·학습·정서발달 지원 확대

1-1-1 함께이는 지역복지기반 조성

- 사회복지시설 및 인력 인프라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절한 시행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확충이 필요함
 - 이러한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사회복지를 담당할 인력의 지속적인 충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이 요구됨
 - 취약계층위주의 선별적 복지에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변화·확대될 것이며, 생활시설보다 이용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후대비가 부족하고 가족의 부양의식의 약화로 인한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자까지 포함한 적합한 일자리 창출

1-1-2 저소득층 자립지원

- 취약계층의 에너지 빈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녹색에너지 보급
 - 사회적 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실태 관련 통합DB를 구축, 수혜 대상자의 범위와 최소 에너지기준 설정 등으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
- 가정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한부모 및 조손가정 지원사업
 - 사회양극화의 심화와 가족의 다양화 진전으로 한 부모가정 및 조손가정이 급증하고 있어 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

1-1-3 다문화가정 공동복지실현

- 다문화가정의 인권·교육·취업·양육·자녀교육·가족관계·역량강화
- 외국인 근로자외에 결혼이민자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로인해 주민과 다문화 가정간의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 함
 - 다문화 가정을 위한 법적 상식, 언어서비스, 양육정보 등을 제공하여 한국사회에 조속한 시일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공급자 중심의 일회적, 중복적 서비스 지원이 아니라 종합적인 수요자 중심의 장기 계획 설정, 실행

1 취약계층 자립기반 마련

1-1-1) 함께하는 지역복지기반 조성

도 종합사회복지센터의 발전적 운영개선 (1-1-1-1)

▶ 추진목표 :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연구·조사 및 시군 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사업개요

- 센터의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 사회복지분야 학식과 경륜 소유자(사회복지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사회복지 정책 연구, 프로그램 개발 기능 활성화
- 센터의 발전적 운영개선을 위한 도비보조금 지원 확대
- 센터의 기능 강화
 - 현장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현장 이슈에 대한 정책연구 강화
 - 정보교류, 네트워크 형성, 컨설팅 실시 등 복지시설 지원 강화
 - 매년 센터의 운영에 관한 평가 실시

● 추진계획

- 2011 :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및 사회복지조직 컨설팅 실시
- 2012 :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한 자체사업 개발
- 2013 : 각종 연구·조사 및 시군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정책개발·자문 및 교육·연구, 사회복지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 추진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후
계	21.8		21.8	3.7	3.7	4.2	5.1	5.1	
국 비									
도 비	21.8		21.8	3.7	3.7	4.2	5.1	5.1	
시군비									
기 타									

● 기대효과

- 민간사회복지 자원의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수준 향상
- 국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에 관한 전문성 제고로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시니어클럽 확대 설치 및 지원 (1-1-1-2)

▶ 추진목표 : ('10년) 7개소 → ('14년) 10개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4년

- 사업내용

- 2013년까지 설치가능(installable)지역 중 매년 1개소 시니어클럽 설치
-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시니어클럽 간의 연계와 노인 복지단체, 노인 복지관 등 유관 단체와 협력 시스템 구축
- 노인 일자리 수요와 공급 파악을 위한 통합정보망 구축

● 추진계획

- 2010년 : 시니어클럽 확대 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
- 2011년 : 시니어클럽 1개소 설치(7개소→8개소) 및 미설치 지역 설치 권고 노인일자리수행기관 협력시스템 구축 논의 및 기반마련
- 2012년 : 시니어클럽 1개소 설치(8개소→9개소) 및 미설치 지역 설치 권고 노인일자리수행기관 협력시스템 구축
- 2013년 : 시니어클럽 1개소 설치(9개소→10개소), 협력구축시스템 구축
- 2014년 : 노인일자리 수요와 공급 파악을 위한 통합정보망 구축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 후
계	6.0		6.0		2.0	2.0	2.0		
국 비									
도 비	1.5		1.5		0.5	0.5	0.5		
시군비	4.5		4.5		1.5	1.5	1.5		
기 타									

● 기대효과

- 민간분야 일자리 등 지역특화형 노인일자리 전문성 확보
- 노인일자리 전문수행기관으로서 민간분야 일자리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

사회복지시설 인력처우 개선 (1-1-1-3)

▶ 추진목표 : ('10년) 515억원 → ('14년) 596억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 2014년
- 사업내용
 -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
 - 종사자 처우개선비(대우수당) 점진적 인상
 - 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통일안 마련
- 총사업비 : 2,769억원

● 추진계획

-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 매년 3%내외 인상 추진
 - 종사자 처우개선비(대우수당) 점진적 인상 추진
 - 전국 중위권 수준으로 조정(2012, 2014년 2회 인상)
- ※ (현행) 월 120~140천원 → (조정) 월 140천원~160천원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 후
계	2,769	-	2,769	515	538	552	568	596	-
국 비	90		90	17	18	18	18	19	
도 비	494		494	88	94	98	103	111	
시군비	1,182		1,182	219	229	236	243	255	
기 타	1,003		1,003	191	197	200	204	211	

● 기대효과

- 경험과 능력이 우수한 복지전문인력의 이직 저감
- 시설 종사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복지서비스 질 향상

한국자활연수원 건립유치(11-1-1-4)

▶ 추진목표 : 자활연수원 건립유치('11~'14)

● 사업개요

- 목 적

- 전국 자활센터 직원 및 참여주민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설립 필요
- 한국자활연수원을 유치하여 우리 도가 자활사업의 선도역할 담당

- 기 간 : 2011 ~ 2014년

- 위 치 : 충주시 수안보 일원

- 사업비 : 153억원(국비 100%)

- 건립용역비 3, 시설건립비 150

- 주요내용

- 자활연수원 건립 및 부대시설(웰빙마을, 야외실습장 등) 설치
- 자활 관련 전문 지식, 인성교육, 실무기술 습득 교육장 건립

● 추진상황

- '10.7월 : 도, 충주시, 충주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 협의 및 사업계획안 작성
- '10.7월 : 중앙자활센터에서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안 제출
- '10.12월 : '11년도 예산 반영(용역비 3억원)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후
계	153				3	50	50	50	
국 비	153				3	50	50	50	
도 비									
시군비									
기 타									

● 향후계획

- 2011년 복지부 용역결과에 따라 구체적 사업계획 결정 예정
- 우리 도(충주) 유치를 위한 당위성 등 논리 개발과 정치권 및 유관기관과 협력 관계 유지

| -1-2)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자활(장애인) 생산품 전시회 및 판매의 날 운영(1-1-2-1)

▶ 추진목표 : ('10년) 2회 → ('14년) 12회

(1) 자활(장애인) 생산품 전시회

● 사업개요

- 일시/장소 : 2011. 9월중 / 단양
- 참여대상 : 지역자활센터 및 충북장애인직업재활협회 등
- 사업방법 : 자활다짐대회와 합동 개최
- 전시품목 : 농산물, 가공식품류, 봉제품 등

(2) 판매의 날 운영

● 사업개요

- 장 소 : 시군 주요기관·단체 및 전통시장
- 횟 수 : 연 12회
- 사업내용 : 지역 순회 방문을 통한 자활생산품 홍보 및 판매
장애인생산품 정보제공 및 판촉홍보물 제작

● 추진계획

- 매년 1월 : 시·군 및 지역자활센터와 일정 협의
- 매년 4~12월 : 희망나눔 이동장터 운영(시군별 순회)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 후
계	3.7		3.7	0.4	0.5	0.6	0.7	0.7	0.8
국 비									
도 비	2.7		2.7	0.3	0.4	0.5	0.5	0.5	0.5
시군비									
기 타	1.0		1.0	0.1	0.1	0.1	0.2	0.2	0.3

● 기대효과

- 자활생산품 홍보 및 판매 활성화로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1-1-2-2)

▶ 추진목표 : ('10년) 51개 사업 72억원 → ('14년) 60개 사업 125억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년~
- 기간 : 연 중
- 주 관 : 12개 시군
- 사업량 : 51개 사업, 72억원('10년도)
 - ↳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 선정
-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자(아동, 노인, 장애인 등)
- 사업내용 : 지역특성·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발굴하여 지원
 - ※ 사회서비스 :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 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등을 포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추진계획

- 매년 12월 : 사업계획 공모(보건복지부)
- 매년 1~2월 : 사업 심의 및 확정(보건복지부)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 후
계	674		674	72	112	115	120	125	130
국 비	476		476	53	79	81	84	88	91
도 비	60		60	6	10	10	11	11	12
시군비	138		138	13	23	24	25	26	27
기 타									

● 기대효과

- 여성, 청년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수요자 중심 복지전달체계(바우처 방식)로 도민의 삶의질 향상

사회적 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사업(1-1-2-3)

▶ 추진목표 : ('10년) 0 → 168가구 ('14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 사업내용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 태양광, 태양열 설치시 도비 일부지원
- 소요예산 : 37억원 (국비19, 도비8, 시군비8, 기타2)

● 추진계획

- 지금까지 추진현황 : 신규사업
- 향후 추진계획
 - 2011년 : 42가구 보급
 - 2012년이후 : 126가구 보급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 후
계	37		37		9.5	9.5	9.5	8.5	
국 비	19		19		5	5	5	4	
도 비	8		8		2	2	2	2	
시군비	8		8		2	2	2	2	
기 타	2		2		0.5	0.5	0.5	0.5	

● 기대효과

-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 사용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로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 구현
- 우리 도내 태양광 관련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한부모 및 조손가정 지원 확대(1-1-2-4)

▶ 추진목표 : ('11년) 4,008세대 → ('14년) 6,085세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4년
- 사업대상 : 한부모가족(4,008세대 10,573명), 조손가정(609세대 1,300명)
- 주요내용
 - 한부모 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 지원
 - 한부모자녀 만12세 미만 아동양육 및 교육비 지원 현실화
 - 한부모가족 겨울철 난방비 및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 총사업비 : 236억원(국비 138, 도비 30, 시군비 68)

● 추진계획

- 모자보호시설 신축 이전(청주 사천동→월오동) : 지상4층(1,939㎡ 30세대)
 - 2011년 6월말 입주예정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및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양육비 월 50천원/1인, 입학금·수업료 전액
- 겨울철 난방비 및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확대
 - 난방비 월50천원/4개월, 수학여행비 100천원/1인당
- 한부모 복지시설 운영비 및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비 지원 : 3개소
 - 모자보호시설(성가마을), 모자자립시설(상록수), 미혼모자시설(자모원)
- 청소년한부모 자활자립 지원
 - 양육비 월 150천원, 자립활동촉진수당 월100천원, 검정고시비 1,540천원 등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 후
계	236.2	236.2		45.5	62.1	63.4	65.2	
국 비	138.5	138.5		24.3	37.2	38	39	
도 비	30.0	30.0		6	7.8	8	8.2	
시군비	67.7	67.7		15.2	17.1	17.4	18	
기 타								

● 기대효과

- 취약가족 지속지원으로 가족해체 예방 및 건강한 가정과 삶의질 향상

1-1-3) 다문화가정 감동복지실현

다문화가족 지원 중장기발전계획(1-1-3-1)

▶ **추진목표 : ('11년) 다문화가족 지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4년
- 사업내용 : 결혼이민여성, 가족관련 사업의 장기비전 및 정책목표 명확화
 - 인권-교육-취업-양육-자녀교육-가족관계-역량강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장기 계획 필요
- 소요예산 : 6.3억원

● **추진계획(추진일정, 향후계획)**

- 지금까지 추진현황 : 없음
- 향후계획
 - 2011년 : 중장기발전계획 작성
 - 2012 ~ 2014년 : 중장기발전계획의 단계적 적용
- 추진체계 : 충청북도, 시·군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 후
계	6.3	6.3		0.3	2.0	2.0	2.0	
국 비								2차조사 및 계획
도 비	6.3	6.3		0.3	2.0	2.0	2.0	
시군비								
기 타								

● **기대효과**

- 중앙정부 복권기금사업으로 수행되는 결혼이민여성 관련 사업의 예산지원 중단에 대비, 자체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자체적 조사, 장단기 계획 수립으로 지역 맞춤형 지원 가능

2. 출산에서 노후까지 평생복지 구현

추진 목표

- ◆ 중증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센터 운영 ' 14년 10개소
- ◆ 도내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제고 ' 11년 70%→' 14년 85%
- ◆ 노인장기요양보험 미이용자 복지서비스 ' 14년 100%

- 평생복지구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단계별 평생복지 지원과 다양한 정책 수혜 계층을 포괄하는 자활 및 자립지원정책 등 평생복지 정책을 지역주민 모든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선천성 장애의 상당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반면, 후천성 장애의 비율이 90%를 차지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2009년 12월 기준으로 등록장애인 수는 2,429,547명중 남성이 1,425,896명(58.7%), 여성은 1,003,651명(41.3%)를 나타냄(통계청, 2010, 통계연보)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충
 - 도시지역 고령화 지수는 '90년(3.6%), '00년(5.5%), '05년(7.2%)로 고령화사회화 사회에 진입, 반면에 농촌지역은 '90년(9%), '00년(14.7%), '05년 18.6%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통계청, 2010 장래인구추계)
 - 노인인구의 비율은 장기요양서비스 욕구와 비례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는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에 집중하고 있으나,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 지역에 집중적으로 확충이 필요
- 치매노인의 증가추이 및 전망

(단위: 천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30년	2050년
65세 이상 인구수	5,193	5,357	5,537	11,811	16,156
65세 이상 치매노인수	445	469	495	1,135	2,127
치매유병률(%)	8.58	8.76	8.94	9.61	13.2

자료: 보건복지부, 「2008년 전국치매유병률조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 중증 치매환자 등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맞춰 노인요양시설 등 인프라 확충

- ※ ('09) 8만 → ('10) 9만 → ('11) 10만 ('12) 11만 →('13) 12만 병상
- 요양보험 미적용 경중 노인을 대상으로 예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능상태 악화 방지(보건복지부, 2009,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05) 1.3% → ('10) 6.3%,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 ('05) 14.2% →('10) 70.0%
- 노년기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
- ※ 치매 총 진료비는 561억원('02년) → 1,306억원('05년) → 3,268억원('07년)으로 급증함
- 장애인 복지일자리 확대
 - 장애인의 2005년과 2008년의 경제활동상태를 비교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38.2%에서 41.1%로, 실업률은10.6%에서 8.3%로, 고용률은 34.1%에서 37.7%로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나쁜 상태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경험을 갖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전이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장애인 능력개발 기회 확대, 사업주 지원제도 개편, 고용의무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가족의 육아부담 해소
 - ※'09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평균 1.15명, '10년 1.26명(통계청, 2010)
 - 일과 가정의 양립은 부모가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가족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임
- 다양한 보육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등을 적극 도입
-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활동을 촉진하여 노인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치료·요양 지원체계 강화
 -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사전예방 위주의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
 - 일상생활에 상당한 기능장애를 지닌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개인 및 가족의 부담 완화

1-2-1 장애인 자립여건 조성

- 장애인의 삶의 질을 고려한 지역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장애인재활시책 추진을 위한 장애인재활 중장기계획 수립
 - 장애인이 근로자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에게 교육훈련 정보를 제공하며, 소득보장의 욕구가 강한 저소득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확대
-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지역장애인의 취업기회 제공을 고려한 자립여건 조성을 위한 농촌형 직업재활시설 설치
 - 재가장애인을 위한 농촌지역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여건을 조성
-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센터 운영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함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확대로 사회참여확대 및 자립을 저해하는 사회환경적 장애요소 해소함

1-2-2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동·보육서비스 제공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취약 보육시설 지원 확대
 -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른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녀양육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대상별·지역성을 고려한 보육시설 개선 및 확대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
 - 영유아 보육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보육시설을 확충하며, 취업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정립하도록 양육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
 - 영유아 성장에 따라 보육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됨으로 바람직한 보육환경 제공, 개별적 특성과 발달 수준에 적합한 보육환경 제공
- 보육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보육시설 평가인증기관 인증율을 제고를 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향상 과 만족도 제고

1-2-3 건강한 노후복지

- 제도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노인의 돌보미 서비스로 건강한 노후복지 보장
 - 치매노인 및 치매노인 가정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노인의 공익적 일자리 참여로 경제활동 및 지역사회동참에 의한 자존감을 향상,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학대노인의 심신회복을 도모하고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 학대행위자를 비롯한 가족들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

2 출산에서 노후까지 평생복지 구현

1-2-1) 장애인 자립여건 조성

인선5기 충북장애인 재활사업 중장기계획 수립(1-2-1-1)

▶ 추진목표 : ('11년) 1식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2. ~ 10월
- 사업목표 : 지역특성에 맞는 장애인재활 중장기계획 수립시행으로 체계적인 장애인재활 시책 추진
- 용역추진 : 장애인재활 전문기관에 의뢰
- 사업내용
 - 장애인재활 발전방향 및 사업별 목표 추진전략, 문제점 도출
 - 직업재활사업 효율 극대화를 위한 집행과 관리, 발전 방향 등

● 추진계획

- '11. 2~3월 : 용역 수행계획 수립
- '11. 4월 : 용역 발주
- '11. 5~9월 : 용역시행
- '11. 10월 : 용역완료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 후
계	0.3		0.3		0.3				
국 비									
도 비	0.3		0.3		0.3				
시군비									
기 타									

● 기대효과

- 충청북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장애인재활 장기계획 수립
- 장애인재활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1차산업을 이용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1-2-1-2)

▶ 추진목표 : ('10년) 0개소 → ('14년) 1개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 2013년
- 설치개소 : 1개소
- 근로인원 : 30명
- 시설규모 : 잡업장 및 사무실 등
- 총사업비 : 980백만원(국비 260, 지방비 720)
- 사업내용
 - 자연농업, 시설채소, 조경수재배, 화훼, 가축사육
 - 시설 신축 및 작판장 설치 등

● 추진계획

- 2011년 : 직업재활시설 승인신청, 국비 보조금 신청
- 2012~2013년 : 시설신축(숙소, 축사, 사무실 등)
- 2013년 : 직업재활시설 운영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 후
계	9.8		9.8			5.2	2.3	2.3	
국 비	2.6		2.6			2.6			
도 비	4		4			2.6	0.7	0.7	
시군비	3.2		3.2				1.6	1.6	
기 타	0		0						

● 기대효과

- 농·축산분야 직업재활시설 설치로 농촌지역 장애인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 장애인의 다양한 적성과 신체조건 수용 및 치료효과에 기여

중증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센터 운영(1-2-1-3)

▶ 추진목표 : ('10년) 0개소 → ('14년) 10개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사업목표 : 중증장애인에게 수작업에 관련된 훈련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소일거리 제공
- 사업량 : 8개소(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음성, 단양)
- 사업주관 : 시군 장애인복지관
- 사업내용
 - 작업준비훈련, 작업활동공간 마련, 수작업프로그램 개발
 - 일자리 현장체험 및 견학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손쉬운 일감 만들어주기

● 추진계획

- 1 ~ 2월 : 사업계획서 제출(복지관 ⇒ 시군 ⇒ 도)
- 3 ~ 12월 : 사업추진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후
계	41		41		2	9	9	10	11
국비									
도비	20.5		20.5		1	4.5	4.5	5	5.5
시군비	20.5		20.5		1	4.5	4.5	5	5.5
기타									

●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에게 소소한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증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 가치 실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1-2-1-4)

▶ 추진목표 : ('10년) 4개소 → ('14년) 8개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4
- 규 모 : 현재 4개소 → 8개소까지 확대(4개소 추가 지원)
- 주요기능 : 활동보조 및 이동서비스, 정보제공, 자립생활기술훈련 등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
- 사업주관 : 시장·군수(비영리민간단체)

● 추진계획

- 2010년 : 현 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지원체제 유지
- 2011~2014년 : 매년 1개소씩 추가 지원
- 2015년 : 8개소 센터 운영비 지원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 후
계	27		27	4	5	5.5	6	6.5	
국 비	6.0		6.0	1.20	1.20	1.20	1.20	1.20	
도 비	8.7		8.7	1.04	1.54	1.79	2.04	2.29	
시군비	12.3		12.3	1.76	2.26	2.51	2.76	3.01	
기 타									

● 기대효과

-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동참 분위기 조성
- 자립생활센터의 체계구축을 통한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성 회복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1-2-1-8)

▶ 추진목표 : ('10년) 333명 → ('14년) 630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 2014
- 사업목표 :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직업생활 및 사회 참여 경험을 제공하는 공공형 일자리
- 사업량 : 478명
- 사업주관 : 12개 시·군
- 사업내용
 - 건강도우미, D&D케어, 동료상담, 주차단속 보조요원 등
 - 장애인 등록업무 등 시·군 특성에 맞는 행정업무 보조

● 추진계획

- 장애인 복지일자리 : 1~9월
- 장애인 행정 도우미 : 1~12월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 후
계	144		144	16	22	25	27	27	27
국 비	73		73	8	11	12	14	14	14
도 비	21		21	2	3	4	4	4	4
시군비	50		50	6	8	9	9	9	9
기 타									

● 기대효과

- 장애인들에게 생산적·복지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증대 도모
-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기회가 없었던 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 제공

장애인 이동세탁소 운영(1-2-1-6)

▶ 추진목표 : ('10년) - → ('14년) 1,000가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4
- 사업량 : 1,000가구 (세탁차량 1대)
- 사업주관 :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회장 남상래)
- 사업내용 : 시군 순회 장애인가정 방문 의류 및 이불 세탁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2011. 1 ~ 2월 : 홈페이지 구축, 홍보 등 사업추진 기반 조성
- 2011. 2 ~ 2014 : 시군 순회 이동세탁소 운영 (지역별 정기적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 후
계	2		2		0.4	0.4	0.4	0.4	0.4
국 비									
도 비	2		2		0.4	0.4	0.4	0.4	0.4
시군비									
기 타									

● 기대효과

-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가정의 가사부담 경감 및 청결 제고로 질병예방

1-2-2)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동·보육 서비스제공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취약 보육시설 지원 확대(1-2-2-1)

▶ 추진목표 : ('10년) 47개소 → ('14년) 67개소(증 20개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4년
- 사업내용 : 공급부족지역에 국공립시설 20개 추가설립, 취약보육 선도적 실시, 신축 및 대체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장애전담신축
- 소요예산 : 38.5억(국비 19.3, 도비 9.6, 시군비 9.6)

● 추진계획

- 2011년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3개소 (신축 2, 공동주택 리모델링 1)
 - 사업비 : 921백만원 (신축 396백만원x1개소, 475백만원x1개소, 리모델링 50백만원x1개소)
- 2012년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6개소 (신축 2, 공동주택 리모델링 4)
 - 사업비 : 992백만원 (신축 396백만원x2개소, 리모델링 50백만원x4개소)
- 2013년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5개소 (신축 2, 공동주택 리모델링 3)
 - 사업비 : 942백만원 (신축 396백만원x2개소, 리모델링 50백만원x3개소)
- 2014년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6개소 (신축 2, 공동주택 리모델링 4)
 - 사업비 : 992백만원 (신축 396백만원x2개소, 리모델링 50백만원x4개소)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 후
계	38.5		38.5		9.2	10	9.3	10	-
국 비	19.3		19.3		4.6	5.0	4.7	5.0	-
도 비	9.6		9.6		2.3	2.5	2.3	2.5	-
시군비	9.6		9.6		2.3	2.5	2.3	2.5	-

● 기대효과

- 국공립시설 확대를 통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도내 보육시설 평가인증률 제고(1-2-2-2)

▶ 추진목표 : ('11년) 70% → ('14년) 8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4년
- 사업내용 : 평가인증통과시설 인센티브지원, 조력강화
- 소요예산 : 16억원(도비 50, 시군비 50)

● 추진계획

- 사업량 : 평가인증통과기관 : 2010년 현재 충북 64.1%
- 사업내용 : 평가인증통과시설 인센티브지원, 조력강화
- 지원기준 : 보육정보센터 조력비 1,000만원 / 년
신규평가인증통과시설 개소당 200만원
- 향후계획 : 재평가인증시설 지원

연도	'08년~'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시설수	평가인증통과 시설 : 665	신규시설: 100 재인증시설: 100	신규시설: 100 재인증시설: 50	신규시설: 100 재인증시설: 50	신규시설: 100 재인증시설: 50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후
계	16	-	16	-	4	4	4	4	재 평가 인증 시설 지원
국비									
도비	8	-	8	-	2	2	2	2	
시군비	8	-	8	-	2	2	2	2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자료(2010. 11월 현재)

● 기대효과

- 보육시설의 평가인증률 제고로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

문헌위 드림스타트 사업 확충(1-2-2-3)

▶ 추진목표 : ('11년) 8개소 → ('14년) 12개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4년
- 사업내용

- 취약지역 거주하는 임산부 및 0-12세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밀착형 서비스가 필요한 빈곤층 취약아동에 대한 집중관리가 미흡하여 보건, 복지, 교육의 통합적 조기개입서비스를 통한 사례관리가 요구됨

- 소요예산 : 122억원(국비) * 개소당 3억원

● 추진계획

- 지금까지 추진현황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진천군에 1개소 씩 운영 중
- 향후계획

- 2011년 : 청원군, 영동군, 단양군 설치
 - 2012년 : 옥천군, 증평군 설치
 - 2013년 : 보은군, 괴산군 설치
 - 2014년 : 지속 운영

- 추진체계 : 충청북도, 해당 시·군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 후
계	122	122	0	22.0	29.0	35.0	36.0	
국 비	122	122	0	22.0	29.0	35.0	36.0	
도 비	-	-	-	-	-	-	-	
시군비	-	-	-	-	-	-	-	

● 기대효과

- 빈곤취약가정 아동에 대한 집중적 예방서비스로 빈곤 대물림 예방

통합적인 아동보호체계 구축(1-2-2-4)

▶ 추진목표 : ('10년) 3개소 → ('14년) 3개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 2014년
- 사업규모 : 3개소(충북·남부·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 주요내용 : 24시간 긴급전화 운영(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및 피해아동 상담·치료·보호, 학대행위자 상담, 교육 등

● 추진현황

- 사업량 : 3개소(충북·남부·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 : 6개시군(청주, 청원, 증평, 진천, 괴산, 음성)
 -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 : 3개시군(보은, 옥천, 영동)
 -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 : 3개시군(충주, 제천, 단양)
- 사업내용 : 24시간 아동학대 긴급전화 운영(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 보호), 피해아동 상담·치료·보호, 학대행위자 상담, 교육 등
- 지원내역 : 인건비, 격무수당, 운영비, 사업비
- 총사업비 : 52억원(분권 30%, 도비 70%)

● 향후계획

-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24시간 긴급전화 운영 및 피해아동·학대자 상담·치료·교육 등
- 아동학대예방 이동차량 및 프로그램 강화, 전문인력 보강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 후
계	62	10	52		11	12	14	15	
국 비									
도 비	39.4	3	36.4		7.7	8.4	9.8	10.5	
시군비									
분권교부세	22.6	7	15.6		3.3	3.6	4.2	4.5	

● 기대효과

- 학대 및 방임 피해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 효과성 제고

영유아 무상보육 단계적 실시(1-2-2-5)

▶ 추진목표 : ('10년) 70%이하 → ('14년) 만5세아 10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 2014년
- 주요내용 : 0세부터 만5세까지 무상보육 실시
 - ※ 도 재정 여건을 감안, 2014년 만5세부터 단계적 추진
- 사업비 : 6,396억원

● 추진계획

- 2010년
 - 보육시설 이용시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자녀 보육료 차등지원
 - 보육시설 이용 장애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1,124억원)
- 2011년
 - 보육시설 이용시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자녀 보육료 전액지원
 - 보육시설 이용 장애아동 및 다문화 가정 아동 무상 보육료 지원 (1,220억원)
 - 저소득층 무상보육 실태 점검 분석
- 2012년
 - 보육시설 이용시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자녀 보육료 전액지원
 - 보육시설 이용 장애아동 및 다문화가정 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1,257억원)
- 2013년
 - 보육시설 이용시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자녀 보육료 전액지원
 - 보육시설 이용 장애아동 및 다문화가정 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1,295억원)
 - 무상보육(만5세) 대상인원파악 및 예산 반영
- 2014년
 - 보육시설 이용아동 5세아와 장애아동 및 다문화가정 아동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자녀 0~4세아에 보육료 전액지원 (1,500억원)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 후
계	6,396		6,396	1,124	1,220	1,257	1,295	1,500	
국 비	3,336		3,336	562	664	683	703	724	
도 비	1,530		1,530	281	278	287	296	388	
시군비	1,530		1,530	281	278	287	296	388	

● 기대효과

- 부모의 양육부담 감소 및 여성 사회참여기회 확대로 출산율 제고

Ⅰ -2-3) 건강한 노후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미 이용자 복지시각지대 확대(2011~2014)

▶ 추진목표 : ('10년) 5,971명 → ('14년) 8,770명 달성(증46.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4년
- 사업량 : 35,080명, 23,960백만원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24,380명, 9,616백만원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지원 : 6,000명 900백만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4,700명, 13,444백만원

● 추진계획

연도별	주요 사업 내용	진행%
2010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지원사업 시군 예산협의	10%
2011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3개 사업 8,770명, 62억원	30%
2012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3개 사업, 8,770명, 59억원	50%
2013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3개 사업, 8,770명, 59억원	75%
2014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3개 사업, 8,770명, 59억원	100%
2015년 이후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5개 사업 평가 후 환류	100%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재원별	연도별								
	총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후
계	288		288	49	62	59	59	59	-
국비	192		192	36	39	39	39	39	
도비	29		29	4	7	6	6	6	
시군비	67		67	9	16	14	14	14	
기타									

● 기대효과

- 노후의 돌봄서비스 증진 및 생활불편 해소에 기여

치매예방 및 지원 사업(1-2-3-2)

▶ 추진목표 : ('11년) 2,805명 → ('14년) 4,950명(증 63.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4년)

- 사업량 : 14,915명, 5,228백만원

- 치매조기검진 : 6,390명, 1,317백만원
- 치매치료관리비지원 : 8,525명 3,911백만원

● 추진계획

년도별	주요 사업 내용	진행%
2010	- 치매예방 및 조기치료의 필요성 홍보	10%
2011	- 치매노인지원사업 2,805명, 704백만원	30%
2012	- 치매노인지원사업 3,345명, 1,229백만원	50%
2013	- 치매노인지원사업 4,175명, 1,582백만원	75%
2014	- 치매노인지원사업 4,590명, 1,713백만원	100%
2015년 이 후	- 치매노인지원사업 평가 후 환류	100%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재원별	연도별									
		총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 후
계		52		52	-	7	12	16	17	-
국비		22		22	-	4	4	7	7	
도비		11		11	-	1	3	3	4	
시군비		19		19	-	2	5	6	6	
기타										

● 기대효과

- 치매의 조기 진단 및 치료지원을 통해 노후 삶의 질 제고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확대(1-2-3-3)

▶ 추진목표 : ('10년) 6,246명 → ('14년) 7,952명(증 27.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4년
- 사업규모 : 29,376명
- 사업내용 : 환경정비, 아동안전보호, 노노케어, 도서관 관리지원

● 추진계획

년도별	주요 사업 내용	진행%
2010	- 노인일자리사업(공공분야, 민간분야) : 6,246명	
2011	- 노인일자리사업(공공분야, 민간분야) : 6,630명	22.5%
2012	- 노인일자리사업(공공분야, 민간분야) : 7,212명	56.6%
2013	- 노인일자리사업(공공분야, 민간분야) : 7,582명	78.3%
2014	- 노인일자리사업(공공분야, 민간분야) : 7,952명	100%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연도별								
	총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후
계	512	90	422	-	96	103	109	114	
국비	255	45	210	-	47	52	54	57	
도비	21		21	-	5	5	5	6	
시군비	236	45	191	-	44	46	50	51	
기타									

● 기대효과

-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도내 기업에 일자리를 제공
- 노인의 지역사회동참 및 사회활동 구성원으로 노인들에게 존재감 부여

경로당 복지지도사 배치제도(1-2-3-4)

▶ 추진목표 : ('12년) 70명 배치 → ('14년) 100% 달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4년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량
 - 경로당 복지지도사 배치(연 70명) 32억원
 - ※ 경로당 784개소 순회 지원(총 경로당 수 3,899개소의 20%)
- 사업내용
 - 경로당별 여가 프로그램 보급 및 진행

● 추진계획

년도별	주요 사업 내용	진행%
2011	- 경로당 활성화 협의체 구성 및 경로당 복지지도사 운영지침 마련 - 2011년말 경로당 복지지도사 채용 및 교육	20%
2012	- 경로당 복지지도사 배치 : 70명 - 경로당 활성화 협의체 추진상황 평가 및 환류	60%
2013	- 경로당 복지지도사 배치 : 70명 - 경로당 복지지도사 제도 및 경로당 활성화 협의체 추진상황평가 및 환류	80%
2014	- 경로당 복지지도사 배치 : 70명 - 경로당 복지지도사 제도 및 경로당 활성화 협의체 추진상황 평가 및 환류	100%
2015년 이후	- 경로당 복지지도사 제도 정착	100%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후
계	32		32			11	11	10	-
국비									
도비	9		9			3	3	3	
시군비	23		23			8	8	7	
기타									

● 기대효과

-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여가 프로그램의 조정 및 진행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활력 있는 노후생활 지원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운영(1-2-3-5)

▶ 추진목표 : ('11년) 1개소 운영 → ('14년) 100% 달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4년
- 사업량 : 1개소 888백만원
- 사업내용 :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조치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계획

년도별	주요 사업 내용	진행%
2010	-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운영 계획 수립	10%
2011	-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운영 1개소 222백만원	30%
2012	-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운영 1개소 222백만원	50%
2013	-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운영 1개소 222백만원	75%
2014	-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운영 1개소 222백만원	100%
2015년 이 후	-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운영사업 평가 후 환류	100%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 후
계	88		88		22	22	22	22	
국비	60		60		15	15	15	15	
도비	28		28		7	7	7	7	
시군비									
기타									

● 기대효과

- 학대 피해노인 보호 강화 및 심신 회복 도모
- 학대받는 노인의 안전과 인권 보호

3. 도민이 만족하는 평생건강 실현

추진 목표

- ◆ 도시보건지소 확대 ' 10년 217개소 → ' 14년 259개소 현대화
- ◆ 전염병 치료 지역별 거점병원 구축 ' 14년 4개소
- ◆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 10년 32병상 → ' 14년 56병상

-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 확충
 -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재가의료, 장기요양서비스, 치매서비스 등 새로운 보건 의료서비스의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음
 - 고령화사회에 노인들의 소외감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각종 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함
-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것으로 전망하며, 현재 정부의 지원이 필연적임
 - 2008년 건강보험 기준 전체 의료비는 39조 4,296억원이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는 12조 391억원으로 총 의료비의 30.5%를 차지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 「진료비통계지표」)
- 저소득층의 의료질 보장 미흡
 - 도시지역 민간의료기관의 분포가 농촌지역에 비해 양호한 것은 사실이나, 도시지역에서도 의료기관 등 의료자원은 실제 수요가 필요한 계층보다는 경제적인 여건이 나은 계층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어서,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음
 - 치료서비스 이용량을 줄이고 의료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음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시 보건지소를 확충할 방안을 모색
- 의료서비스 확충 및 접근성 강화
 - 지역사회에는 의료서비스의 자원이 불충분하고, 그 역할과 기능이 분화되지 않고 있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이 발생
 -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는 지역 거점 보건소 및 민간병·의원 등을 건립지원을 통한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
- 보건의료인프라 확충
 - 임신·출산에 대해 사회적 책임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였으나, 인프라 미흡, 서비스 한계, 비용부담 지속 등으로 인하여 건강한 임신·출산 보장 미흡 및 그로 인한 출산율이 낮음
 - 의료취약지역 지원(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확대, 산부인과 병의원 신증축, 개보수, 의료장비 구입 등 용자) 등을 추진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분만취약지의 단계적 해소를 위한 이동검진차량과 의료진이 주기적으로 지역별 맞춤형 지원

1-3-1 의료안전망 확보

- 도시보건지소 확대를 통한 공공보건을 강화하고 의료취약계층의 적극적 이동 진료서비스로 의료사각지대 불편을 해소하여 모두가 건강한 충북도 구현
-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여 민간부문에서 기피하는 특수질환 및 취약계층 주민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
 - 도시보건지소를 확대하여 민간부문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건강증진·예방·치료·재활치료(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요법 등)를 제공함
-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119구급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 강화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은 보건소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서 응급상황발생시 초기에 대응
 - 보건소를 강화하여 의료취약지에 대한 기초의료서비스 제공

1-3-2 의료서비스 향상

- 간병비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의료서비스를 포기하는 심리적 공황상태에 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차원의 간병서비스의 확충으로 보편적 복지 구현
- 공공의료서비스 체계를 개선하여 모든 도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형평성을 제고 및 도민건강증진을 보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저소득층의 의료 형평성과 지원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간병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운영, 출산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1-3-3 한의학 산업육성

- 한방의료서비스를 받아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인 지원과 한방의료산업을 고부가가치 생명자원산업으로 육성
 - 충북의 다양한 한방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 의료산업의 육성의 일환으로 충북 메디컬 IT산업, 한의학 산업 육성, 화장품 & 뷰티산업 세계박람회를 통해 국산화장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화장품·뷰티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3

도민이 만족하는 평생복지 실현

1-3-1) 의료안전망 확보

도시보건지소 확대 등 공공보건 강화(1-3-1-1)

▶ 추진목표 : ('10년) 217개소 현대화 → ('14년) 259개소 현대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 2014년
- 사업대상 : 12개 시·군 (보건소, 지소, 진료소 현대화)
- 사업비 : 909억원 (국비 607, 도비 149, 시군비 153)

● 추진계획

- 도시지역 보건지소 신설 : 3개소 (청주, 충주, 제천 洞 지역)
- 농어촌지역 보건시설 현대화 : 54개소 (11개 시군)

년도별	사업비	주요 사업 내용	진행%
2010	72억	- 도시지소 신설 : 1개소 (11억 - 국7 도2 시2) - 농특 현대화 : 14개소 (61억 - 국41 도 10 시군10)	20%
2011	40억	- 농특 현대화 : 10개소 (40억 - 국27 도 6 시군7)	30%
2012	40억	- 농특 현대화 : 10개소 (40억 - 국27 도 6 시군7)	60%
2013	51억	- 도시지소 신설 : 1개소 (11억 - 국7 도2 시군 2) - 농특 현대화 : 10개소 (40억 - 국27 도6 시군7)	80%
2014	51억	- 도시지소 신설 : 1개소 (11억 - 국7 도2 시2) - 농특 현대화 : 10개소 (40억 - 국27 도6 시군7)	100%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후
계	909	655	254	72	40	40	51	51	
국비	607	437	170	48	27	34	27	34	
도비	149	109	40	12	6	8	6	8	
시군비	153	109	44	12	7	9	7	9	
기타									

● 기대효과

-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으로 도민의료서비스 개선 및 증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1-2-1-2)

▶ 추진목표 : ('10년) 0개소 → ('14년) 1개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2015년
- 인 력 : 14명(센터장 1, 상임팀장 1, 팀장 3, 팀원 9)
- 운영방법 : 위탁운영
- 사업내용 : 24시간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홍보 등 실시
- 사 업 비 : 32억원 (국비50%, 도비50%)

● 추진계획

- 2010.11 ~ 2011. 02 : 우리도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연구 프로젝트 실시
- 2011. 03 ~ 08 :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서 작성
- 2011. 09 ~ 11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원기관 선정(복지부)
- 2012. 01 ~ : 수탁 운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 후
계	32		24			8	8	8	8
국 비	16		12			4	4	4	4
도 비	16		12			4	4	4	4
시군비									
기 타									

● 기대효과

- 24시간 자살예방 상담 등 위기관리서비스 제공
- 도민 정신건강 증진 도모

호흡기전문질환센터 건립(1-3-1-3)

▶ 추진목표 : ('12년) 연면적 7,200㎡, 135병상 1개소 건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 2013년
- 사업명 : 충북대학교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설립
- 사업주체 : 충북대학교병원
- 예산액 : 280억원(국비 250, 도비 30)
 - ※ 국비 83%, 도비 17%

● 추진일정

- 2011. 02. : 실시설계 완료
- 2011. 04. : 기본 및 실시설계
- 2011. 06. : 시공자 선정
- 2011. 07. : 착공
- 2013. 05. : 준공 및 센터 운영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후
계	280	40	240	20	100	120			
국비	250	40	210	20	90	100			
도비	30		30		10	20			
시군비									
기타									

● 기대효과

- 도민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
- 지역의료산업 발전 시너지효과 기대

충주의료원 신축 및 장비보강(1-3-1-4)

- ▶ 추진목표 : 충북부 지역거점공공병원 현대화 ('10년) 10,655㎡, 257병상→ ('14년) 31,669㎡ 300병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2014년
- 위 치 : 충주시 안림동 산45-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31천㎡(지하3지상4, 300병상)
- 사업방식 : 임대형민자사업(BTL)
- 사 업 비 : 672억원(국비 54, 도비54, 기타 564)
- 시설임대료 : 1,154억원

●추진일정

- 2007.12 : 충주의료원신축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2009.10 : 충주메디컬센터(주)와 실시협약 체결
- 2010.05 : 충주의료원이전신축 공사착공
- 2012.03 : 충주의료원이전신축 준공 및 운영
- 2010~2014. : 의료장비 보강 MRI 등 108억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후
계	672		672	152	328	172	10	10	
국 비	54		54	4	20	20	5	5	
도 비	54		54	4	20	20	5	5	
시군비									
기 타	564		564	144	288	132			

●기대효과

- 의료시설·장비의 현대화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위상제고
- 지역주민에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신축(1-3-1-5)

▶ 추진목표 : ('10년) 2,145㎡, 204병상 → ('14년) 8,600㎡, 300병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3년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4-6(현 부지)
- 사업내용
 - 정신병동 8,600㎡, 300병상, 지하1층 지상4층
 - 주차장 4,200㎡, 폐수처리장 450㎡
- 사 업 비 : 200억원 (국비 100, 도비 100)

●추진계획

- 2011년 : 기본·실시설계, 보건복지부 심의 및 공사착공
- 2012년 : 정신병동 신축 완료, 지하주차장·폐수처리장 착공
- 2013년 : 기존 병동 철거 및 준공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 후
계	200		200		60	100	40		
국 비	100		100		30	50	20		
도 비	100		100		30	50	20		
시군비									
기 타									

● 기대효과

- 민간의료기관을 선도하는 포괄의료서비스 제공
- 정신보건체계의 거시적인 효율성과 공공성 제고 및 경영개선

전염병 치료 지역별 감염병 예방사업(1-3-1-6)

▶ 추진목표 : ('10년) 0 → ('14년) 4개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 2011년
- 사업량 : 4개소(종합병원)
- 사업내용
 - 격리중환자실 1개소
 - 격리외래환자실 3개소
- 사업비 : 5억원 (국비5)

● 추진계획

- 2011. 1 기본 및 실시계획 : 2011. 1
- 2011. 2 격리중환자실 및 격리외래환자실 착공
- 2011. 12 격리중환자실 및 격리외래환자실 완공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후
계	5			5					
국비	5			5					
도비									
시군비									
기타									

● 기대효과

- 신종전염병 지역사회유행 단계 시 의료기관 내 감염방지
- 외래환자, 중증환자 등의 효과적인 치료로 중증화 및 사망 최소화

1-3-2) 의료서비스 향상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1-3-2-1)

▶ 추진목표 : ('11년) 32명상 → ('14년) 56명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4년
- 대상기관 : 2개소(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 2011년)
- 사업량 : 32명상(병원별 16명상 운영 - 2011년)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간병비 25,000원 중 50%보조 연 30일이내)
- 예산액 : 17.5억원 (국비 1.3, 도비 4.0, 기타 12)

● 추진일정

- 2010. 12 세부운영지침 수립 통보 (도→의료기관)
- 2011. 01 사업 추진 및 분기별 평가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 후
계	17.5		17.5	1.3	2.9	3.7	4.4	5.2	
국 비	1.13		1.3	1.3					
도 비	4.0		4.0		0.7	0.9	1.1	1.3	-
시군비									-
기 타	12.2		12.2		2.2	2.8	3.3	3.9	-

● 기대효과

- 공동간병서비스로 입원실 환경 개선
- 환자 간병비 부담 경감 및 보호자 경제활동 기회 부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대(1-3-2-2)

▶ 추진목표 : ('10년) 64,000가구 → ('14년) 65,500가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4년
- 사업량 : 64,000가구 (분기별 1회이상)
- 사업내용 :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사업비 : 12억원 (국비 6, 도비 0.4, 시군비 5.6)

● 추진계획

- 취약계층 방문등록관리 : 64,000가구 등록관리 / 분기별 1회이상
- 사업담당자 교육 등 :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교육 134명
- 가정 방문을 통한 포괄적·연속성 있는 중점관리(6~8회방문)를 통한 질적 서비스전환
- 예방적 사전관리로 의료비 절감 및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소계	연도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 후
계	12	-	12	0	3	3	3	3	
국 비	6	-	6	0	1.5	1.5	1.5	1.5	
도 비	0.4	-	0.4	0	0.1	0.1	0.1	0.1	
시군비	5.6	-	5.6	0	1.4	1.4	1.4	1.4	
기 타									

● 기대효과

-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형평성 제고
- 건강생활실천유도 등 적극적인 자가관리능력 향상
-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만성질환 사전예방 및 대응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1-3-2-3)

▶ 추진목표 : ('10년) 3개시군 → 3개시군외 산부인과 없는 시군 추가발생 지역 ('14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4년
- 사업량 : 1개반 운영 (충주의료원 위탁운영)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사업비 : 9.6억원 (국비 2.3, 도비 7.3)
- 사업내용 : 산부인과 없는 3개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임신부 산전관리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2011. 1 찾아가는 산부인과 해당 시군 및 관련기관 회의
- 2011. 2 찾아가는 산부인과 팀 구성 (5명)
- 2011. 2 찾아가는 산부인과 산전진찰 이동진료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소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 후
계	9.6	4.6	5	1	1	1	1	1	
국 비	2.3	2.3							
도 비	7.3	2.3	5	1	1	1	1	1	
시군비									
기 타									

● 기대효과

-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에 산전서비스로 모성·태아 건강 보호
- 임신 및 출산에 편리한 환경 제공으로 저출산 극복

충북 메디컬 IT산업 육성(1-3-2-4)

▶ 추진목표 : 2012년도 국비 확보

- 메디컬 IT산업 클러스터 조성, 소외계층 u-안전망 서비스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 2014년
- 사업내용
 - 메디컬 IT산업센터 건립 및 관련기업 유치
 - 소외계층 u-안전망 서비스 구축
- 소요예산 : 680억원(국비 260, 도비 260, 시군비 160)

● 추진계획

-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 「충북 메디컬 IT산업 육성계획」
 - ※ 2011년도 추경예산 연구용역비 확보
- 관련예산확보(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 2012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예산 반영 추진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 후
계	680	0	680	0	0	228	228	224	
국 비	260	0	260	0	0	87	87	86	
도 비	260	0	260	0	0	87	87	86	
시군비	160	0	160	0	0	54	54	52	
기 타									

● 기대효과

- 메디컬 IT R&D 중심의 메디컬 IT산업유치 및 경쟁력 확보
- u-Health 고도화를 통한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서비스 향상

1-3-3) 한의학 산업육성

한방생리체험마을(제3한방명의촌) 조성(1-3-3-1)

▶ 추진목표 : ('10년) 2개소 → ('12년) 3개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2년
- 위 치 : 제천시 수산면 청풍호반 일원
- 사업규모 : 건축 750㎡(한방진료관 건립 450㎡, 건강체험실 300㎡)
 ※ 민 자 : 부지조성 1,983㎡
- 사업내용 : 진료실, 치료실, 입원실, 명상체험실, 발효한약제품 개발연구실
- 총사업비 : 25억원(국비5, 도비 5, 시비 10, 민자 5)

● 추진계획

- 2011. 3~ 6월 청풍호반권 인근마을 대상 최적지 공모 선정
- 2011. 7~12월 부지매입, 실시설계, 토목공사
- 2012. 1~12월 건축공사 및 준공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 후
계	25.5	-	25.0	-	15.0	5.0			
국 비	5.0		5.0						
도 비	5.0	-	5.0	-	5.0				
시군비	10.0	-	10.0	-	5.0	5.0			
기 타	5.0	-	5.0	-	5.0				

● 기대효과

- 한방명의촌 1·2호점과 연계 청풍호반권 한방의료관광 인프라 확충
- 한방의료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한방특화도시 발전

화장품&뷰티산업 세계박람회 개최(1-3-3-2)

▶ 추진목표 : ('11년)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심사 → ('13년) 개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3년
- 명 칭 : 「2013 화장품&뷰티산업 세계박람회」
- 개최시기 : 2013년 5월 또는 10월중 (약 15일 정도)
- 개최장소 : 오송 바이오밸리 단지 내
- KTX 오송역사 내외 및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주차장)
- 주요내용
 - 기획전시관 : 주제관, 화장품 역사·미래·발전관, 소재관 등
 - 산업관 : 국내외 업체 화장품 홍보 및 전시·판매, 정보 교류
 - 학술회의 :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방안 세미나 등
 - 부대행사 : 체험, 진단, 경연대회, 이벤트 등
- 소요예산 : 204억원 정도 (국비 100, 도비 104)

● 추진계획(추진일정, 향후계획)

- 2011. 1~12월 :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주무부처 타당성검토 신청
- 2012. 1~12월 : 정부예산 편성 및 추진단 구성·운영
- 2013. 1~12월 : 행사 추진 및 결과 평가·분석

● 소요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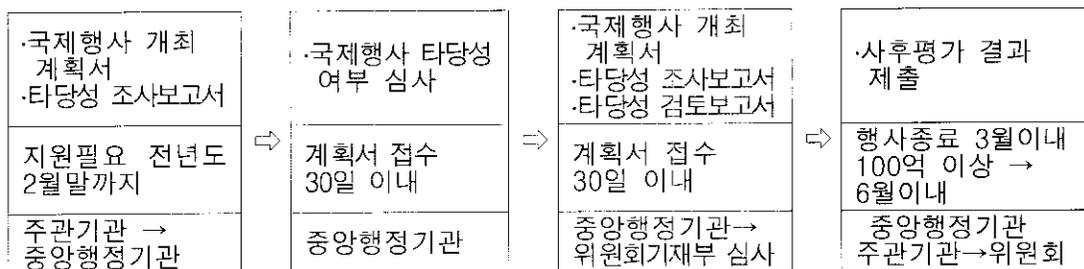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후
계	204		204		2	102	100		
국 비	100		100			50	50		
도 비	104		104		2	52	50		
시군비									
기 타									

● 기대효과

- 박람회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뷰티산업 도약의 계기 마련
- 식약청 등 6대 국책기관 이전을 계기로 오송 바이오밸리 조기 활성화

※ 국제행사 추진절차



자료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등에 관한 규정('08.4.21.기재부 훈령 제12호)

글로벌 cGMP CMO 운영 및 인력양성사업(1-3-3-3)

▶ 추진목표 : ('11년) 사업비 확보 → ('14년) 시설 구축 완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4년
- 사업량 : 임상용 의약품 제조 및 완제 의약품 제조 각 1식(66,116㎡)
- 사업비 : 1,055억원(국비684, 도비 105.5, 기타 105.5)
- 사업기간 : 시설구축(2012~2014, 3년), 인력양성(지속)
- 사업내용 : 글로벌 cGMP시설 구축 및 cGMP시설 운용 인력양성

● 추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 '11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 부지매입('11. 5월중)
- '11년 광특예산 확보 추진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후
계	1,055		1,055		100	478.55	274.36	202.09	
국비	844		844			434.15	241.05	168.8	
도비	105.5		105.5		50	16.65	19.43	19.42	
시군비									
기타	105.5		105.5		50	27.75	13.88	13.87	

● 기대효과

- 한미 FTA협정에 대비한 국내 제약기업의 제품 글로벌화
- 임상용 및 수출용 CMO시설 지원을 통한 외화낭비 감소
- 신규 고용 증대 및 선진국 수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4. 가족친화 환경조성

추진 목표

- ◆ 여성의 도정참여 확대 ' 10년 27% → ' 14년 30%이상
- ◆ 경력단절여성 및 기혼여성 취업 촉진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10년 50.3% → ' 14년 55%
- ◆ 지역사회 청소년지원센터 설립 ' 10년 4개소 → ' 14년 12개소

○ 일-가정양립곤란

- 여성의 고학력, 경제활동 참여증가 등으로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맞벌이형태로 전환되었으나, 가족지원기능의 약화, 인프라 미비 등으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취약
- 가사노동시간에 대해 맞벌이가구의 경우 남편 37분, 부인 3시간20분(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9)
-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보장하여 출산을 제고에 기여함과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의 축으로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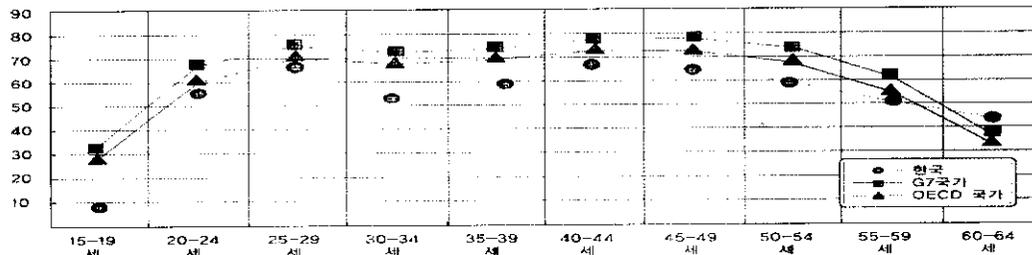
○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 조직의 가족친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가족친화지수를 토대로 남녀 고용평등 및 가족친화 우수기업 발굴을 추진
-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임용관리자 임용목표제의 지속적 추진
- 임신,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최소화 및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중이나, 실적이 극히 미흡하여 실효성 확보 곤란

○ 경력단절여성 및 기혼여성 취업 향상

- 2010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4%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50%내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 ('00) 48.8% → ('05) 50.1% → ('10) 49.4%
- 선진국과는 달리,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현상이 개선되지 않아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에 전형적인 M커브 현상이 아직도 나타남.

〈표〉 OECD 주요국가 연령별 여성 경황률 비교



자료: OECD통계 On-line (2007);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여성부:2007) 재인용.

- 출산·양육의 장애요인을 해소하여 개인과 가족의 실질적인 출산 선택기회를 보장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

1-4-1 참여와 자율의 여성정책추진

- 여성 의견들의 정책에 반영과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확대함
 - 주요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여성의견이 정당하게 반영되는 여건 조성
 -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09년 25.6%, '11년 28%, '13년 30%까지 확대함(충북도, 내부자료, 2010),
- 여성의 노동경쟁력 확보와 향후 여성이 정보화 사회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요에 부응하는 직정을 선정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함

1-4-2 여성이 일하기 좋은 문화 확산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 경력단절여성의 전문화와 체계화된 유망직정을 선정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
 - 자녀양육 전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직장환경 조성을 유도
- 성폭력 피해여성,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 가정폭력 및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예방을 위해 교재개발 및 소규모 예방 교육을 실시

1-4-3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육성

-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및 가정, 학교, 사회복지 등 지원으로 청소년 안전망을 확대
 - 위기청소년 발견, 구조, 치료 등 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
-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현대화된 청소년수련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4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 환경조성

I -4-1) 참여와 자율의 여성정책 추진

여성의 도정참여 확대(1-4-1-1)

▶ 추진목표 : ('10년) 도정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27% → ('14년) 30%이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4년
- 사업내용
 - 도정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확대 : 28% → 30%
 -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확대
 - 여성단체의 건전한 지원 육성
- 사업비 : 7억원

● 추진계획(추진일정, 향후계획)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도정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 여성발전기금 사업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11~2014 : 도정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확대
 - 2011~2014 :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확대
 - 2011~2014 : 여성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 후
계	7		7		1.6	1.8	1.8	1.8	
국 비									
도 비	7		7		1.6	1.8	1.8	1.8	
시군비									

● 기대효과

- 여성의 도정참여 확대로 양성평등 실현
-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으로 여성의 권익신장 기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설치(1-4-1-2)

▶ 추진목표 : (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설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4년
- 사업규모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설치(여성발전센터 내)
 - 시설 : 성별영향평가 관련 자료실 및 상담실 구비
 - 인력 : 센터장(상근), 연구원 2인 이상
- 주요기능
 - 성별영향평가 지침서 및 안내서 개발 지원, 관련 교육 제공
 -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지원, 평가지표 및 분석기법 개발 지원
 - 기타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관련 제도개선 지원
- 사업비 : 4억원

● 추진계획

- 성별영향평가 수행 가능 인력 일부 확보
 - 2011년 : 연구 인력 확보(1명)
성별영향평가분석센터 지정 신청
 - 2012년~ :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 ※ 전국 6개 시도 설치 운영중(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남 경북)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 후
계	4		4		1	1	1	1	
국 비									
도 비	4		4		1	1	1	1	
시군비									
기 타									

● 기대효과

-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 운영으로 성인지 관점의 정책결정과 사업추진으로 양성이 행복한 사회 구현

여성인력실태조사 및 직업훈련특화사업 개발(1-4-1-3)

▶ 추진목표 : ('11년) 유망직종 시범운영 1개 과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5년
-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일자리를 위한 유망직종 발굴
- 추진방법 : 전문기관 용역 운영
- 사업내용
 - 지역 여성인력 실태조사 : 1식 50백만원
 - ▶ 경력단절여성의 특성(규모, 취업욕구, 취업경로 등)
 - ▶ 지역 사업체 현황 및 일자리 분포(여성인력수요 중심)
 - 유망직종 직업교육 훈련 : 1과정 50백만원
 - ▶ 지역특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 사업비 : 3억원

● 추진계획

- '11. 2 ~ 6 : 지역 여성인력 실태조사 실시
- '11. 7 ~11 : 지역 특화 직업교육훈련 개발 및 시범운영
- '11.12 : 직업교육훈련 보급 매뉴얼 작성 및 결과보고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 후
계	3		3		1		1		1
국 비	3		3		1		1		1
도 비									
시군비									
기 타									

● 기대효과

- 경력단절여성의 전문화·체계화된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운영

1-4-2) 여성이 일하기 좋은 문화 확산

경력단절 여성 및 기혼여성 취업촉진(1-4-2-1)

▶ 추진목표 : ('10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50.3% → ('14년) 5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 2014년
- 여성취업전담기구 운영 : 4개소(새일본부 1, 새일센터 3)
- 소요예산 : 188억원(국비 94, 도비 40, 시군비 54)
- 사업내용 : 경력단절여성의 직업교육훈련지원, 직업경력개발, 구직여성의 채용장려금지원, 취업알선 등

● 추진계획(추진일정, 향후계획)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가설치(1개소)
- 생생일자리 취업박람회 개최 : 시·군 년1회 이상
- 취업상담창구를 통한 구인·구직을 위한 취업대책 추진
- 여성친화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일·가정 양립사업 추진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 후
계	188		188	33	34	39	39	43	
국 비	94		94	15	17	20	20	22	
도 비	40		40	8	7	8	8	9	
시군비	54		54	10	10	11	11	12	
기 타									

● 기대효과

-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정착을 위한 취업지원체계 마련
-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과 현장에서의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

북부권역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설치(1-4-2-2)

▶ 추진목표 : ('11년) 북부권역 새일센터 1개소 설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4년
- 사업내용 : 북부권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개소 설치, 운영, 여성 직업교육훈련, 여성인턴제·취업설계사 운영,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등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등
- 사업비 : 10.8억원 (국비 8, 시군비 2.8)

● 추진계획

- 현대 새일센터 4개소 운영중(청주, 제천, 영동, 새일본부)
- 북부권역 새일센터 1개소 추가설치
 - 공모('10.11.25~12.9) : 4개소 신청(충주2, 제천2)
 - 도 추천심사위원회 심의('10.12.15) : 충주 YWCA 선정
 - 중앙 지정심사위원회 심의('10.12.28) : 최종 선정
 - ⇒ 2011년부터 사업비 지원 : 272백만원(국비 201, 시군비 71)
 -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신규지정 : 충주 YWCA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소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 후
계	10.8		10.8		2.7	2.7	2.7	2.7	
국 비	8.0		8.0		2.0	2.0	2.0	2.0	
도 비									
시군비	2.8		2.8		0.7	0.7	0.7	0.7	
기 타									

● 기대효과

- 경력단절여성 재교육을 통한 여성취업률 제고 및 경제활동 참여 촉진
- 권역별 새일센터 설치로 균형적인 여성취업 인프라 구축